

마태복음 강해 제1과

강해 노트 자료: www.KeepBible.com, 경건의 삶, 성경강해, 마태복음 강해노트

교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한영대역 혹은 스터디 성경(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총판)

A. 마태복음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야고보서, 히브리서 등의 책에서 넘어진다.

변천기의 책들 혹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인 책들

언제부터 신약 시대인가?(히9:16-17)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역사 기록을 담고 있다.

변천하는 역사 기록

마태복음: 구약에서 신약, 사도행전: 유대인 기독교에서 이방인 기독교

공관복음: 마태(유대인 대상, 메시아, 주후 60년경), 마가(로마 교회의 이방인들 대상, 고난 받는 종, 주후 60년경), 누가(그리스 사람들 대상, 사람의 아들 구원자, 주후 65년경)

순전한 역사서이다.

사도행전(주후 65년경)

이 외에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의 사도 바울의 서신: 교회

야고보서, 베드로전후, 유다서 등의 일반 서신: 물론 교회 대상, 히브리 책체

요한복음: 주후 90년경, 역사서와 서신서를 총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보여 준다(요3:16; 20:30-31).

요한123: 영지주의 이단 교리에 대응하기 위해(요일5:20)

요한계시록: 교회의 휴거 이후에 있을 미래 사건,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죽은 자들의 심판

요약: 신약성경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교회는 마16:18에서 앞으로 이 땅에 생길 것으로 예언되었고 오순절에 처음 이 땅에 나타났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인가?(롬15:8-9, 눅1:30-33; 67-75; 눅2:25, 34; 38 등)

마태복음: 유대인 주 대상(이방인들로 넘어감), 마10:5-7, 마28:19-20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찾는 것은 구약에서 교회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툼슨주석성경 이사야서 등을 보면 교회가 나온다. 이런 것은 모두 칼빈주의 언약신학에서 나온 것으로 성도들을 오류로 인도한다. 구약성경에서는 교회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

하나님의 열심: 마21:33-44

구약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메시아를 보낸다(창3:15).

마태복음 강해 제2과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

하나님의 열심: 마21:33-44

구약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메시아를 보낸다(창3:15).

인류의 구속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최종적인 계획을 수행하신다.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신다.

이 예수님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다.

또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동시에 육신을 입으셔야만 한다(히2:14-18).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한 그분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발견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다(마23:37-39).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 교회가 형성된다(롬11:11-12).

이스라엘의 미래(롬11:25-26; 스12:10)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

여전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이다. 아직 구약 시대이다(갈4:4-5)

40번째 책: 40은 성경에서 대부분 시험의 때를 가리킨다(40년 광야 생활, 사십 일 금식...)

유대인들을 시험하는 때

AD 30년에서 70년까지 또 한 번 유대인들을 시험하는 때가 주어짐.

그들은 여전히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고 결국 완전히 쫓겨남.

B. 마태복음 내용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 삶,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을 다룬다. 성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에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빈번히 구약을 인용한다.

마태는 누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며 그분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것을 강조한다(마2:2). 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마귀들과 질병들을 물리칠 권능을 주시고 친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등을 보여 주심으로 메시아의 표적을 이룬 사실을 잘 보여 주며 메시아 왕국의 본질과 영역, 활동 등을 강조한다(5-7장; 13장; 24-25장).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바라던 왕국을 초월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고자 했으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의 후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며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즉 재림의 때에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마23:37-39).

가장 중요한 단어: 왕과 왕국(단2:44)

마3:2; 4:17; 6:9-10, 13; 10:5-6; 11:3, 마13: 왕국의 비유

핵심 장: 16장 4절 죽음 암시, 16절 베드로의 고백, 18절 교회 암시, 21절(대단히 중요함)

제1장: 왕의 족보

제2장: 왕의 출생

제3장: 왕의 침례

제4장: 왕의 사역 준비

제5-7장: 왕국의 현장

제8, 9장: 왕의 신임장

제10장: 왕의 메시지(열두 사도)

제11장: 왕국의 거절

제12장: 왕을 거절하는 죄

제13장: 왕국의 신비

제14장: 왕의 기적(오병이어)

제15장: 왕의 사역 대상(이스라엘)

제16장: 왕의 죽음 예고(교회 탄생)

제17장: 왕의 미래 영광(변화산)

제18장: 왕국의 법칙

제19장: 왕국에 들어갈 자들

제20장: 왕의 죽음 예고

제21장 왕의 입성

제22장: 왕의 혼인 잔치 비유 제23장 왕의 지도자들 저주(13-33절), 37-39 매우 중요

제24장: 유대인들의 환난기(15-21, 단12:1), 제25장: 이 세상의 끝 설명, 천년 왕국

제26-28장: 왕의 심판, 죽음, 매장, 부활

특징:

- (1) 교리적으로 볼 때 거의 유대인
- (2) 자신들의 메시아를 고대하는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쓰임
- (3) 신약 시대가 열렸으나 내용 면에서 여전히 구약임

침례자 요한의 사역 목적: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인물(요1:31; 행19:1-5), 예수님의 사역 목적: 롬15:8-9

C. 시대적 상황

‘이방인들의 때’: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이 꾸은 꿈과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

느부갓네살 왕은 즉위 제2년에 한 꿈을 꾸었다(단2:31-45).

거대한 신상은 세상 왕국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왕국들의 통일성과 역사적 계승을 보여 준다.

〈다섯 가지 세상 왕국〉 혹은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 도표(한영 25쪽)

느부갓네살 왕의 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네 왕국 즉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왕국이 세상의 정부로 계승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바빌론: 유다의 패망과 포로 생활

페르시아: BC 539 다리오의 바빌론 정복, BC 536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 명령(스룹바벨, 성전 재건)

BC 515 에스더, BC 467 에스라의 귀환, BC 454 느헤미야의 귀환(성벽 재건)

BC 441 말라기

그리스: BC 423-63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BC 323) 으로 인해 쏫염소의 큰 뿔인 그리스 왕국이 네 개의 소왕국들 곧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주전 323년에서 주전 27년까지 지속되었다.



마태복음 강해 제3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가 영토를 확장하고 죽은 뒤에 그의 왕국은 시리아의 셀류시드(셀레우코스) 왕국과 이집트의 프톨레미(프톨레마이오스) 왕국으로 나뉘었다.

D. 헬레니즘 이교주의 영향

그 결과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끼여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외세의 각축장이 되었고 특히 시리아의 BC 170년경,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프톨레미(프톨레마이오스)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탈취하고 헬레니즘을 강요하였다.

그리스 문화(다신 문화)로 문화 통합하려함.

그리스주의자 아니면 야만인 취급

그리스 관습과 문화, 그리스 식 이름 등 미리암이 마리아로, 야곱이 제임스로...

그 결과 유대교 탄압 등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갔다.

알렉산드리아의 이단들: 필로, 오리겐, 헤브라이즘+헬레니즘

성경의 부패,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해

E. 제사장들의 부패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 그가 안디옥에 가 있는 동안 그의 동생 야손이 안티오쿠스 대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군자금을 마련하려고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또 적극적으로 헬레니즘화를 장려할 유대인 지도자를 갖게 된 것에 기뻐했다.

그는 야손의 요청에 따라 예루살렘에 그리스 도시(폴리스)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야손은 체육관을 만들어 젊은 유대인들과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그곳에서 경기를 하게 하였다.

3년 후, 제사장 가문에 속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메넬라오스가 더 많은 뇌물을 바쳤고 야손은 도망하였다. 메넬라오스는 안티오쿠스에게 돈을 주기 위해 성전 보고(寶庫)에서 거액의 돈을 빼돌렸다.

오니아스 3세(안티오쿠스에 유배된 상태)가 이 일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메넬라오스는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안티오쿠스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야손은 10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메넬라오스에게서 대제사장직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안티오쿠스는 죽지 않았다.

안티오쿠스는 야손이 그런 행동을 했으며 자신의 헬레니즘화 정책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리자 보복 조치를 취하였다.

F. 마카비(마카베오) 반란

마카비 반란(주전168년경): 셀류시드(셀레우코스) 왕조의 강압적인 그리스 문화 강요

유일신을 섬기던 유대인들의 반감

주전 169년부터 주전 167년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됨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유대교의 관습이 금지되는 사태가 연거푸 발생했다.

할례를 받으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주전 168년 전쟁에서 떠나며 그의 장군에게 예루살렘을 약탈할 것을 명령함

주전 167년 리시아스 행정관의 지휘 하에 반 유대적 포고령 선포

(1) 성전을 제우스에게 바침, (2) 돼지를 잡아 바침, (3) 구약 성경 말살

1,000명 이상의 하시딤들이 처형당함

하시딤: 바빌론에서 귀환해 온 유대인들 세계에 헬레니즘의 문화가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서 세속화가 가속화될 때 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경건과 충절을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을 일컬어 하시딤(Hasidim)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말3:16-17).

이 하시딤 중에서 율법주의적, 형식주의적 하시딤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신비주의적, 금욕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옛세네 파라고 할 수 있다.

모디인 마을에 파견된 관리와 제우스에게 희생 드린 배교자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

(마타디아스 제사장 가문 주동)

마타디아스의 다섯 아들: 존(Jone), 엘리에저(Eleazor), 시몬(Simon), 요나단(Jonathan), 유다
이들은 '망치'를 뜻하는 마카비 혹은 마카베오라 불렸다.

마카비: 영예의 호칭(마카베오, 정치 세력)

이들이 함께 산으로 도망하여 혁명운동 시작 + 보수적인 하시딤 합류

게릴라식으로 셀류시드(셀레우코스) 왕조를 괴롭힘

셀류시드 왕조에 협조하는 마을을 불사름

아버지가 죽자 유다 마카비가 지도권을 이어받으면서 종교적인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정치적인
독립을 위한 싸움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마카비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4년에 죽고 유다는 군대를 예루살렘에 진입시킨다.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손에 들어온 것을 축하하여 기원전 164년 12월 25일에 제단이 새롭게 봉헌되고
일주일 동안 축제가 벌어졌다. 이로써 율법에 합당하게 예배가 다시 드려졌다.

이때부터 유대교는 매년 성전 봉헌(히브리어: 하누카, 요10:22, 개역성경의 수전절) 축제에서 이
사건을 기억하며 빛이 암흑과 어둠을 쫓아내는 표징으로 등불을 점화하였다.

마카비는 주전 161년 전쟁에서 시리아의 니카노르 장군에게 패하고 전사한다.

마카비 형제 요나단에 의해 혁명은 계속된다.

종교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더 많이 누리게 되었다.

주전 143년 시리아인의 음모로 요나단이 살해되고 시몬이 뒤를 잇는다.

시몬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방인의 통치로부터 독립시켰다. 시몬은 주전 133년에 암살되었다.

하스모니아(하스몬) 왕국 : 주전 142년-63년, 마카비들의 후예

유대인들은 주전 142년부터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였다.

- 하스모니아 왕국의 왕들(시몬, 힐가누스 1세, 아리스토틀루스 1세 등)

정치만 남고, 신앙심은 사라지다 ★★★

G. 로마 시대

로마는 BC 8세기 무렵부터 전설적 왕정기(王政期)에 속하며, BC 510년부터 공화정기(共和政期)로
들어갔고 유명한 카이사르(시이저, 가이사)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BC 27년) 이후는 제정기(帝政期)로
들어갔다(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눅2:1),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이김).

그러나 395년 로마제국은 동·서로 분열되어 서로마제국은 476년에 멸망하고 비잔틴 제국(동로마제
국)은 1453년까지 존속했다. 로마가 이룩한 지중해 세계의 통일은 세계사상 불멸의 의의를 가진다.

H. 예수님 직전의 로마 시대

주전 63년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함

주전 40년 로마가 헤롯 대왕 임명(에돔 족속)

주전 37년: 헤롯이 예루살렘을 취함

주전 20년: 성전 복원(46년), 요2:19-20

주전 4년: 헤롯 사망

주전 4년: 침례자 요한과 그리스도 탄생

유대인들의 생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므로 메시아 출현을 눈 꼬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눅3:15; 갈4:4).

마태복음 강해 제4과

I. 성전

하나님의 임제로 인해 거룩히 구별된 곳으로 그분께만 경배 드리는 건물.

이곳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인데 우상이 있는 이교도들의 신전과는 달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지성소에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다.

솔로몬의 성전

다윗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단 대언자를 통해 그가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 많은 물자를 예비하였다.

성전을 세울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었다(창22:2, 14; 대하3:1).

성전의 모델은 성막과 거의 비슷하며 단지 외형만 커졌고 그 안의 기구들도 거의 비슷하다.

처음 성전을 짓는 데 7년 6개월이 걸렸으며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대하5:1-14; 6:1-42; 7:1-22). 성전 자체는 주랑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그리 크지 않았으며 주변의 뜰과 방이 있는 지역이 넓었다.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말은 지성소가 있는 건물만을 뜻하지 않고 종종 뜰을 포함한 전체 성전 구역을 의미한다.

솔로몬의 성전은 처음 33년 동안만 아름다움을 유지하였고 이집트의 시삭 왕이 이곳을 약탈한 뒤부터(왕상14:25-26; 대하12:9) 하사엘, 디글랏빌레셀, 산헤립 등이 더럽혔고(왕하12:1-21; 16:1-20; 18:1-37) 마침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파괴시켰다. 그래서 첫 성전은 424년 3개월 8일 만에 땅에서 사라졌고 그 뒤 52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다.

스룹바벨 성전

그러나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이 두 번째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스1:1-4; 2:1; 3:8-10) 그 뒤 이방인들의 많은 방해를 받으면서 성전 공사가 진행되어 21년이 지난 뒤 완공되었다(스6:15-16). 이 성전의 크기는 이전 것과 같았으나 겉모습은 이전 것보다 떨어져서 처음 성전을 본 사람들은 초라한 모습의 새 성전을 보고 슬퍼하였다(학2:3). 하지만 주님은 이 집의 영광이 처음 것보다 크리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학2:9). 이 성전에는 언약궤, 금홀의 자리, 눈에 보이는 영광, 제단의 거룩한 불, 우림과 둠뎀, 대언의 영 등이 없었다.

마카비 시대

주전 168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대제는 매일 드리는 성전 희생 제사를 금하고 제단에 돼지 피를 드림으로써 이 성전을 더럽혔고 근 3년 동안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유다 마카비는 주전 165년에 다시 경배를 부활시키고 성전을 새롭게 봉헌하였다.

헤롯 성전

헤롯 대왕은 자신의 통치 제1년인 주전 37년에 두 명을 빼고 산헤드린의 모든 회원을 죽였으며 이것을 속죄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미화하기로 하였다. 그는 2년 동안 자재를 모은 뒤 스룹바벨의 성전을 허물고 46년에 걸쳐 다시 지었다. 이렇게 완공된 성전에 주님이 들어가셨으므로 학2:9; 말3:1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헤롯의 성전은 대리석으로 건축되어 빼어난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자랑하였다(막13:1; 눅21:5). 그러나 그 당시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여겨지던 성전은 우리 주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막13:2).

천년 왕국의 에스겔 성전(겔40-48장)

한편 신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신자의 몸이며(고전3:16-17; 6:19; 고후6:16) 신약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는 결코 성전이 아니다. 교회가 의식화되어 천주교처럼 변하면서 목사가 제사장(사제)처럼 행세하고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구약 체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

J. 회당

이 말은 원래 집회를 뜻하지만 교회와 비슷하게 후에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집회를

갖는 장소를 뜻하게 되었다.

구약성경에 이 말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바빌론 포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야외에서 혹은 대언자들의 집에서 집회를 가졌다.

나이가 들고 경건하며 학식이 있는 사람 열 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고 큰 마을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으며 그래서 우리 주님 당시에는 회당이 매우 많았다.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으므로 회당이 마치 지역 교회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회당을 세우는 일은 매우 경건한 행위로 간주되기도 하였고(눅7:5) 천국의 열쇠로 생각되기도 하였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회당이 건립되었다. 그래서 한때 예루살렘에만 460-480개의 회당이 있었다. 회당은 대개 높은 곳에 지었으며 건물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서쪽 편은 율법서가 담긴 궤가 있으므로 신전이라 불렸고 동쪽 편은 사람이 모이므로 회당의 몸이라 불렸다.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앉았고 장로들은 사람들을 마주 보고 반대편에 앉았다.

장로들이 앉는 곳은 좀 더 귀한 곳으로 생각되어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마23:6). 여인들은 격자창 등으로 구분된 발코니에 앉았다.

모든 회당에는 직분을 가진 열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서 회당의 치리자는 모든 것을 주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회당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회중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기도와 말씀 선포 등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목사들은 이런 연유로 천사로 불린 듯하다(계2-3장).

사람들이 앉으면 회당의 천사가 강단에 올라가 공중 기도를 하고 이때에 사람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하였다(마6:5; 막11:25; 눅18:11, 13). 유대인들의 회당은 경배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장소이기도 하였으며 그래서 종종 회당에서 매를 맞는 모습이 나온다(마10:17; 막13:9; 행22:19; 26:11; 고후 11:24). 회당에서 내쫓기는 출회는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이었다(요9:22; 12:42; 16:2).

K. 유대인들의 분파

바빌로 포로 생활 이후 유대인들 사이에는 실행과 의견 등으로 인해 다섯 부류의 분파가 있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 당원, 열심 당원 등.

● 바리새인: 마카비 전쟁 이후에 형성됨(BC 160년경). '바리새'라는 이름은 '분리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으며 이것은 그들이 지혜와 성별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음을 뜻하였다.

회당 중심, 제사장과 성전 배격

그들은 구약성경의 기록된 말씀이 유대교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금식, 기도, 구제, 이방인과 세리들과 접촉하는 것 등의 외적 의식에 관한 한 여러 가지 구전 전통과 규례를 첨가하였고(마6:5; 9:11; 23:5; 막7:4; 눅18:12) 그래서 미신과 자기 의를 세우려는 형식의 틀에서 천주교와 비슷하다. 구전 율법 중시.

그들은 모세의 율법 조문을 중시하였지만 자기들의 전통과 철학으로 그 안의 영적 진리를 무시하였다(마5:31, 43; 12:2; 19:3; 23:23). 그들은 겉으로 경건하게 드러났고 거룩하게 보였으므로 보통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 그들은 혼의 불멸과 몸의 부활을 믿었다(행23:8).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그들의 위선과 교만과 탐욕을 책망하셨으며(마6:2, 5; 23:1-39; 눅16:14; 18:9; 요7:48-49; 8:9.) 이로 인해 그들은 처음부터 그분을 미워하고(마12:14) 그분을 죽일 방도를 구했으며 그 결과 그분의 피가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돌아갔다. 한편 그들 중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시므온처럼 진실로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다(마27:57; 눅2:25; 요3:1).

다소의 사울 역시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다(행26:5; 갈1:14).

● 사두개인: 마카비 반란 전에 주전 200년경에 형성됨. 제사장과 성전 중심

이들은 종종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였으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서는 하나가 되었다(마16:1-12; 눅20:27). '사두개'라는 말이 공정함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살면서 이 파를 창설한 사독 혹은 사두커스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던 전통과 기록되지 않은 법규를 다 무시하였으며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만 유대교의 근원이고 규칙이라고 주장하였다(구전 율법 배격).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마귀론을 거부하고 천사나 영의 존재를 부인하며 몸이 죽을 때 혼도 죽고 따라서 부활이나 보상 등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다(마22:23).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운명이나 섭리 같은 것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으나 사두개인들은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유대의 백성들은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더 많이 수용하였으나 고위층 사람들은 그 반대였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중 다수가 사두개인이었고(행23:6-9)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도 그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도록 하는 데 일조하였다(행4:1; 5:17).

- 에세네파: 마카비 전쟁 당시 형성됨.

에세네파는 쿨란 공동체라 불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던 유대교의 한 조류이다. 에세네파가 쿨란 공동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들이 금욕생활을 하던 정착지가 쿨란(Qumran) 동굴이었기 때문이다. 개인 경건 강조, 이들은 앞으로 도래할 종말에 대한 기대와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두 메시아(정치적, 종교적), 몸의 부활 부인, 결혼 금지

- 헤롯 당원: 헤롯 대왕과 헤롯 안디바의 추종 세력(마22:16; 막3:6).

헤롯은 로마 정권에 의존했으며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세금 내는 것을 당연히 여겼으나 바리새인들은 이를 부인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마22:16의 뜻을 알 수 있다. 헬레니즘

- 열심당(熱心黨): 젤롯당(Zealot당) 혹은 혁명당

로마제국의 식민통치에 폭력항쟁으로 맞설 것을 주장한 유대의 종교적 민족주의 정치 운동이다.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기름부음 받은 유대인(메시아)만이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로마 제국에 계속해서 대항하였다. 그들은 66년에서 70년에 걸친 대대적인 유대인 반란인 제1차 유대-로마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66년 예루살렘을 장악하여 4년간 버텼으나 70년에 로마 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났다. 시몬 젤롯(눅 6:15), 바라바(막15:7)

마태복음 강해 제5과

침묵의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

갈4:4

1. 로마의 역할(정부): 파스 로마나, 모든 곳에 화평이 있었다. 자유 무역, 자유 여행
길(80,000 킬로미터의 큰 길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2. 그리스의 역할(문화): 언어, 코이네 그리스어
3. 유다의 역할(유산): 산헤드린 공회, 회당, 종교 교육

성경해석의 원리

- (1) 성경은 성경으로(Scripture with scripture)
- (2) 올바르게 시대와 수신자를 나누는 것이 중요함(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딤후2:15)
신약과 구약
구약 39권: 민족들과 이스라엘(아브라함)
신약 27권: 유대인과 교회(이방인+유대인), 고전10:32
- (3) 앞 뒤 문맥을 살펴야함(In context)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예

지옥(hell): 총 54회(구약 31회, 신약 23회),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지하 세계'라는 뜻
지옥의 위치

신32:22(욥11:8; 시86:13; 잠9:18): 가장 낮은 곳

시55:15(잠7:27; 잠15:24; 사5:14; 14:9, 15; 겔31:16; 마11:23): 내려간다, 밑에 있다.

하늘(천국, heaven): 총 715회(단수 582회, 복수 133회)

위, 가장 높은 곳,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주 공간은 항상 3-4개로 나뉜다. 처음 땅을 지을 때도 셋째 하늘과 땅이 가장 먼저 있었다(창1:1).

구조 구분: 하늘, 땅, 땅 밑, 그리고 바다(출20:4)

하늘과 지옥의 경우 항상 땅을 기준으로 하늘은 위에, 지옥은 아래 있다.

하늘이 천국(셋째 하늘)인 경우에는 위에 북쪽에 있다.

예수님이 죽어서 가신 곳: 몸과 혼과 영

마12:39-40(욥2:2-3): 요나는 죽었다(5-6절). 산 채로 있지 않았다. 부활의 예표

행2:30-32(시16:10)

눅23:43(낙원)

눅16:19-31, 아브라함의 품, 지옥, 구렁텅이

엡4:8-10

지금의 낙원 위치: 고후12:2-4

계2:7

결론:

예수님은 죽어서 강도와 의 약속대로 땅 밑에 있는 지옥의 낙원 부분(아브라함의 품)에 가셨고 3일 동안 그곳에 계시며 낙원에 있던 의인들을 모두 사로잡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심.

그 이후로 더 이상 낙원은 땅 밑에 있지 않고 셋째 하늘에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죽은 신약 시대 사람들은 신자의 경우에는 곧 바로 셋째 하늘로 가고, 불신자의 경우에는 곧 바로 땅 밑 지옥의 불 부분에 감.

중간 단계인 대피소에서 기다리지 않음(고후5:8; 빌1:21-24).

지옥은 결국 흰 왕좌 심판 이후에 불 호수로 내던져짐(계20:14).

지하 세계: 지옥

지하 세계: 지옥

주 예수 그리스도

회개한 강도(낙원)

회개하지 않은 강도(지옥)

교회 시대

침례

부활

7년

1000년

이삭줍기

타락한 천사들

죄인들의 종착지

불 호수

개천나, 최종 지옥

마귀

거짓대언자, 짐승

노아의 대홍수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

에덴

아벨

무덤

몰은 낙원에

몸과 함께 되돌아감

의로운 자들

흔은 지옥에

크게 갈라진 구렁텅이 (눅16:19-31)

과거의 낙원

그리스도의 부활 전까지 의로운
혼들이 간 곳. 지금은 비어 있음.

타르타로스

타락한 천사들의 거처 (벧후2:4; 유6)

지옥

악한 혼들이 거하는 곳
지금도 차 있음

아부소스(아비소)

바닥 없는 구덩이(무저갱)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 받음

사탄의 세력

마태복음 강해 제6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개역: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대: generation(총 225회, 단수 107회, 복수 118회) 성경의 세대 개념, 어떤 존재에게서 나온 것, 그 당시 사람들

단수 세대: 이 세대(창7:1...), 독사들의 세대(마12:34), 그 세대(히3:10)

복수 세대들: 생성 세대들(창2:4-5), 아담의 세대들(5:1), 주로 구약에 쓰임.

성경의 세대는 '한 세대는 약 30년이다'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세대는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에게는 한 세대 뿐이 없다.

창5:1, 아담의 세대들, 여러 세대, 특징 모두 죽는다(5:5, 8, 11, 14 등).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롬5:15-21, 고전15:45-47)

시22:30, 사53:8, 뱀전2:9

이 세대의 기록에는 죽는 것이 나와 있지 않다(마1장).

아담은 죽음 상징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다.

모두가 한 세대이다.

예수님에게서 났으며 또 동시에 그분의 형제들이다(히2:11-13).

십자가 이후의 신약 시대 사람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과 다르다(히11:39-40).

개역성경에는 책(book)이 빠져 있다.

책은 그리스어 비블로스로서 여기서 바이블이 나왔다.

현대 역본들은 창5:1에서 책을 제거하였다. 구약성경에 단수 책(스트롱 번호 5612)은 146회
개역성경은 아담의 계보라고 말한다.

신구약은 모두 하나님의 영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딤후3:16).

같이야 한다. 그래야 '성경을 성경으로 풀 수 있다.'

참고로 다윗의 아들이시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

가능성이 있지만 앞뒤 문맥이 지지하지 않는다. 2절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다.

아들(son)의 용례, 친아들, 손자, 손자의 손자의 손자, 양자, 사위, 젊은 아이를 가리킬 때,

다윗의 자손(son of David)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

딸(daughter)도 마찬가지이다.

2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몸에 수태하여 낳은 것이 아니다. 이삭은 실제로 사라가 낳았다.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 beget과 born을 구분하여 전자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경우, 후자는 여자가 자녀를 낳은 경우에 사용한다.

beget(마1:2-15)

born(마1:16)

beget은 'get'에서 나왔다.

I got a cold. I got a table. 원래 get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거기서 나온 beget은 특별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다.

beget: applied to the relationship of the Father to the Son in the Trinity; also to the spiritual relationship of God to man in regeneration.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말은 그 둘이 아버지와 아들로 특별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말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번역하였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가?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린다.

독생자(only begotten Son of God), begotten은 beget의 과거 완료 형

그러므로 독생자는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 아기를 낳듯이 - 예수님을 낳았을까?

아니다. 이것은 곧 ‘아버지와 유일하게 특별한 관계를 맺는 분’이라는 뜻이다.

시편 2편 7절 말씀 즉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I have begotten thee).” 역시 아버지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낳았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32-37절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건을 가리킨다. 즉 아버지께서 그분을 부활시킴으로써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3-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신성으로는 아들 하나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였으며 인성으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님에 의해 수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가 열두 지파 중에서 메시아를 내는 지파로 등장한다(창49:8-12).

49:10 실로(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요셉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이다.

요셉과 유다는 항상 수위권 다툼을 벌인다.

르우벤은 만아들, 저주를 받음, 장자는 두 뿔을 받음. 요셉이 두 뿔을 받음

므낫세와 에브라임, 늘 에브라임이 강성함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도 여호수아와 갈렙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유다와 이스라엘)

사11:13, 에브라임의 시기, 천년왕국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다말(창38:6)

유다의 아들들: 엘과 오난, 셀라, 다말과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가 나옴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창너 라합(수2)의 아들이 보아스이다.

그래서 그는 장가를 못간 것으로 보인다(룻3:10).

라합(아모리 족속), 룻(모압 여인), 밧세바(헷 족속?), 르호보암의 어머니(암몬 여인)

마태복음 강해 제7과

마태복음 1장

6절: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개역성경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로 되어 있다.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은 뒤에 밋세바는 다윗의 아내로 불린다(삼하12:24).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

메시아는 왕의 계보에서 나와야 한다.

유다의 왕들,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왕상14:21)

느13:23-31

8절: 아사, 여호사밧, 요람, 웃시야...

역대기의 기록을 따르면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요람), 아하시야, (아달라), 요아스, 아마샤, 웃시야...

마태는 세 명의 왕을 족보에서 삭제하였다.

'낳다'(beget)은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다.

또 열네 세대를 맞추려고 하였다(17절)

아하시야와 요아스 그리고 아마샤는 성령님 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아하시야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요람은 아합의 딸(왕하8:18)을 아내로 맞아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다.

요람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였다(대하21:4).

경건한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큰 실수, 요람은 주의 저주를 받고 창자가 빠져 나와 죽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됨, 요람의 막내아들(다른 아들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김).

아하시야는 요람의 정식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다.

아하시야는 오므리의 딸(손녀) 아달라의 아들이다(대하22:2).

그런데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 요람(여호람)을 도우러 이스라엘에 갔다가 사마리아에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형제들도 죽임을 당해서 결국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라가 불법으로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다(대하22).

그 뒤 꼬마 왕 요아스(일곱 살)가 등장하고 그 뒤 그의 아들 아마샤가 등장한다.

9, 10절: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확률이 통하지 않는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함(대하33:1)

므낫세 다음으로 그의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함

11절: 요시야는 여고니야(고니야)의 그의 형제들을...

요시야는 8세에 왕이 돼서 31년 동안 통치함(대하34:1).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훌륭한 왕, 우상 철거, 율법서 발견, 유월절 준수, 파라오느고가 죽음

그 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23세에 왕이 됨(대하36:1).

그는 3달 동안 치리하다가 이집트에 의해 포로가 됨.

그의 형제 엘리야김이 왕이 되고 이름을 여호야김이리고 함(대하36:4-5).

그는 바빌론에 사로잡혀감(단1:1-2).

그 뒤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됨(대하36:9).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감(왕하24:14).

마1:11의 여고니야는 여호야킨이다.

그는 바빌론에서 36년 동안 옥살이를 하였다(왕하25:27-30).

느부갓네살이 죽은 뒤 에빌드로닥이 그를 왕좌에 앉힘.

그 뒤에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아들 맛다니야(시드기야) - 여호야킨의 삼촌 - 가 왕이 됨.

요시야의 세 아들: 여호아하스, 엘리야김(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야킨(여고니야, 고니야(렘22:24))

그런데 어떻게 마1:11처럼 여고니야가 요시야의 아들이 되는가?

성경의 beget의 의미, son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규정한다. 8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웃시야를 낳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세 아들들을 메시아 족보에서 제외하고자 하심.

12절: 여고니야는 스알디엘,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대상3:17-19, 스알디엘(살라디엘)

마태복음 강해 제6과

마태복음 1장

13-16절: 스룹바벨부터 예수님까지

이 사이에 10명의 이름이 있다.

그런데 이 10명과 대상3:17-24에 나오는 스룹바벨의 후손들과 이름이 다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세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다(기드온, 여룹바알 등).

에스라 등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은 주전 400년경이다. 그래서 스룹바벨 이후로 예수님까지의 정확한 기록은 마태복음에 들어 있다. 성령님께서 보존하셨다.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born: 여자가 낳는 것

마태복음의 계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통(6,7절), 요셉의 계통

누가복음 3장 23-38: 아담부터 요셉까지: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통(31절), 마리아의 계통

마1:16 요셉의 아버지 야곱

눅3:23 요셉은 헬리의 아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들은 여러 용도로 쓰이며 헬리의 사위일 것이다.

이런 계보 명부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명부 기록소에 보존되어 있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우구스투스의 조세 등록 명령에 따라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눅2:1). 마태와 누가는 이런 기록부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계보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성을 나타내며 그리스도는 호칭을 나타낸다. 이명박 대통령

- 그리스도(Christ,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말 메시아에 해당하는 그리스말.
- 메시아(Messiah or Messias)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호칭은 유대인들이 약속된 구출자를 높이며 사용한 말이다. 유대인들은 왕에게 기름을 붓곤 하였으며 제사장들에게도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름을 부었다. 그러므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직책을 위해 부르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페르시아 왕국을 설립한 고레스는 사45:1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불리며 겔28:14에서는 사탄 마귀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온다. 그러므로 기름을 붓는다는 것 역시 진짜와 상징적인 것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메시아는 위에서 밝힌 대로 히브리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들의 대언자들이 자기들에게 약속한 구원자 즉 구출자를 뜻하는 호칭이다.

구약은 메시아 약속, 신약은 메시아 성취, 마21:1-17, 요1:45-46, 눅3:15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과 다가올 메시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기능을 다 수행하는 인물이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그분은 그분을 마음에 모셔 들인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요 구출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의 참 메시아요, 야곱의 실로요(창49:10), 욥의 구속자요(욥19:25), 언약의 사자(말3:1)이다.

메시아의 초림 시기: 창49:10,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笏)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은 왕권을 뜻한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의 유다 정복(주전 586), 왕권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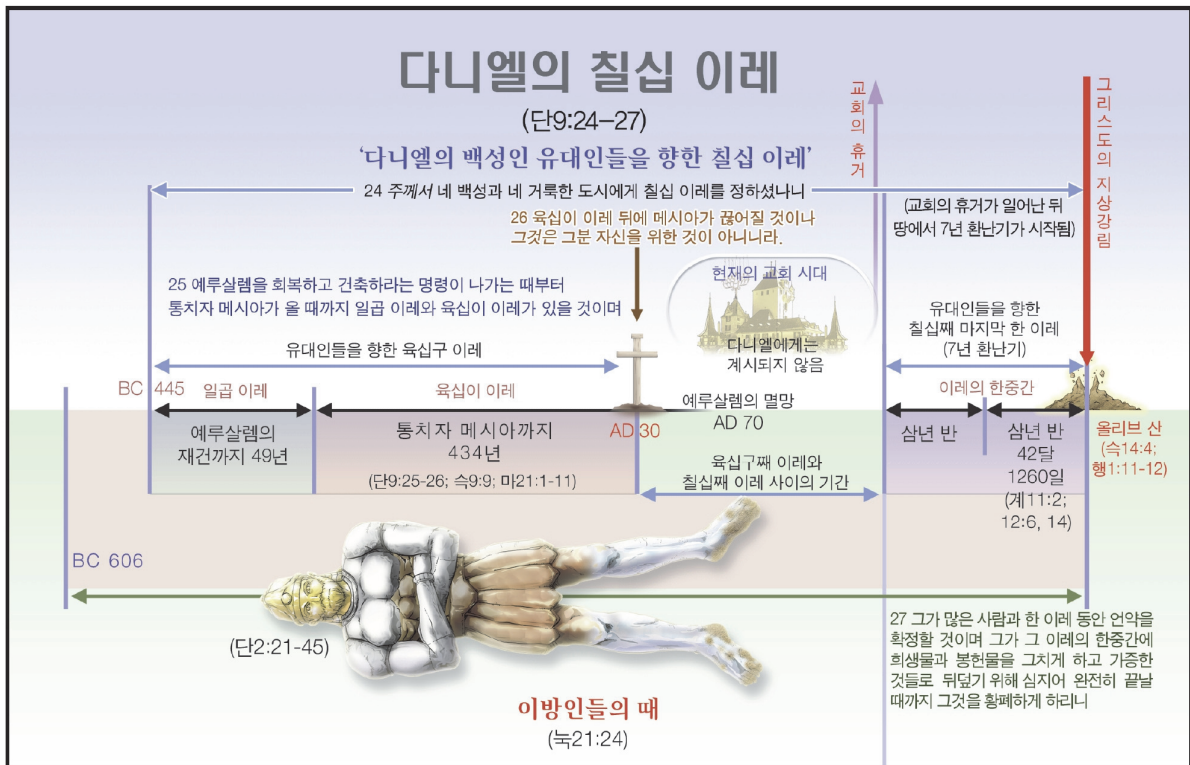
마카비 전쟁 이후로 왕정이 복구되고 헤롯 가문으로 왕권이 넘어가면서 유대 땅의 마지막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립바 1세였다. 그는 주후 44년경에 죽었고 그 이후에는 유대 땅에 왕이 없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주후 44년 이전에 와야 한다.

다니엘의 칠십 이레(단9:25-26): 초림과 재림

이레(week): 7일, 7달, 7년 등을 의미할 수 있다.

70 이레는 70*7을 뜻한다. 그러나 앞뒤 문맥상 이것은 490년을 뜻할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 주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느2:1-8), 여기에 69이레 즉 483년을 더하면 주후 30년경에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



마태복음 강해 제4과

마태복음 1장

메시아의 재림과 천년 왕국(사11; 학2:7; 말3:1)

메시아의 탄생 장소(미5:2; 눅2:4), 베들레헴 에브라다, 수19:15의 베들레헴(스블론 지파)

라헬이 죽어 묻힌 곳(창35:19),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메시아는 다 가짜다. ★★★

메시아의 처녀 탄생(사7:14; 마1:18), 처녀 탄생,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다(잠30:4; 시2:7,12).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

메시아의 특성(사9:6-7), 그분은 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메시아의 죽음(사53:3-6), 대속의 죽음

구약의 메시아 예언 중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두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분께서 갑자기 임하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완성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출생, 성품, 고난, 죽음, 매장, 부활, 승천, 왕국 등에 관한 여러 대언의 말씀들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성취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은 재림 때에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요 1:41;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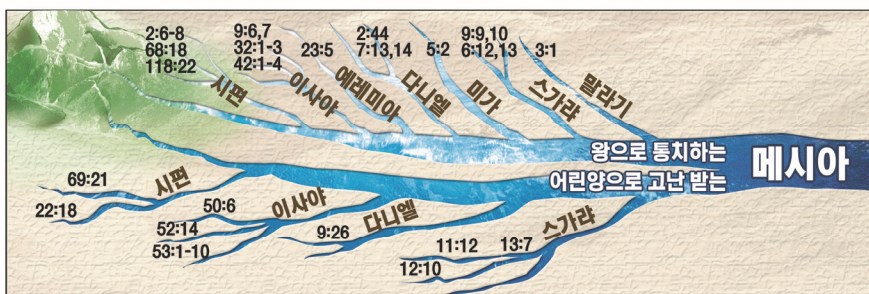
- **메시아 예언의 두 줄기: 구약성경의 메시아 예언의 흐름에는 두 개의 계통이 있다.**

메시아 별



이 그림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약속들이 들어 있다.
이것들은 히브리 역사의 어두운 밤의 여러 시대에 밝은 별로 나타났다.
창3:15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은 구약의 대언이 끝날 때까지 하나씩 하늘에 밝게
빛을 비추면서 모두 베들레헴의 별을 가리켰다.

메시아 예언의 두 줄기



그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것으로 그분을 고난 받는 메시아로 묘사한다.

1. 메시아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고난을 겪음(사53:3; 마26:36-39), 2. 메시아가 은 30개에 팔림(눅 11:12; 마26:15), 3. 메시아가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당함(시41:9; 마26:49-50), 4. 메시아가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함(시35:11; 마26:59,60), 5.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시22:16; 눅23:33), 6. 메시아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어 죽음(사53:12; 막15:27-28), 7. 메시아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됨(사53:9; 마27:57-60)

메시아 예언의 두 번째 계통은 그분의 재림과 관련된 것으로 그분을 영광스러운 왕으로 묘사한다.

1. 메시아는 한 의로운 가지가 됨(렘23:5-8), 2. 메시아는 왕국을 소유함(단2:44; 7:13-14), 3. 메시아는 다윗의 왕좌에서 다스림(삼상7:16; 사9:6-7); 4. 메시아는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림(시2:6-9), 5.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함(시72:1-20; 사2:1-4; 32:1-4, 15-20; 눅14:16-21).

●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지적했듯이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고난과 재림의 영광을 잘 구별하지 못했다(벧전1:10-12).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십자가와 재림의 왕관 사이의 교회 시대를 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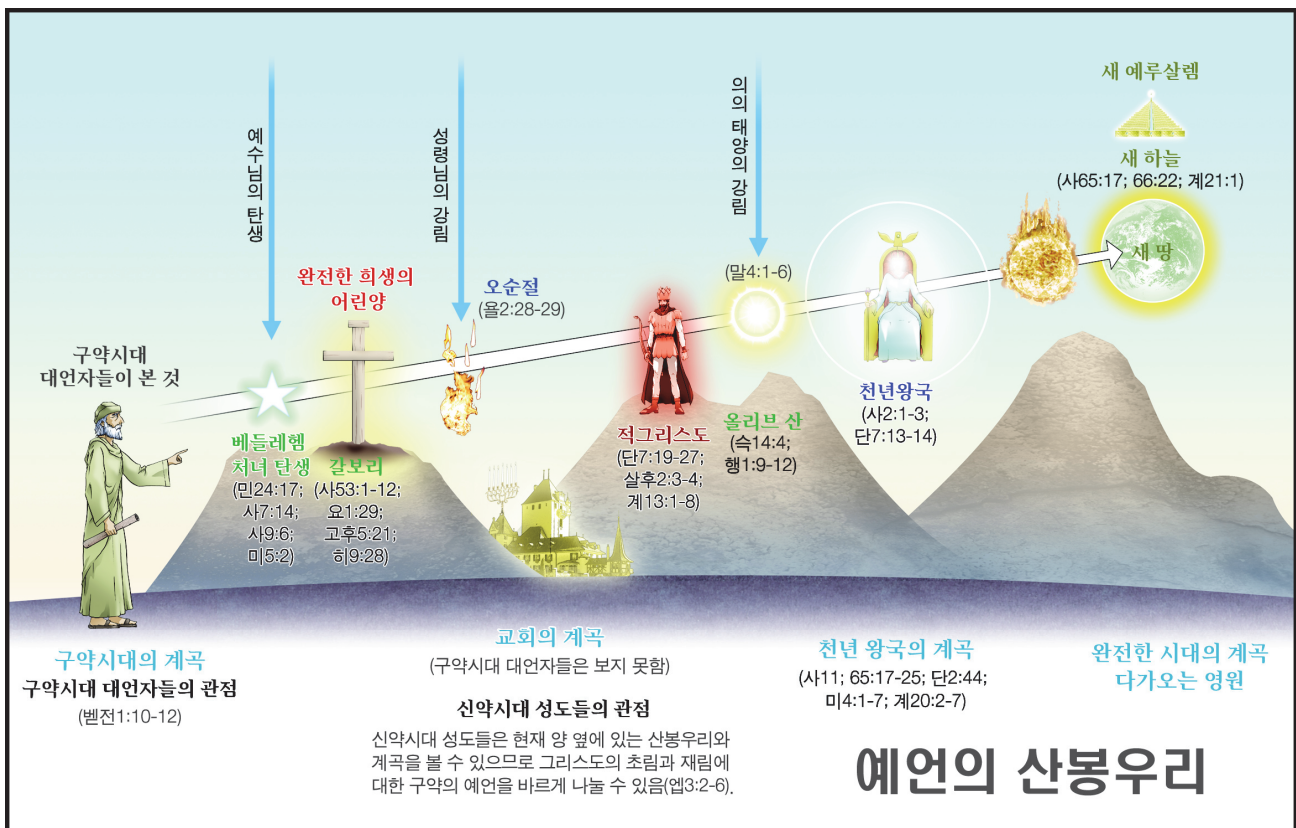
●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취된 많은 예언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예언의 말씀들을 그분의 재림에 적용시킬 수 있다.

● 그리스도의 초림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교리적으로 볼 때 이것만이 성경의 핵심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성경의 모든 교리를 포함하는 원의 중심이 아니라 타원의 두 개의 초점 중 하나이다. 물론 그 타원의 또 다른 초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지금의 교회 시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며 재림은 반드시 초림을 필요로 하고 초림은 재림을 필요로 한다. 이 두 사건은 구원이라는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들이다.

●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재림은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몸의 부활이 없기 때문이다.

● 예언의 산봉우리 설명: 예수님의 출생, 십자가 처형, 성령님의 강림, 적그리스도, 의의 태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천년 왕국 등을 모두 한 봉우리로 보았다.



마태복음 강해 제1과

마태복음 1장

17절: 모두 열네 세대라.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 아무도 모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18-25절: 예수님의 탄생 과정

18절: 정혼하였다. 함께 하였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정혼: 유대인들의 결혼에서 첫 단계, 계약을 확립하는 것

신랑이 계약을 하고 지참금을 내면 결혼 계약이 확립되고 처녀와 총각은 아내와 남편으로 간주된다.

처녀는 15-18살 정도

결혼 계약이 확립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신랑과 신부는 잔에 담긴 포도즙을 함께 마신다.

정혼 뒤 신랑은 신부의 집을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신부 없이 약 1년 정도를 지낸다.

신랑은 신부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기 위해 아버지 집에 붙여서 자기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한다.

신부와 떨어져서 약 1년 정도를 보낸 뒤 신랑은 자기와 함께 살기 위해 신부를 데려와야 한다.

대개 신부를 데려오는 일은 밤에 이루어졌다.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와 또 다른 동행자들은 신랑의 집을 떠나 횃불을 들고 행진하며 신부의 집으로 간다. 이들은 가면서 “보라, 신랑이 임한다.”라고 외친다.

그러면 이 소식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거리에서 거리로 신부에게 곧 전달된다.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며 자기 남편이 온다는 것을 늘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언제 정확히 올지는 모른다. 그래서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신부는 곧바로 자기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자기 친구들에게도 같이 가기 위해 준비하라고 말한다.

신랑과 동행자들이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을 만난 뒤에 다 같이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간다.

거기에는 결혼식에 참석할 하객들이 이미 모여서 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신랑과 신부가 도착하자마자 결혼식 준비 위원들은 신부 방이라 불리는 방으로 이들을 데려간다.

이 방에 들어가기까지 신부는 베일로 얼굴을 가려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한다.

신랑의 친구들과 신부의 친구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신랑과 신부는 단 둘이 그 방에 들어간다.

거기서 그들은 처음으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어 1년 전에 결혼 계약으로 확립한 결혼을 완성한다.

이렇게 결혼이 완성된 후에 신랑은 신부 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결혼식 준비 위원들에게 자기들의 결혼이 완성되었음을 알린다. 그러면 이들은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한 몸이 되었다는 소식을 하객들에게 알리고 이 소식을 접한 하객들은 7일 동안 연회를 베풀며 기뻐한다.

이렇게 7일 동안 연회가 열릴 때에 신부는 신부 방에 머무르며 결코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7일이 다 끝나면 드디어 신랑이 신부 방에서 신부를 데리고 나와 그녀의 얼굴에서 베일을 벗겨 모든 사람이 신부를 볼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다.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구절들

마1:20, 네 아내 데려오는 것

마1:19, 그녀를 버리는 것(이것은 이혼이다, 마19:3)

마9:15, 신부방

마25:6, 신랑이 오는도다, 10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이다.

요14:1-3,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고후11:2, 한 정결한 처녀로 정혼시켰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엡5:22-33).

계19:7-9, 혼인 만찬, 그분의 아내, 만찬에 초대받은 자들

시편 45편, 왕과 왕비(45:9, 14)

유대인 신랑과 교회의 신랑 예수님 비교

예수님도 주도적으로 약 2000년 전에 하늘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 있는 이 땅까지 내려왔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계약 즉 언약을 확립함으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얻고자 했다. 이 언약이 바로 마26:27-28의 새 상속 언약이다.

우리 주님도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해야 했다: 결혼 지참금은 자신의 생명이 담긴 피이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확립하셨음을 보여 주기 위해 주의 만찬의 잔을 취해 포도즙을 마셨다.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확립하신 뒤 자기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되돌아가셨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도 따로 떨어져 지내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신부와 함께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요14:2).

예수님은 교회에게로 다시 와서 자기가 마련한 하늘의 처소로 교회를 데려간다(요14:3).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도 “보라, 신랑이 임한다.”라는 천사장의 음성이 있을 것이다(살전4:16).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 휴거를 받은 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아버지 집으로 간다(살전4:17; 요14:2-3). 그리고 혼인 만찬을 갖는다.

배울 점

1. 예수님의 복음은 결혼하자는 프러포즈이다. 당신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2.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랑을 기다리며 정결하게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약4:4).

19절: 공개적인 본보기

신22:23-24, 돌로 쳐서 죽인다.

20절: 주의 천사의 설명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수태된 아이이다.

21절: 예수

여호수아, 예수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유대인, 요1:12

22절: 이사야 대언자

구약의 핵심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마2:5; 2:15; 13:35; 막15:28 등

벧전1:10-12

대신 속죄, 믿음으로 은혜로, 롬1:16-17

23절: 임마누엘

사7:14, 렘31:22

임마누엘의 의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24절: 자기 아내를 데려옴

아직도 꿈을 의지하면 안 된다.

특별 계시의 일종, 내가 꾸려고 하면 안 된다. 주님의 원대로 된다.

행2:4, 2-3절 설명

25절: 만아들

가장 중요한 단어: ‘맏’(firstborn)

모든 현대 역본들은 ‘맏’을 제거함

마13:55-56, 카톨릭 교회의 동정녀 마리아, Virgin과 성경의 a virgin(마1:23) 차이

마태복음 강해 제11과

마태복음 1장

처녀 탄생의 핵심

어떻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가? 카톨릭주의: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이다. No.

카톨릭 교회의 동정녀 마리아, Virgin과 성경의 a virgin(마1:23) 차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 수태 순간부터 피를 타고 죄성이 전달된다(시51:5).

요셉은 관여 안 함, 어머니 피: 태아에게는 어머니의 피가 전달되지 않는다. 계란의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행20:28; 벧전1:18-19)

처녀 탄생이 무너지면 기독교도 무너진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 헤롯: 로마의 통치 밑에서 유대 전체나 일부를 다스린 네 명의 통치자의 이름. 혈통: 에돔 사람
I. 헤롯 대왕(마2:1-23; 눅1:5).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총애를 받은 에돔 사람 안티파테르의 아들. 그는 유대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장식하며 여러 도시를 짓고 확장했지만 카이사르를 기념하기 위해 5년마다 경기를 열고자 했고 예루살렘에 극장과 경기장을 지으려 했으므로 유대인들로부터 극도의 미움을 받았다. 헤롯은 아주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자기의 두 딸과 아내를 죽이고 또 죽을 때가 이르자 많은 충성된 신하들을 여리고의 감옥에 보내기도 했다. 그의 아들 안티파테르는 자기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되었고 헤롯은 그로부터 닷새 뒤에 68세의 나이로 37년간의 왕 노릇을 마치고 주후 2년경에 죽었다.

바로 이 왕의 시대에 예수님께서서 유대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헤롯은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는 분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 지역에서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마2:1-23). 그가 죽은 뒤에 유대, 이두매아, 사마리아를 포함하는 그의 왕국의 절반은 그의 아들 아켈라오에게 돌아갔고(마2:22) 나머지는 둘로 쪼개져서 그의 다른 두 아들 즉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에게 돌아갔다. 안디바는 갈릴리와 페레아를 다스렸고 빌립은 바타네아와 드라고닛(드라고니티스)과 아우라니티스를 다스렸다.

II. 헤롯 빌립. 헤로디아의 전 남편, 가이사라 빌립보

III. 헤롯 안디바(눅3:1).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아켈라오의 형제였으며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자기 아버지가 죽은 뒤에 사분영주로 갈릴리와 페레아를 다스렸다(눅3:1). 이런 차원에서 그를 왕이라 부른 경우도 있었으며(막6:14) 갈릴리 사람인 우리 주님은 그의 사법 통치 영역 안에 있었다(눅23:6-12). 그는 먼저 아라비아의 왕인 아레다의 딸과 결혼했다가 후에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져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부추겨서 빌립을 떠나게 하고 그녀와 같이 살았다.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이다(마14:1-12; 막6:14-29).

IV. 헤롯 아그립바 1세(행12:1-25; 23:35).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아버지의 손에 의해 어머니와 함께 죽임을 당한 아리스토틀루스의 아들이다. 칼리굴라가 로마의 왕위에 오르자 그는 감옥에서 나와 왕의 호칭을 받고 주후 38년에 자기 삼촌 사분영주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주후 43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그의 조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을 그의 왕국에 더해 주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후 44년에 가이사라에서 갑작스레 죽게 되었다(행12:1-25).

V. 헤롯 아그립바 2세(행25:1-27; 26:1-32). 그는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아들로서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고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보호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증언하였다(행25:13; 26:1-32).

마태복음 강해 제1과

마태복음 2장

● 베들레헬: 다윗과 그리스도가 출생한 도시. 이곳은 유다 지파의 도시로서 예루살렘 남서쪽 10킬로미터에 위치해 있었으며 지역이 비옥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고대 이름은 에브라틴데 이는 열매가 많음을 뜻했다(창48:7; 미5:2). 이곳은 해발 800미터의 직사각형 산등성이에 놓여 있어서 모든 방향으로 좋은 경치를 제공했고 그 주위의 언덕들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몬드나무 등으로 덮여 있으며 그 주위의 골짜기에서는 여러 곡물이 재배되었다. 여기에서 보아스와 롯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개되었고 이곳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출생지가 되었다(삼상17:12, 15; 20:6; 삼하23:14-17).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세상의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다윗이 자기 양떼를 돌보던 곳에서 천사들의 노래와 함께 왕의 왕이 태어났다. 한편 여기서 북쪽으로 800미터 떨어진 곳에 라헬의 무덤이 있었다고 전해진다(창35:16-20).

20세기 성지 순례의 허구, 모두 카톨릭, 동방 정교회의 유산

● 지혜자: 그리스말 마기(Magi), 마술사(Magician)

(I) 마술이나 점술, 천문학, 점성술 등에 능한 사람들을 가리킨다(창41:8; 출7:11; 예1:13; 단2:27; 5:15). 그러나 고대에는 점성술과 참된 지식의 한계가 모호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알았고(행7:22) 다니엘은 갈대아 사람들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단1:4). 그들은 이런 데서 분명히 세상의 지혜를 깨달았다. 다만 그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썼으며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들을 보호하셨다.

(II) 메대와 페르시아에서는 제사장과 철학자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도덕과 과학을 공부하고 특히 천문학과 의학 등에 뛰어났다. 그들만이 종교 의식을 행하였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비밀스런 일과 미래 사건과 신들의 뜻을 알려 주는 존재로 자신들을 부각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큰 명예를 얻어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왕궁에 들어가 자문을 주곤 하였다. 이와 비슷한 사람들은 이집트와 바빌론에도 있었으며 다니엘서는 바빌론에서 그들의 위치를 잘 보여 준다. 다니엘은 거기서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지내었지만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어려움도 겪었는데 이런 기록을 통하여 그들이 실제로 참된 지혜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사47:13-14; 단2:9, 27).

(III) 그런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온 동방의 지혜자들은 조금 경우가 달랐다(마2:1-12). 유대인들이 유프라테스 너머로 끌려가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지혜자들은 지혜를 구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찾아내고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베들레헬에까지 왔다. 특히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다니엘서 9장을 알고 있었다. 다니엘의 70이레

메시아: 셈족(창9:26), 유대인(창49:10), 별과 홀(민24:17)

2절: 유대인들의 왕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왕에게, 마리아가 아니다.

모든 경배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시2:11-12

베드로와 고넬료(행10:25-26)

사도 요한과 천사(계19:10),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예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배와 직결되어 있다.

이집트 탈출(구원), 그 뒤에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바르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

요4장의 사마리아 수가의 여인

영과 진리(spirit and truth), 23-24절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하므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유대인들: 뻣뻣한 교조주의(진리)

사마리아 사람들: 알지 못하는 것에게 예배한다. 영으로 한다고 주장함(오순절 은사주의)

헛된 예배(사1:11-13; 롬10:1-3)

공적 예배의 중요성: 기록함의 아름다움(시29:2), 희생이 있어야 한다(시간, 재능, 헌금 등).

한 교회의 영적 수준은 예배로 판가름 난다.

말씀이 없으면 프로그램이 난무하다. 아는 만큼 누린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 그리스도를 높인다.

죄를 미워하게 한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한다.

진리를 알게 한다.

위로를 받게 한다.

바른 성경, 바른 구원, 바른 예배, 바른 성화

3절: 온 예루살렘이 소동함

예수님만 나타나면 소동이 생긴다. 소동을 일으키는 분(전체 복음서의 기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 병 고침, 기적, 율법, 결혼과 이혼, 상속 분배, 부모 공경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나타나면 소동이 생긴다(사도행전의 역사).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 파당이라고 한다.

4절: 헤롯이 물음

헤롯은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다. 성경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고 성경대로 아이들을 죽인다(2:16).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가?

5-6절: 베들레헴 출생

미5:2

개역성경: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whose goings forth [have been] from of old, from everlasting(KJB).

whose origins are from of old, from ancient times(NIV).

미가서: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너무 작아서 느11:25 등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마태: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요7:41-42, 그리스도의 출생지

7-10절: 어린아이를 찾음

어린아이(young child), 크리스마스카드

누가복음과 내용이 다르다. 바로 태어난 아기(babe)가 아니다(눅2:15-16).

부지런히 별이 나타난 시각을 물음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 유대인들의 성경과 풍습에 대해 공부함. 아그립바 2세(행26:27)

마태복음 강해 제13과

마태복음 2장

11절: 선물

구유가 아니라 집에 들어갔다.

황금: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가난했다.

여인의 정결례(눅2:21-24), 어린양 대신 비둘기 새끼 두 마리(레12:2-8)

원래 금은 왕을 뜻한다(왕상10:18), 성막을 금으로 입혔다.

유향: 제사장 직분(출30:34-38), 향 제단

몰약: 죽은 몸에 넣는 재료(막16:1), 대언자(마21:11)는 죽는다(눅11:49-51).

사가랴: 대제사장 여호야다 혹은 바라가의 아들(대하24:20-22), 요아스 책망

예수님은 왕-제사장-대언자의 세 직무를 동시에 취하시는 분이다.

12절: 다른 길로 돌아감

꿈, 구약 시대의 계시 방법(창20:3; 28:12 등)

전5:3, 꿈의 피해

특별 계시의 일종, 내가 꾸려고 하면 안 된다. 주님의 원대로 된다. 행2:4, 2-3절 설명

13-15절: 이집트 피신

호11:1,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

같은 구절, 과거 사건, 미래 사건

성경 구절: 역사적 사실, 교리, 영적 적용

특히 구약을 볼 때 조심해야 한다. 예 사43:1-3, 겔37:1-3

이집트 탈출(Exodus), 이집트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탈출은 구원, 광야는 인생 순례의 길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가 아니다(모세). 여전히 싸우는 장소이다.

이집트 탈출은 어느 면에서 성도의 휴거와도 비교될 수 있다. 이것은 궁극적인 탈출이다.

16-18절: 무죄한 아이들의 학살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임, 20-30명 정도, 예수님의 나이 추측 가능

렘31:15, 이것은 원래 30-32장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

그런데 재림 전에 극심한 대환난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죽는다.

라마는 높은 곳을 뜻한다. 라헬은 베들레헴에 거하는 모든 여인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온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에 적용한다. 구약의 경우 많은 구절이 double meaning

19-23절: 갈릴리의 나사렛 정착

이스라엘 땅, 원래는 북왕국,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전체 팔레스타인 땅을 가리킨다.

갈릴리 지방: 북쪽 지방, 단, 아셀, 납달리 지파

마4:12-16, 갈릴리, 이방인들의 갈릴리,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사9:1)

그리스 사람들(요12:20-26)

누가복음 1장 31-33절: 메시아는 유다 통치

마태: 이방인들의 갈릴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역도 하실 분임이 나타남(롬15:8-9)

그 위의 두로와 시돈

나사렛: 워낙에 미미한 도시(요1:45-46),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고 기록되지 않았다(성경에 없다). 다만 누가 말하였을 뿐이다.

Nazarene, 나실인이라는 해석(민6장)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마11:18-19, 침례자 요한은 나실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Nazarene, 나사렛 사람이라는 해석

마태복음 강해 제14과

마태복음 3장

1절: 침례자 요한

-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간 사람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고 예수님보다 여섯 달 먼저 태어났다(눅1:26).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이 침례자 요한에게서 성취되었다(사40:3; 마3:3; 말3:1; 4:5; 마11:14). 천사 가브리엘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기는 동안 그의 출생과 이름과 직무에 대하여 예언하였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에 그리고 요한의 출생과 이름을 짓는 일에서 나타났다(눅1:1-80). 그는 초기에 동부 유대에서 지냈고 30세쯤에 주님의 대언자로 나타났다.
-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었고 또 엄격하게 나사르 사람으로 살았으므로 그의 모습은 구약시대의 엘리야와 거의 비슷하였다. 많은 무리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자기들의 죄를 정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드러나기 위해 필요한 회개의 침례를 기쁘게 받았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아와 침례를 받고 모든 의를 성취하셨다. 이때에 그는 이미 정해진 표적 즉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앉는 것을 보고 그분이 주님의 그리스도인 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곧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선포하였다(요1:29; 갈3:24).
- 요한은 그 당시에 큰 명성이 있었으며(눅3:15) 산헤드린 공회는 그에게 물어 보기 위해 사자들을 보냈고(요1:19-28) 헤롯 왕 역시 그에게 듣기를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구원자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요1:27; 3:30). 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으며(마9:14; 눅5:33; 요4:1) 그의 영향력은 후에도 지속되었다(행18:25; 19:3).
- 그는 사람들을 개혁하기 위해 신실하게 수고하였으며 그 뒤에 이 일로 인하여 헤롯 안디바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옥에서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물었다(마11:3).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은 요한이 대언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의 대언자들 중에서 오직 그만 모든 사람이 보기 원하던 그분의 일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왕국의 확립을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한의 지상 사역은, 헤롯이 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이 점점 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보고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끝나게 되었다. 그녀의 딸 살로메는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한 뒤 그의 목을 요구함으로써 요한은 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고 그의 제자들은 그의 몸을 가져다가 묻고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마14:3-12).
- 요한은 신약 시대 인물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다.
-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이다(요3:29).
-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을 수행하였다(요1:31).
-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로 신약 시대의 침례와 다르다(행19:1-7; 엡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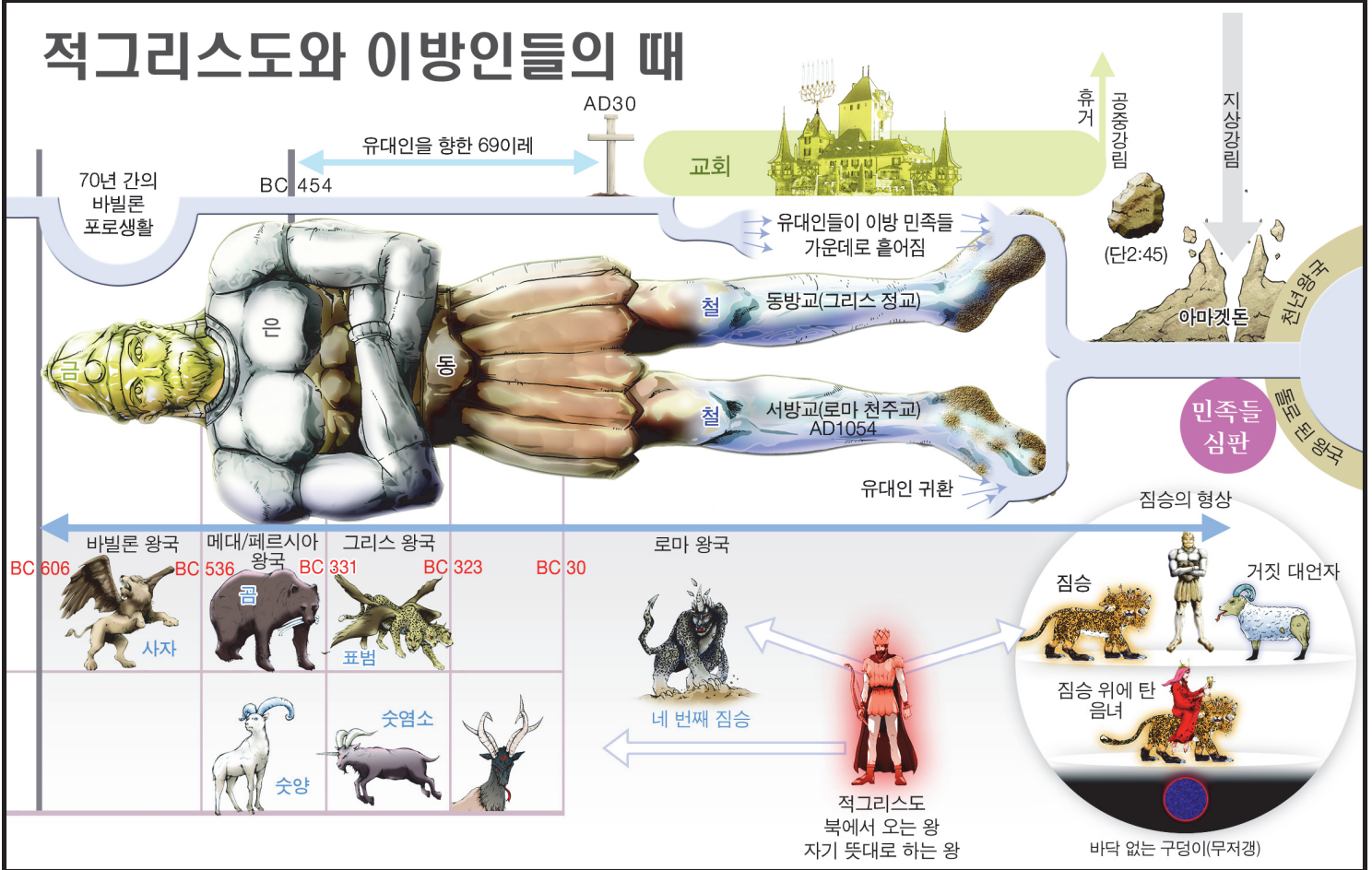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국과 하늘의 왕국(Kingdom of heaven)

- 신구약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며(엡1:6; 12; 14)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으며(마2:2)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다(마4:17). 또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의 명패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는 글이 붙었다(마27:37).
- 예수님은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즉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으나 배척당하시고 결국 그들의 왕으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여셨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국을 잘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었다(막1:1, 14).

개역성경은 막1:14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꾸어서 진실을 가린다.

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

개역 성경: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

이런 구절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며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땅에 임하게 하사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을 제시하셨다(마4:17).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자들: 마10:5-6

수로보니게 여인: 마15:21-24,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 개들

● 하늘의 왕국은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오래 전에 예언된 왕국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다.

단2:31-45 설명, 돌 왕국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단 2:44).

마태복음 강해 제15과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은 바로 이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시고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각종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 주셨으나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했고(마23:37-39)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공훈이 전달되었다(롬11:30-31).

엡3:1-5

● 한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선포될 복음도 천국 복음이 아니고 왕국의 복음이다(마24:14).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3-14).

개역성경: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목숨을 내걸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때까지 견디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7년 환난기를 통과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그들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른 뒤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성취될 때에 구원받는 자들이다(롬11:26). 그래서 7년 환난기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계시록 7장 4-8절의 144,000명

마태복음 강해 제16과

마태복음 3장

●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랐고(눅2:30-34; 38)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왕국의 도래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구속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고 실망에 잠겼으나(눅24:21) 그분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그분이 승천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왕국의 회복에 대해 물었다.

흠정역: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행1:6)

개역성경: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행1:6)

이때에 그분께서는 왕국의 회복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으므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였고(행1:7) 이에 그들은 왕국의 회복을 바라며 복음을 선포하였고 특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강하게 권면했다(행3:19-26).

흠정역: 19 ¶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20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개역성경: 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 복음의 초기에는 이렇게 왕국의 회복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선포되었으며 이방인들의 구원은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서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이루어졌다. 스테반의 순교는 유대인들의 회개가 거의 불가능함을 보여 준 사건이며 유대인 중심의 복음 사역에서 이방인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고 결국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시키고 유대인들을 추방하여 왕국의 회복은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 시대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구약의 대언자들이 말하고 예수님이 초림 때에 세우려 했던 하늘의 왕국은 그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문자 그대로 위엄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

● 기존의 우리말 성경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kingdom은 성경에 342회 나오며 이것은 원래 왕권(kingship)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제 즉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중요한 단어를 ‘나라’나 ‘천국’ 등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하면 성경의 핵심 주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인본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악용하여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주장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개역성경 눅17:20). 문맥을 볼 때 “너희 안에 있다.”의 ‘너희’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신 바리새인들이다. 예수님은 결코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기존의 우리말 성경의 ‘나라’는 원래 왕국이다. 왕국이 성립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왕이 있어야 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왕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거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다.

● 결론적으로 ‘왕국’을 ‘천국’ 혹은 ‘나라’로 바꾸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완전히 가려 성도들의 성경 이해를 가로막는 심각한 폐해를 낳으며 그 결과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스라엘 대체신학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였다. 하나님의 왕국이 좀 더 큰 개념이다. 마13장 씨 뿌리는 자, 겨자씨 비유, 사도행전 1장

마태복음 3장

3절: 대언자 이사야

사40:3, 막1:2(말3:1, 사40:3)

사40장 설명

4절: 요한의 모습

왕하1:8, 엘리야, 마17:11-12, 말4:5-6

5-6절: 여러 지역이 나아감

지역의 의인화, 요르단 속에서(Jordan)

7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독사들의 세대야!

사도 바울 설명(빌3)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repent)는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여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눅3:10-16).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한 일: 행20:21

마태복음 강해 제1과

마태복음 3장

9절: 아브라함

조상, 전통, 학식, 재물 자랑 No!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롬4:1-12 설명)

눅16:19-31

요8:31-58, Before Abraham was, I AM(58절).

돌로도 자손을 세울 수 있다.

눅19:40

10절: 좋은 열매

요15:1-8

갈5:19-24

11, 12절: 성령 침례, 불 침례

● 침례(Baptism) 침례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밧티조’, ‘밧티스마’, ‘밧티스테스’ 등이며 이 단어들은 모두 그리스어 ‘밧토’에서 나왔다. 신약성경에서 115회 사용된 ‘밧토’는 ‘물로 뿌리는 세례’를 의미하지 않고 ‘물 속에 담그는 침례’를 의미한다.

침례를 주려면 많은 물이 필요하나 세례를 주는 데는 많은 물이 필요 없다(요3:23). 또한 침례를 받으려면 물 있는 곳에 가야 하지만 세례를 받으려면 물을 가져 와야 한다(행8:36). 또한 침례를 받으려면 ‘물 속으로’(into the water) 내려가야 하지만 세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침례를 받은 후에는 ‘물 속에서’(out of the water) 나와야 하지만 세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행8:38-39).

● 성경은 한결같이 침례가 ‘물 속에 잠기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며 불 침례와 성령 침례 역시 ‘잠기는 것’으로 규정한다. 마3:11-12를 그릇되게 해석하여 성령 침례가 곧 불 침례이므로 뜨거운 불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침례자 요한은 이 구절에서 결코 그런 것을 뜻하지 않았다.

● 불 침례는 저주의 침례이다: 행2:1-3의 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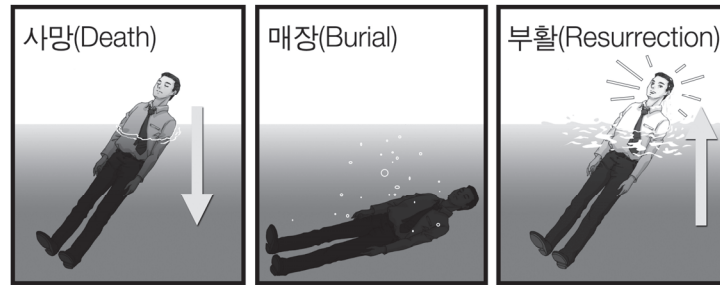
불(fire): 총 549회, 창19:24부터 계20:15, 대개 저주와 심판의 상징, 렘23:29; 막9:49, 히12:29

● 문맥과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면 성령 침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의 공간에 즉 천국에 들어가지만 불 침례를 받는 자는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들어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침례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 몸이 물 속에, 성령님 안에, 불 속에 잠기는 것’임을 보여 준다.

마태복음 강해 제18과

마태복음 3장

●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면서 특별히 성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임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규례이다. 그러나 세례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가 일어나는 것 즉 사망과 매장과 부활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골2:12). 세례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이 상징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롬 6:3-4). 세례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이 옷 입어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갈3:27).



● 어떤 이들은 침례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침례 중생 교리를 믿고 가르치며 특히 유아세례를 주는 천주교회에서는 이 의식을 통해 사람이 거듭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침례 중생을 지지하지 않으며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통해 자기의 거듭남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및 사람들 앞에서 증거로 보인다고 말한다. 즉 믿고 거듭난 뒤에 침례를 받는 것이 침례를 받아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행8:12).

● 천주교에서는 어른들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교리문답서 공부를 위한 학습 기간을 두는 전통을 세웠으며 이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세례를 준다. 또한 천주교인들은 세례가 '은혜를 가져다주는 대성사' 중 하나라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침례가 은혜를 가져다주는 성사가 아닐 뿐더러 구원 또는 은혜도 가져다주지 못함을 분명히 보여 준다(엡2:8-9). 성경은 이 같은 천주교의 관행과는 달리 누구든지 믿으면 곧바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믿음 고백과 함께 즉시 침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16장의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도 믿은 즉시 침례를 받았으며(14-15절) 같은 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역시 믿은 즉시 침례를 받았다(33절).

● 위에서 보았듯이 어떤 사람은 요르단 강에서, 어떤 사람은 광야의 오아시스에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침례를 받았다. 즉 몸을 담글 수 있는 곳이면 강이든 호수든 바다든 침례 탕이든 상관없다. 침례가 교회의 회원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 교회에서 침례를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 침례의 방법

침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침례를 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침례를 준다. “○○○형제님의 믿음 고백과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렇게 선포한 뒤에 침례 받는 사람을 뒤로 눕혀 물 속에 잠근 뒤 그를 물 속에서 들어 올린다. 이렇게 해서 이 형제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매장되었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 성령 침례(Baptism with the Holy Ghost) 성령님이 신자 속에 들어와 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같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 둘은 매우 다르다. 성령 침례에 대한 구절은 신약에서 11번 나온다(마3:11; 막1:8; 눅3:16; 요1:33; 행1:5; 11:16; 롬6:1-7; 고전12:13; 갈3:26-28; 엡4:5; 골2:12). 이 중 다섯 번은 성령 침례를 미래 시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성령 침례가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 시제도 있는데(행 11:16) 이것은 오순절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날 이루신 성령 침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나머지 다섯 번은 서신서에 있으며 모두 성령 침례의 본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신약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I. 침례는 ‘담그다’는 뜻을 가지며 ‘하나의 사물을 다른 데로 옮겨놓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성령 침례는 이런 일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 침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난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성령님 안으로 꼭 잠기게 하신다. 여기서도 침례라는 단어가 쓰이며 이는 곧 그를 성령님의 세계로 옮김을 의미한다. 둘째, 성령님께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꼭 잠기게 하신다. 이것은 곧 그를 그분의 교회라는 세계로 옮긴다는 말이다(요1:33; 고전12:13). II. 성경은 성령 침례가 성도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경험의 일부라고 가르친다. 성령 침례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셔 들이고 거듭날 때 일어난다. 따라서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필수불가결의 관계에 있는데(갈3) 그것은 곧 성도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다.

III.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가르친다. 성령 침례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다. 성경도 성도들이 다 한 성령을 통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한다(고전12:13). 즉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이다. 따라서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신자는 있을 수 없다.

IV. 성경에는 성령 침례를 추구하라는 명령이 없고 심지어 그 같은 것에 대한 암시조차도 발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미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 침례가 구원받는 순간 이루어지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복된 소유이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굳이 이것을 따로 추구할 필요가 없다.

요약: 모든 성도들의 공통 체험이다(고전12:12-13).

일생에 단 한 번 받는다. 성령 충만은 거듭 거듭 필요하고 거듭 거듭 받는다(엡5:18).

● 성령 충만(Filled with the Holy Ghost) 신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실행하기 위해 애를 쓰며 육신을 죽이는 상태. 이것은 신약성경에 15번 등장한다(눅1:15, 41, 67; 4:1; 행2:4; 4:8, 31; 6:3, 5; 7:55; 9:17; 11:24; 13:9, 52; 엡5:18). 이 중에서 14구절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개인이나 모임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만 성령 충만이 명령으로 나와 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엡5:18). 이 말씀은 충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준다.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의 통치하에 있다’ 혹은 ‘무엇에 의해 지배당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진리는 술에 취하는 것(술에 지배당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비교한 데서 알 수 있다.

I. 또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이 언제 일어나는지 말해 주고 있다. 여기서 “충만하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를 다시 쓰자면 “계속 충만하라.”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믿는 이들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제라고 해서 성령 충만이 한 번 이루어지면 영원히 지속되거나 혹은 살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유지되어야 하며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때는 회복할 필요가 있다.

II.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은 모든 믿는 이에게 적용된다. 이 명령은 특정 소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모두에게 적용된다. 성령 충만의 명령은 개인적인 성격을 지닌다.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 불순종하여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롬6:13; 12:1) 성령의 권능 안에서 걸을 때(갈5:16) 얻을 수 있다. III. 끝으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성령 침례는 단 한 번 일어나지만 성령 충만은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다. 성령 침례는 거듭나는 순간에 일어나며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일어난다. 모든 신자는 항상 성령 침례를 받은 상태에 있지만 성령 충만은 믿는 자가 순종하는 때에 이루어진다. 성령 침례는 명령이 아니지만 성령 충만은 명령이다. 성령 침례는 믿는 자의 신분과 관련이 있고 성령 충만은 믿는 자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성령 침례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사람의 행동을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는 것이다.

13-15절: 예수님의 침례

요한은 이미 계시를 받았다(요1:33-34).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요1:6-12).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죄가 있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요한은 그분의 전령이었다.
 그가 한 일이 옳음을 보여 주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다.
 이스라엘에게 메시아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받으셨다(요1:33).
 공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16절: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셨다.

물 침례, 세례가 아니다.

16, 17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 삼위일체(Trinity) 삼위일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특이한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이단이 생겨났다.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딤후2:5).
 흠정역: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개역: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KJB: For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약2:19 흠정역: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개역: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여호와의 증인들 주장대로 하나님은 한 분 즉 아버지 하나님만 있게 된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한 분이 아니며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 분으로 존재하시되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야말로 너무 중요한 것으로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한 말씀을 주셨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요일5:7).

I. 삼위일체 교리로 인해 한국에서도 많은 이단이 생겨났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양태론이란 예를 들어 “나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요,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성도들에게는 목사이다.”라는 주장이다. 또 “물은 얼음도 되고 액체도 되고 수증기도 된다.”는 주장 역시 양태론에 근접한 진술이다. 이렇듯 양태론의 핵심은 하나님 한 분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님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이단 교리라고 한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이고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주장하며 그래서 침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 그들은 개역성경의 요17:11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역본의 모체가 된 본문이 부패되어 발생한 것이며 바른 본문은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II. 다음의 구절은 삼위일체를 잘 보여 준다: 마3:16; 28:19; 롬8:9; 고전12:3-6; 고후13:14; 엡4:4-6; 벧전1:2; 유20-21, 출20:2; 요20:28; 행5:3-4는 하나님의 호칭을 통해 삼위일체를 보여 준다. 물론 이 세 분은 창1:1; 욥26:13; 33:4; 시148:5; 요1:3; 골1:16에 있는 것처럼 창조주이시며 그래서 성도들은 새로 태어난 창조물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마28:19) 그들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후13:14).

III. 끝으로 성경적 삼위일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뚜렷이 구분되는 서로 다른 세 인격체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 인격체 중 하나가 없으면 한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이에 근접한 예로 시간을 들 수 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며 각각이 다 시간이고 이 셋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시간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면서 반드시 길이(x), 너비(y), 높이(z)가 있으며 이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물체가 아니다. 아무리 얇은 것도, 작은 것도 반드시 x, y, z 세 방향의 크기를 가지며 이로써 그 물질이(혹은 공간이) 구성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삼위일체의 증거를 우주에 많이 만들어 두셨다.

마태복음 강해 제19과

마태복음 4장

1-11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음(눅4:1-13)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시험을 받음.

구원자도 시험을 받아야 한다(히2:16-17; 히4:15)

초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의 실패, 마지막 아담의 승리

시험의 장소: 전통은 유대 광야를 가리킨다.

그런데 시내 산(호렙 산)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모세와 엘리야(말4, 마17), 40일 금식 등

40일: 성경에서 40은 시험하는 기간이다.

광야 40년, 골리앗의 40일(삼상17:16),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모두 40년)

AD 30-70년의 40년, 모세, 엘리야의 40일

마귀와 마귀들(the devil and devils): 진한 마귀(디아볼로스)

I.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사탄. 원래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였다. 그는 덮는 그룹이었다. 사14, 겔28은 그의 타락 일대기를 보여 준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이며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선을 방해하고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그는 자신의 마귀들과 함께 사람의 혼을 미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의 이름은 '대적하는 자' 혹은 '거짓으로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다.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요12:31),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엡2:2), '이 세상의 신'(고후4:4), '용, 저 옛 뱀, 마귀'(계20:2), '저 사악한 자'(요일5:18), '울부짖는 사자'(벧전5:8),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8:44), '바알세불'(마12:24), '벨리알'(고후6:15),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계12:10) 등으로 불린다.

성경 전체를 통해 그는 적개심과 잔인함과 속임수로 가득 찬 존재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그는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 혼들을 멸하고 있으며 사람의 형편과 상태에 따라 여러 계략과 전술을 사용하고 자기의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 악한 자와 심지어 선한 자도 유혹한다. 지금 온 세상은 그의 지배 하에 있으나 그는 결국 멸망당할 원수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부수고(롬16:20) 그를 결박하여 그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마련된 불과 유향의 호수로 집어넣을 것이다(마25:41).

II. 마귀들(devils)은 마귀와 같은 성품을 가진 존재들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유일한 사탄 마귀에게 정관사 the를 붙이고 그의 부하들에게는 단수인 경우 부정관사 a를 붙이고 복수인 경우 devils라 표기한다. 신약성경에는 마귀 들린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오며 보통 '마귀 들린 자'란 표현을 사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정신병을 앓았으며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귀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그러면 마귀들이 그분의 말에 순종하여 몸에서 나왔으며 또 나올 때에 그 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가해 이것이 단순히 정신병 같은 증세가 아님을 보여 주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자기의 사명을 보여 주는 증거 중 하나가 마귀들을 내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신의 사도들에게도 그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다(눅9:1). 따라서 마귀들에게 사로잡히는 현상을 정신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또 모든 병을 마귀들이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마귀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있고 육신의 과로와 불량 식품 섭취 등으로 인한 질병이 있다.

마귀들은 어둠의 권능들에 속해 있으며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큰 군대로서 사탄을 위하는 일에 능숙한 자들이다. 그들은 특별히 말세에 자신들의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있는 중앙 정부에서 나와 활동한다(계9:1-11).

마귀들이 사람이나 돼지 같은 짐승 속에 들어가 그 몸을 소유하고 조절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몸을

갖고 있지 않은 영임을 보여 준다.

마귀들이 인격과 개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다(눅8:26-36). 물론 마귀들은 보통 사람 이상의 지능을 소유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자기들이 궁극적으로는 고통의 장소에 갇힐 것을 잘 알고 있다(마8:29; 눅8:31).

III. 귀신: 개역성경의 ‘귀신’은 잘못된 말이다. 기존의 우리말 성경은 초기 번역자들의 샤머니즘으로 인해 마귀들(devils)을 귀신들(demons)로 번역하였다. 우리말 사전은 귀신을 ‘죽은 사람의 넋 혹은 혼령’이라 정의 내리므로 성경의 마귀들은 결코 귀신들이 될 수 없다. 그리스, 이집트, 중국, 인도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혼이 구천이나 유명에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여기서 귀신(demon)이라는 말이 나왔다.

많은 신(gods)이 있고 유일한 하나님(God)이 있으며, 많은 아들(sons)이 있고 유일한 아들(the Son)이 있으며, 많은 마귀(devils)가 있고 유일한 마귀(the devil)가 있다는 것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이브의 선악과 시험(창3:6):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사도 요한(요일2:15-17):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빵: 육신의 정욕, 세상 모든 왕국을 보여 줌: 안목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3-4절: 빵의 시험

마귀가 하는 일: 성경을 의심하게 한다(창3:1). “그래 사실이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이다(마27:40).

굶주림의 문제: 모세는 두세 차례를 경험하였다(신9:9, 17-18, 25).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기록된바(It is written: 옛날에 기록된 것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예수님의 ‘It is written’ 언급은 적어도 18번(마4장, 마21:13; 26:31 등)

예수님의 구약성경 인용: 마9:13; 12:5; 12:41-42; 15:7-8; 19:18; 21:16; 22:31 등

성경 보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구약 성경이 1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대로 보존되었다.

과거에 기록된 것이 지금 그대로, 앞으로도 그대로 보존될 것이다.

마태복음 강해 제2과

마태복음 4장

3-4절: 빵의 시험

기록된바(As it is written): 옛날에 기록된 것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마9:13; 12:5; 12:41-42; 15:7-8; 19:18; 21:16; 22:31 등(예수님의 언급, 적어도 18번)

성경 보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구약 성경이 1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대로 보존되었다.

과거에 기록된 것이 지금 그대로, 앞으로도 그대로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쇠망치, 칼(렘23:29; 히4:12), 성령의 검(엡6:10-18)

신8:2-3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every word), every word가 있는 성경이 있어야 한다.

욥23:12

5-7절: 성전 꼭대기 시험

마귀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시91:11-12).

그런데 마귀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

마4:6,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시91:11-12,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의 성경 인용 작전

1. 첨가: 언제라도, 천주교의 방법
2. 삭제: 네 모든 길에서, 성경 비평학자들의 방법
3. 문맥 밖에서 왜곡된 해석, 이단들의 방법

예수님의 답변: 신6:16, 구체적인 예: 출17:1-7

8-10절: 왕국들의 시험

높은 산, 누가는 '순식간에'라는 말을 더함(눅4:5).

마귀의 제안은 진실한 제안이었다(눅4:6). 단4:32 참조

이 세상 왕국은 그에게 넘겨졌다. 원래 아담의 것이었다.

성경은 처음부터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왕국의 회복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왕국의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다. 그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한다(히2:14).

그는 세상의 신(god)이다(고후4:4). 그래서 경배받기를 원한다.

루시퍼의 몰락도 경배와 상관이 있다.

이 세상 모든 잡 종교는 알게 모르게 마귀를 숭배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마귀, 혹은 자신에게 경배한다.

그러므로 마귀는 영적인 일에 가장 큰 관심을 둔다.

그의 호칭: 왕(욥41:34), 통치자(엡2:2), 그는 기름부음 받은 자(그리스도, 겔28:14)

그리고 그는 실제로 사람들에게서 경배를 받을 것이다. 계시록의 환난기(계13:2-4)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해야 한다.

극장가는 것, 술 마시는 것: 일차적으로 육체적인 일

교회 연합, 종교 일치, 주교 회의, 공회, 성경 변개: 영적인 일, 마귀의 주된 관심 영역

예수님의 대응: 신6:13

1단계: 빵, 육신의 정욕,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네 맘대로 해라.

2단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 인생의 자랑, 하나님을 이용하고 시험하게 만들라.

3단계: 세상 모든 왕국을 보여 줌, 안목의 정욕, 하나님을 버려라.

11절: 천사가 함께함

들짐승들도 함께함(막1:13).

천사: 섬기는 영들(히1:13-14).

임무를 수행하는 자. 이것은 히브리말이나 그리스말 모두 일차적으로 사자(使者)를 의미하며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곳도 있다(마11:10; 눅7:24). 이 말은 종종 보통의 사자에게 적용되었고(욥1:14; 삼상 11:3; 눅9:52), 대언자에게(사42:19; 학1:13), 제사장에게(전5:6; 말2:7) 그리고 심지어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게도 적용되었다(시78:49; 104:4; 고후12:7). 한편 일반적인 의미로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었고(말3:1) 그분의 복음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감독들에게도 적용되었다(계2:1, 8, 12).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천사라는 말은 능력이나 지혜에서 사람보다 고등한 인격체 즉 하나님 주변에 둘러 서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여 세상사를 집행하시기도 하고 개인이나 국가의 혹은 전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단10:13; 마1:20; 22:30; 행7:30 등). 그들은 순수한 영으로 혹은 영적인 몸을 가진 존재로 존재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한 남자의 모습으로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 나타난다(히13:2). 성경은 천사를 언급하면서 언제나 남성 단수 대명사 he를 사용하며 이로써 천사들이 남성임을 보여 준다(행10:3, 30; 히13:2). 성경에는 여자 천사나 아카 천사 혹은 날개 달린 천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한편 천사들은 우리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된 것으로 보인다(욥38:7).

성경은 천사의 수가 매우 많음과(단7:10; 마26:53; 눅2:13; 히12:22-23) 그들의 힘이 매우 강력함을 보여 주고(시103:20; 뱀후2:11; 계5:2; 18:21; 19:17) 또 그들의 일을 보여 준다(삿13:20; 단9:21-23; 마13:49; 26:53; 행27:23; 계8:13). 천상에는 천사들과는 다른 종류인 그룹, 스랍 등이 있다(사6:2-6; 겔10:1). 천사들 가운데는 천사장이 있고 왕좌, 통치, 권능, 정사 등은 천상에 존재하는 여러 등급의 존재들을 가리킨다(골1:16; 계12:7).

천사들은 성경의 여러 사건에서 언급되는데 그들은 한 마디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한 섬기는 영들이다(시91:11; 103:20; 히1:14).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신뢰하거나 그들에게 경배하거나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계19:10; 22:8-9). 성경은 개인에게 보호 천사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지는 않지만 천사들이 크리스천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 준다(마18:10; 눅16:22; 히1:14). 특별히 천사들은 사람의 구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눅2:10-12; 15:7, 10; 뱀전1:12)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이다(히12:22).

사람의 창조 전에 천사들의 일부가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여 사탄의 천사들 즉 마귀들이 되었다(마25:41; 계12:9). 한편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여자와 성적으로 결합하여 거인들을 출생시켜 하나님의 진노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이 땅에 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유6와 뱀후2:4는 그들을 가리켜 '자기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거처를 떠나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 어둠 밑에 예비된 자들'이라 부른다.

● 천사장(Archangel) 천사들의 주요 통치자. 이 이름은 성경에 단 두 번 나온다(살전4:16; 유9). 유다서에서 이것은 미가엘 즉 유대인들 - 특별히 7년 환난기를 통과하는 유대인들 - 을 향한 특별 책무를 가진 강력한 천사에게 적용되었다(단10:13, 21; 12:1; 계12:7-9).

마태복음 강해 제1과

마태복음 4장

12-16절: 왕의 갈릴리 사역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힘.

가버나움: 예수님의 도시(마9:1; 11:23), 나사렛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사9:1-7 설명, 아마겔돈 전쟁, 재림의 문맥, 천년왕국, 땅에 있을 다윗의 왕좌(7절)

기드온의 미디안과의 전쟁과 비슷함(삿7).

유대인들과 관련된 문맥은 항상 재림의 문맥이다.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이다.

큰 빛(요1:4-9), 민24:15-17

누가복음 4장 16-30절에 나사렛 사역이 기록됨.

대언자 이사야의 책, 사61:1-2

1.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놓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2 또 {주}의 받아 주시는 해(초림)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재림)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앞부분 '주의 받아주시는 해'까지만 읽고 책을 덮음.

17절: 하늘의 왕국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왕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다.

18-22절: 왕이 네 어부를 부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이미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들었다(요1:40).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 ★★★

천둥의 아들들(막3:17)

23절: 왕국의 복음

● 복음(Gospel) 복된 소식. 성경은 '왕국의 복음'(마24:14),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행20:24),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롬1:16; 10:15) 등을 제시한다. 한편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광스런 복음이기도 한데(딤후1:11) 우리 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다. 우리 주님의 삶과 기적과 죽음과 부활과 교리 등을 자세히 보여 주는 책들을 보통 복음서라고 하며 여기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있다.

I. 왕국의 복음. 마24:14에 나오는 이 복음은 눅1:32-33에 예언된 것으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실 지상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다. 성경에서 이 복음은 처음에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함께 선포되기 시작했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했지만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교회의 공중 휴거 이후에 이 왕국의 복음은 다시 선포될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마24:14에 있는 예언 즉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세상의 끝)이 오리라."는 말씀의 성취이다. 이 말씀은 현재 각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파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지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아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위한 것으로 왕국을 건설할 때가 임박했음을 통보하는 것이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은 7년 환난기에 선두주자 엘리야와(말4:5-6)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것을 위임받은 다른 사람들 - 계시록 7장과 14장의 십사만 사천 명 - 이 선포할 것이며 그것의 목적 중 하나는 온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으는 것이다.

II.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행20:24에 나오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좋은 소식이다. 이 복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되어 있다. 롬1:1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요3:16). 이 복음의 성격은 은혜이고(행20:24)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롬1:16; 고후10:14)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 혼에 화평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엡6:15). 한편 이것은 영광스런 복음이라고도 하는데(고후4:4; 딤후1:11) 이 복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서 특별히 영광 중에 계시고 영화롭게 되셨으며 많은 아들들에게 영광을 가져다주실 주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는 복음이다(히2:10). 이 복음은 그분의 재림과 관계가 있으며 특별히 그분의 영광스런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

III. 영존하는 복음. 계14:6에 나오는 이 복음은 계시록에서 일곱 금병 심판이 있기 바로 전에 한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이다. 이것은 천사에게 맡겨진 유일한 복음으로 하늘의 왕국의 복음도, 은혜의 복음도 아니다. 이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다(계14:7). 이 복음은 7년 환난기의 심판의 시간을 통과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신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터인데 그 까닭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심판과 멸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통이 곧 끝날 것을 이 복음이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요구한다. 족장들과 대언자들이 에덴동산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선포해 왔다. 이 복음은 영생을 주기 위해 사람들을 모두 구원한다는 의미에서의 영원한 복음이 아니다. 또한 이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혹은 “이것을 하라.” 또는 “저것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단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각이 이르렀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라는 것이다.

IV. 다른 복음. 갈1:6-12; 고후11:4는 위의 복음들 이외의 다른 형태의 복음이 있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참된 복음을 왜곡시킨 것으로 여러 가지 미혹하는 형태를 취하며 주로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하고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짓 복음이다(골2:18-23; 히6:2). 그러나 이 가르침은 비성경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은 갈1:8-9에서 이것을 가르치는 설교자들과 교사들을 강하게 저주하였다.

마태복음 강해 제2과

마태복음 4장

왕국의 복음에는 이적과 표적이 반드시 들어 있다(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시작부터 표적을 요구한다.
모세의 이집트 복귀: 출3:11부터, 하나님의 이름, 이적과 표적, 아론을 만남(출4:27-31).
고전1:22,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마11:5).
그래서 유대인들은 민족 국가로 시작하면서부터 표적을 구하고(출4:30) 표적과 함께 끝난다(막16:17).
그러므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표적과 이적은 이스라엘이 유대 땅에 존재한 때까지 즉 AD 70년 정도까지만 존재하였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유대인들에게 다시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고 율2, 행2의 표적과 이적이 재현될 것이다.
사도행전 초기에는 표적이 있었으나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고후12:12; 고후5:7).
요나의 표적(마12:38-42)만 이방인들과 관계가 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요나의 이방인 전도
그래서 왕국에는 자손이 있다(children of the kingdom, 마8:12; 13:38). 교회에는 자손이 없다.

24-25: 시리아, 갈릴리, 데가볼리 등

이 당시의 시리아는 갈릴리의 북쪽, 페니키아의 동쪽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마귀 들린 자(possessed with devils): 마귀들이 들어가고 나온다. 마귀 들린 자가 말하고 예수님을 알아본다(눅4:34). 이름도 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경험(행16:16-18), 마귀 들린 자들이 나쁜 말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마비병(꼭 중풍이 아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
데가볼리(테카폴리스): 주로 그리스 말 하는 이방 사람들이 살았다. 거라사 지방
갈릴리 호수 온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

마태복음 5장

1-12절: 산상수훈

가버나움 근처의 산, 지금은 팔복 산이라고 함
그분의 제자들(disciples):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요6:66)
여기 나오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17-20절 말씀
왕국의 백성들에게 주는 헌장이다(천년왕국의 헌장). 여기에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의 복음과 대비가 된다. 어느 것을 취해야 할까? 갈2:16, 갈1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금해야 하는 유대인이다.
산상수훈의 교훈은 구원 받은 사람이 영적 교훈으로 지킬 내용이다(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다).
그 당시 갈릴리 호수 곁에 앉아서 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당장이라도 이런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왕국의 연기(마23) 이후에 우리는 영적 적용을 위해 왕국, 재림의 문맥에서 뜻을 알아야 한다.
8복: 3-10절, 3-9절은 성품, 10절은 그런 성품 소유자가 당하는 고통

3절: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하늘의 왕국: 포인트는 가난과 하늘(천국)이 아니다. ★★★
영이 가난한 자(시51:10, 17):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의로움이 없음을 인정, 하나님의 은혜만 바란다.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있으려 한다. 교만, 허영심, 야망과 반대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
영이 부한 케이스(계3:17-18)
복이 있다(blessed)는 내적인 의미, happy

마태복음 강해 제23과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

이 구절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구약의 한나(삼상1:1-14)

회개로 인한 애통(고후7:8-11), 마11:28-30

5절: 온유한 자

온유: 해를 당할 때 참는 것,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민12:1-3; 요18:23).

하나님이 원수 갚을 줄로 알고 믿는 것(롬12:19)

시37:11, 습2:3

땅을 상속받는다. 땅은 land가 아니라 earth이다. 창15:18-21

채림의 문맥, 무엇을 하면, 어떤 성품을 가지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모두 행위와 상관이 있다. 구원과 상관이 없다.

6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잠21:21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성경의 진리, 구원의 진리에 반응이 없다(렘5:1).

엘리아

7절: 긍휼을 베푸는 자

롬12:8, 롬12:19-21, 하나님의 성품, 삼하22:26-27

8절: 마음이 순수한 자

시24:4, 왕이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명예를 얻는 것을 뜻함

이 시대에 순수한 마음은 새로운 탄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요3:3; 벰전1:23).

행15:9-11 비교

9절: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였다(눅12:51-53; 요7:43)

요14:27

특히 이런 구절을 들어 종교일치를 주장하는 자들은 문제이다.

10,11절: 의로 인해 핍박 받는 자

예레미야(렘38:6), 진흙탕 지하감옥

여기의 의는 11절의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같은 말이다.

행4장 17-18절, 5장 41절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한다. 강제임스 성경에 대한 공격을 보라.

영이 가난한 자와 같은 복을 얻는다: 하늘의 왕국

12절: 대언자

대언자와 거짓 대언자(눅6:26)

신18:21-22, 사8:20,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이다. OED

대언과 대언자(prophecy, prophet) 성경에 668회

현대영어사전: '예언하다', 예언자, 예언, 선지자 OED는 대언, 대언자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대언'(代言), 출7:1; 겔37:4; 계19:10.

아벨은 최초의 대언자(눅11:50-51)

아브라함도 대언자로 불린다(창20:7).

구약시대의 대언자들, "주(LORD)가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선언함(신18:22).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패망은 거짓 대언자들과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비슷함
성경 기록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이 받은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벰후1:20-21).

기존의 우리말 성경, 고린도전서 12-14장 등에서 선지자나 예언 등으로 번역

심각한 영적 선물(은사) 문제가 일어나고 기복신앙이 널리 퍼졌다. 예언 기도, 예언 권사 등 구약 대언자들의 말씀 중 여러 부분이 미래를 다루므로 대언에 예언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선견자(seer)라는 호칭이 후에는 대언자로 바뀌었다(삼상9:9). 구약시대의 거룩한 음악가들도 대언하였다(대상25:1).

참 대언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거짓 대언자는 악한 영으로 충만함(삼상18:10).

신약시대의 대언자들 역시 사도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신 전하였다.

신약 성경 말씀이 기록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고전11:4; 14:1, 30 등 참조).

유다와 실라는 대언자, 안디옥 교회에는 대언자와 교사가 있었고 하나님은 교회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을 주셨다(고전12:28; 참조 행21:9; 엡2:20; 계18:20).

완전한 성경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교회에 대언자가 필요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마태복음 강해 제24과

마태복음 5장

구약의 대언자들은 주님의 특별 대사로 필요에 따라 세워져서 백성의 의무를 알려 주고 죄를 깨우쳐 주며 회개하고 개혁할 것을 외치고 왕에게 경고하며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다(왕하 17:13; 렘25:4).

그들은 또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다.

특히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중요했다. 하나님의 참 제사장들이 없었기 때문이다(왕하4:23).

또한 그들은 왕들을 도와서 백성에게 경건과 덕을 추구하게 하였다.

그들은 겸손하고 신실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며(왕하1:8; 스4:13; 마3:4) 세상의 기쁨과 사치를 멀리하고(왕하5:15) 종종 학대를 받아 죽임을 당하였지만(마23:34-37; 히 11:32-38; 약5: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들 중의 어떤 이들은 쟁기질하는 농부였고 소를 모는 목자였다(왕상19:20; 암7:14; 스4:13).

사무엘 당시에는 기브아, 나옏, 벧엘, 길갈, 여리고 등지에 대언자들의 학교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고 경배하는 일을 안내하는 것을 준비하였다(삼상10:5; 19:20; 왕하2:3, 5; 4:38). 여기서 교육을 받은 대언자들의 아들들은 종교 지도자가 되고 영감을 받은 대언자가 되었다.

단 아모스의 경우는 예외이다(암7:14-15).

성경에는 미리암, 드보라, 홀다, 빌립의 네 딸 등과 같은 몇 명의 여대언자도 나온다. 여대언자는 결코 여자 목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딤후3:1, 2, 8, 11-12)

대언자들은 환상과 꿈 등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민24:2-16; 욥2:28; 행10:11-12; 계1:10-20 비교).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 주는 권능 있는 일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어떤 때에는 그런 계시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에 불어넣어졌다. 그들은 이런 메시지를 글이나 말로 왕과 통치자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거침없이 선포하였고 이때에 기적이거나 다른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사20:1-6; 렘7:2; 19:1-15; 겔3:10).

구약성경에는 히브리 대언자들이 기록한 16개의 대언서가 있다. 이 중 4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큰 대언자들의 글이고 나머지 12개는 작은 대언자들의 글이다. 큰 대언자, 작은 대언자라 함은 그들의 능력이 많고 작음을 뜻하지 않고 대언의 분량이 많고 적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는 큰 대언자이지만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 요나는 작은 대언자이지만 그의 말에 온 니느웨가 회개하였다.

13절: 땅의 소금

소금은 중요한 물질(총 41회): 방부제, 조미료, 모든 헌물에 들어감(레2:13), 소금 언약(민18:19) 이스라엘의 소금은 땅의 소금이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저주(창12:3)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도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갈증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한다(막9:50).

소금이 맛을 잃는다: 산에서 나는 소금, 흠과 같이 있다. 맛을 잃으면 흠은 아무 쓸 데 없다.

14절: 세상의 빛

물론 원래 이 빛은 이스라엘

언덕 위에 세운 도시: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은 언덕 위에 세워졌다. 하는 일을 숨길 수 없다.

도피 도시(수21:13-39), 두드러지게 보여야 한다.

예루살렘, 왕의 도시(마5:35; 삼하24:18; 시122:6)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빛이시고(요9:5)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도구로서의 빛

15,16절: 세상의 빛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 선택되었다(사43:10,12). 여호와와 증인들의 이 구절 오용
영적 적용: 우리가 증언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보기 시작한다.

약2:17-26

그리스도인의 구원 목적: 엡2:8-9, 빌2:12-13

너희 아버지(신약에서 처음 나옴), 모세 5경의 사상(출4:22-23, 신32:6, 18-19; 사46:3)

대문자 Father : 신약에서만 260번. 구약에 1번. 완전히 새로운 계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오셨다(요1:18; 14:6; 마6:9)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다(요일3:23).

기도의 대상(갈4:6; 막14:36)

유대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했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다(눅16:24).

예수님의 '내 아버지'(요5:17-18) 발언에 그분을 죽이려 함. 십자가형에 처해진 이유(요19:7)

우리는 아버지께 경배한다(요4:23).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롬8:14-15).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자들은 마귀의 자식이다(요8:44).

아버지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요17:3).

17,18절: 율법과 대언자

1. 율법과 대언자를 인정하심
2. 21-33절은 실제로 율법을 넘어서는 가르침이다.
3.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롬10:1-4).

일점일획(one jot or one tittle)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으로만 구성되었고 오른쪽에서부터 쓰고 읽는다. 1. 알레프, 2. 베헤트, 3. 가멜, 4. 달레트, 5. 헤, 6. 바브, 7. 자인, 8. 헤트, 9. 테트, 10. 요드, 11. 카프, 12. 라메드, 13. 멤, 14. 눈, 15. 짜메크, 16. 아인, 17. 페, 18. 차테, 19. 퀴프, 20. 웨쉬, 21. 쉰, 22. 타브(시편 119편)



HEBREW CONSONANT	NAME	TRANSLITERATION
1.  2. 	Resh (rāsh) Daleth (dā'lēth)	r d
1.  2. 	He (hā) Heth (kāth)	h k

10번째 글자 요드의 점

마태복음 강해 제25과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Law): 원래 이 말은 법을 뜻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시19:7-11; 119:1-176; 사8:20), 구약성경(요10:34; 15:25), 히브리 성경의 세 부분 중 하나인 모세오경을 가리킨다(눅24:44; 행13:15).

모세오경은 율법이었다: 사회 법규, 의식 법규, 도덕 법규

의식 법규: 경배의 양식, 희생 예물, 제사장, 정결례 등을 규정하는 의식 법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복음 시대(경륜)의 그림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 이제는 폐지되었다(갈3:24; 엡2:15; 히9:1-28; 10:1-22).

사회 법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형성한 정부 체제를 위한 것이다(행23:3; 24:6). 이 모든 규약은 유대인들의 지혜와 함께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되었고 후에는 모든 지혜로운 법규에 영향을 미쳤다. 이 안에 담긴 인정 넘치고 공정한 규율은 사람의 모든 법의 근본이 된다.

도덕 법규: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며 특히 사람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신5:22).

이것은 창조주께서 사람의 양심에 기록하신 것이며 죄가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롬1:19; 2:12-15). 이것은 시내 산에서 십계명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졌으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것을 요약하여 주셨다(마22:37-40). 이것은 사람을 향한 사랑의 결과이며(롬7:10, 12)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갈3:10; 약2:10)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확증하고 강화시키셨으며(마5:17-20).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훈육 선생이다(갈3:24).

율법 폐기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롬6:14-15; 7:4, 6; 갈3:13, 25; 5:18)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시119:97; 마5:48; 11:30).

- 율법 하에서는 양이 목자를 위해 죽었지만 은혜 하에서는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다(요10:14-15). 율법은 거룩함을 요구하나 은혜는 거룩함을 준다. 율법은 저주를 말하나(갈3:10) 은혜는 죄들의 용서를 말한다(롬4:7-8).

- 율법은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마22:37)고 말하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다.”(요일4:10)고 말한다.

- 율법은 “제사장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나(히10:1) 은혜는 “예수님께서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한다(히10:12-14).

- 또한 율법은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마다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롬2:12)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그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롬8:1; 요5:24)고 선언한다.

18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계21:1, 성경의 말씀들이 최소한 그때까지 보존된다.

모든 말씀이 성취된다. 성경의 보존(롬3:1-2), 하나님의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짐

19절: 가장 작은 명령

여기서 이 명령은 십계명이다. 앞뒤 문맥 상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21, 27절 등).

율법의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 규정은 신약에서(서신서에서) 제거되었다(롬13:8-10; 골2:14-17).

안식일은 유대인을 향한 표적(출20:8; 겔20:20; 느9:14)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주일을 지킨다(행20:7; 고전16:1-2 등). 이것도 자유이다.

예수님과 바울의 말씀(눅18:20; 롬13:8-10)에도 안식일은 빠져 있다.

안식일은 재림 전에 유대인들이 지킨다(사66:22-24; 마24:20).

10개의 명령을 2개의 새 명령으로 바꾸셨다(마22:37-40; 요일3:23; 요14:21; 15:10-12) 등

마태복음 강해 제26과

20절: 너희 의

유대인들의 의에 대해 말한다(마3:15).

바리새인들의 의(눅18:9-14), 사도 바울(빌3:6), 율법의 의

구약의 의: 미6:3-8, 발람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의 의(빌3:3-9)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와 비교하면 똥과 같다(빌3:8).

갈2:16

구약시대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21절: 살인하는 자

출20:13의 여섯 번째 명령

22절: 화내고 욕하는 자

라가, 공회 등은 모두 유대인들에게 해당됨

지옥 불(문자 그대로의 불)

현대역본들은 '까닭 없이'를 삭제함, 예수님도 화를 냈다(막3:5; 요2:13-18). 하나님도 화내신다(시7:11).

화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엡4:26). 불의에 대해서는 내야 한다.

라가: 경멸의 말

바울도 '너 어리석은 자여'(고전15:36),

이런 구절들은 먼저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된다.

23,24절: 예물, 화해하라

제단은 구약 시대와(레26:1-3) 천년왕국과(겔44-48) 환난기에만 있다(계11:1-3).

25,26절: 대적과 화해하라

여전히 율법의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신다(막11:25-26 비교).

27,28절: 간음하지 말라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셨다.

눅31:1-3

여자의 책임(옷과 언행), 남자의 상황, 신24:1-4, 둘 다 죽는다(신22:13-30, 22절, 다윗, 요8).

간음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잠4:23; 렘17:9; 마12:34).

29,30절: 지옥

지옥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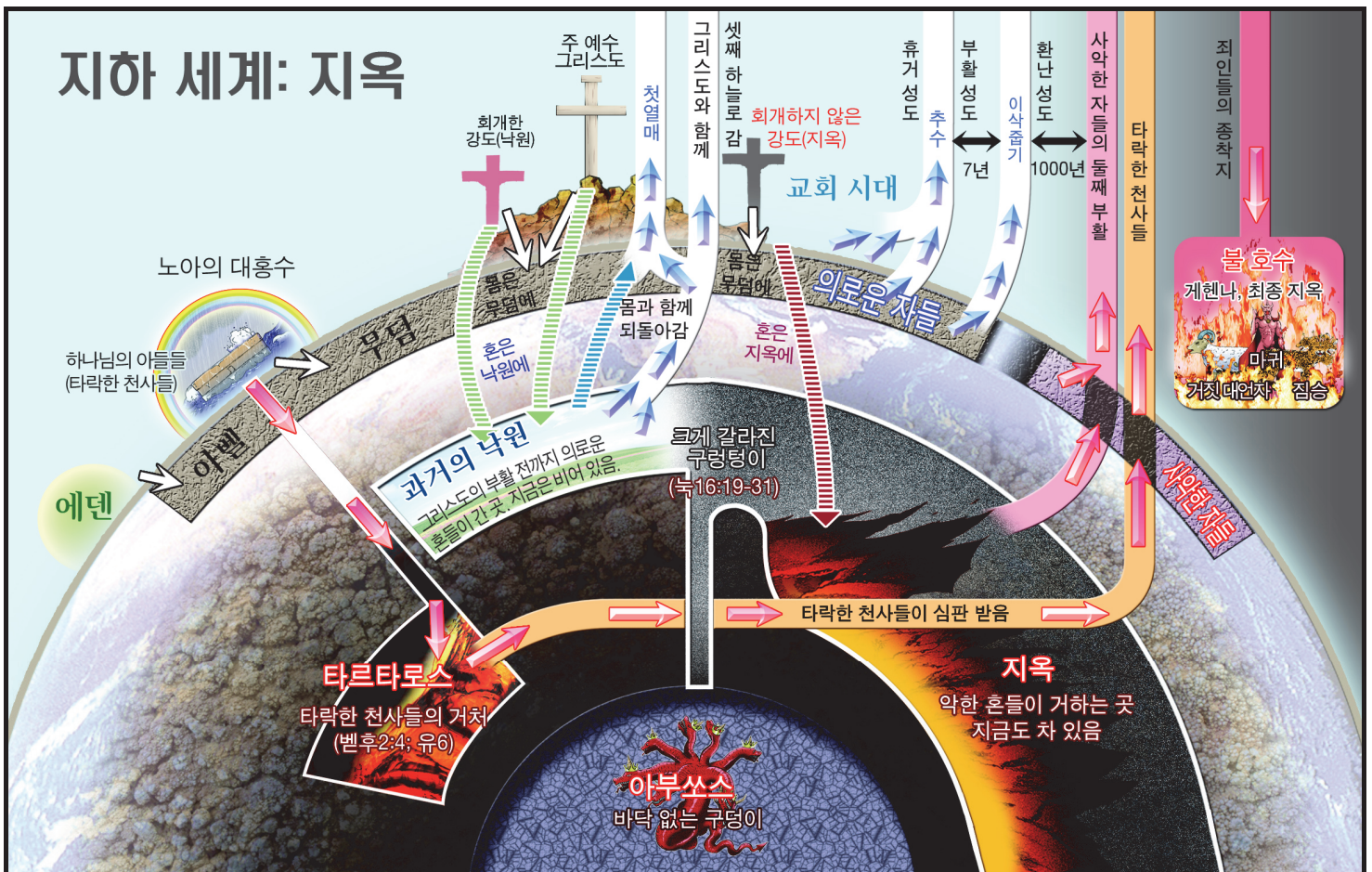
- 지옥(Hell): 지옥은 '스올'이라는 히브리어와 '하데스'라는 그리스말을 번역한 것으로 성경에 총 54회 나온다(시16:10; 사14:9; 겔31:16; 눅16:23). 이 경우는 지옥이란 단어가 실제로 쓰인 경우이고 이 외에도 성경에는 영원한 불,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 호수, 바닥없는 구덩이 등과 같이 지옥을 묘사하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이런 구절들은 지옥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분명한 장소임을 보여 준다.

- 영어의 지옥 즉 hell은 '감추다' 또는 '덮다'라는 뜻의 앵글로색슨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1차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뜻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하 세계에서 악한 사람들이 고통 받는 곳'을 뜻한다. 그러므로 한자의 '지옥' 즉 '땅의 감옥'이란 표현은 아주 적절하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말 성경에 아주 근사한 용어를 허락해 주셨다.

- 성경은 지옥이 땅의 심장부에 있다고 말한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마12:39-40).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가셨고(행 2:31)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하늘로 옮기셨다(엡4:9-10).

마태복음 강해 제2과

-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마10:28)에 나오는 지옥은 그리스어 ‘게헨나’를 번역한 것으로 신약에서 열두 번 사용되었는데 이 중 열한 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게헨나는 ‘결코 끝이 없는 불,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이 타는 곳’을 의미하며 ‘혼놈의 골짜기’를 뜻하는 ‘게헨놈’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었다.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도시의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유대인들은 대대로 계속해서 불타는 이 골짜기에다 쓰레기, 죽은 짐승, 범죄자의 시체 등을 내다 버렸다. 게헨나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을 표현하는 기술적인 용어였으며 단 한 번도 무덤을 뜻한 적이 없다.
- 지옥을 만드신 창조주는 지옥의 소름끼치는 본질을 강조하시면서 그곳을 어둠의 장소라고 말씀하셨다(마8:12; 22:13; 25:30). 사도 베드로 역시 지옥의 어둠에 대해 기록했고(벧후2:4) 사도 유다도 짧지만 권능 있는 자신의 글에서 지옥의 끔찍한 어둠에 대해 기록했다(유13).
- 지옥의 특성 중 또 하나는 그것이 깊고 넓다는 것이다. 계시록에는 지옥이 밑바닥 없는 구덩이 즉 무저갱으로 일곱 번 언급된다(계11:7, 17:8, 20:1, 3 등).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거기에는 그들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 있고 그래서 그 길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지옥은 스스로를 키운다(사5:14). 또 지옥은 절망의 장소이다(계14:11). 지옥에는 희망이 없으며 지옥에 있는 자들은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산 채로 남아 있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이다(계19:20). 예수 믿지 않은 악인들이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살 불 호수 즉 불로 가득한 호수의 위치는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계19:20; 20:14).
- 끝으로 기존의 우리말 성경들은 54회의 지옥 중 반 이상을 ‘스올’로 음역해서 구약에서는 지옥을 완전히 제거하였으며 신약에서도 몇 차례만 지옥으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음부로 번역했다. 음부는 저승과 같은 말로서 ‘죽은 혼령이 가서 사는 세상’으로 구전, 유명이라고 말한다.



이런 이교도 사상이 기존의 우리말 성경에 그대로 반영되어 교리와 신학에 참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개역성경 잠15:11; 27:20 참조).

1. 손발을 자르는 것으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

2. 마10:28과 비교하면 천년왕국 이전의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말씀이다(10장 23절 참조).

31,32절: 이혼 증서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가족(메시아), 상속 유지 문제: 이혼(말2:10-16)

신24:1-4, 마19:9는 나중에 설명

33절: 거짓 맹세

신6:13; 10:20, 주의 이름으로만

34,35절: 거짓 맹세

마26:63 같이 법정에서 맹세하는 경우

하늘은 하나님의 왕좌

● 하늘(Heaven): 성경은 세 개의 하늘이 있음을 보여 준다.

I. 첫째 하늘 - 새들과 구름이 거하는 곳. “내가 본즉, 보라, 사람이 없으며 하늘들의 새들이 다 도망갔고”(렘4:25; 단4:12; 마6:26; 8:20 비교). 첫째 하늘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는 아니다.

II. 둘째 하늘 -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창22:17, 시19:1 비교).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처음으로 첫째 하늘을 가로질러 둘째 하늘로 가는 우주선을 만들었다. 비록 둘째 하늘이 광대하고 아름답다 해도 첫째 하늘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는 아니다.

III. 셋째 하늘 -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십사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후12:2, 왕상8:27, 30 비교).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실체의 셋째 하늘이다. 보통 우리말로 천국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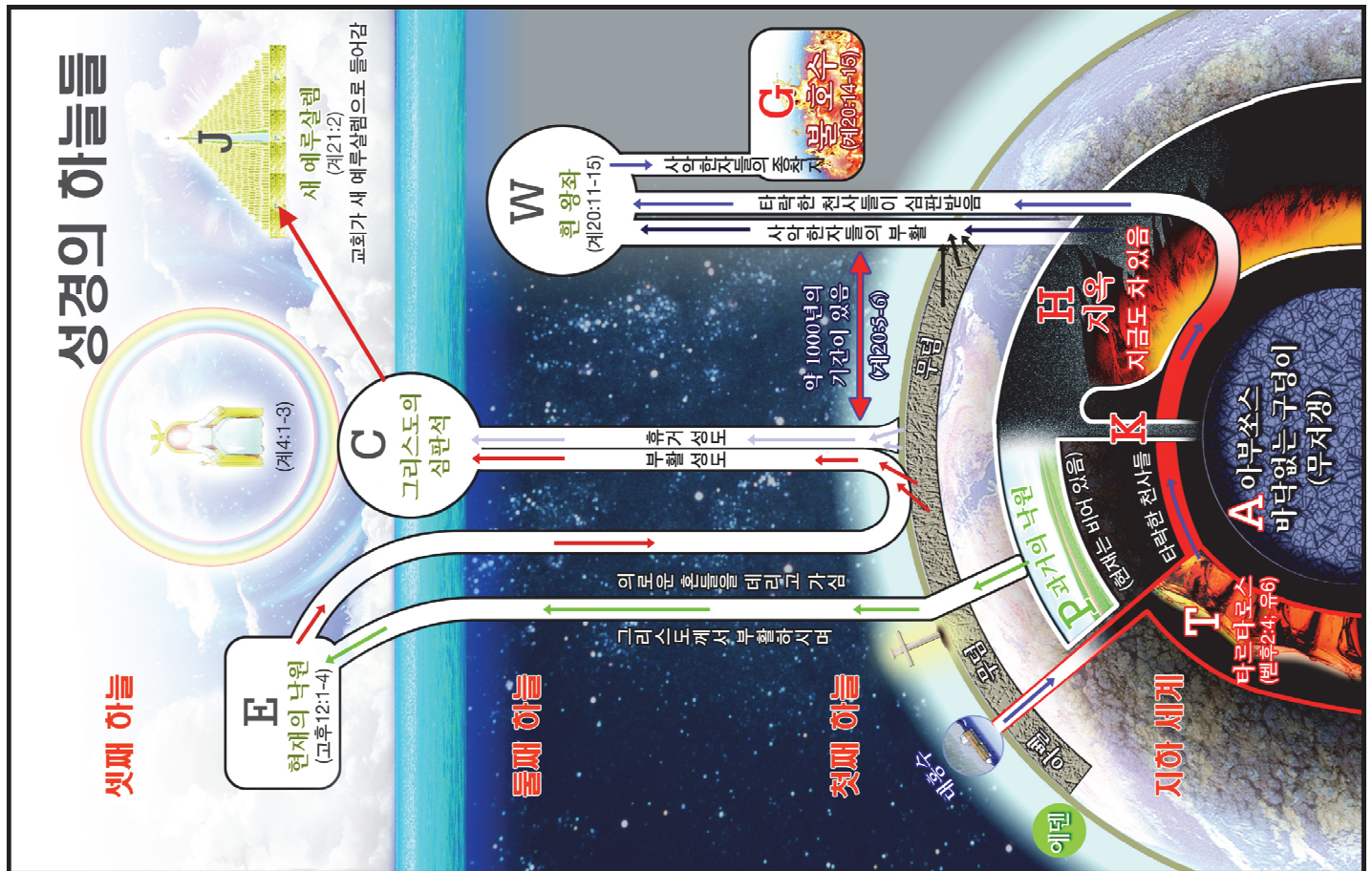
수 천 년의 노력 끝에 사람들은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갈 수 있었지만 아무리 우주 공학이 발달해도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사람을 데려다 줄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여행은 ‘뇌’에 의해 가능하지 않고 오직 ‘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하늘(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심지어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하늘은 셋째 하늘, 하늘의 하늘, 가장 높은 하늘 등으로 불리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이 여기에 거한다(마6: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자신의 백성이 와서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엡4:10; 히8:1; 9:24-28).

한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죽는 순간 바로 이 셋째 하늘에 간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후5:8; 빌1:23). 여기서 ‘몸을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가리키며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곧바로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있게 된다. 중간 대기소나 연옥 같은 장소로 간다는 것은 성경과는 동떨어진 미신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셋째 하늘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할 도시가 있으며 신구약 성도들은 바로 이 도시를 바라보았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니라”(히11:10; 참조 시46:4; 87:3; 요14:2-3). 그런데 이 도시 즉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셋째 하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이 끝나면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온다(계21:2). 바로 이 도시 새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천국이다.

마태복음 강해 제28과



땅은 그분의 발받침: 지구는 아주 미약한 별이다(사40:15-17).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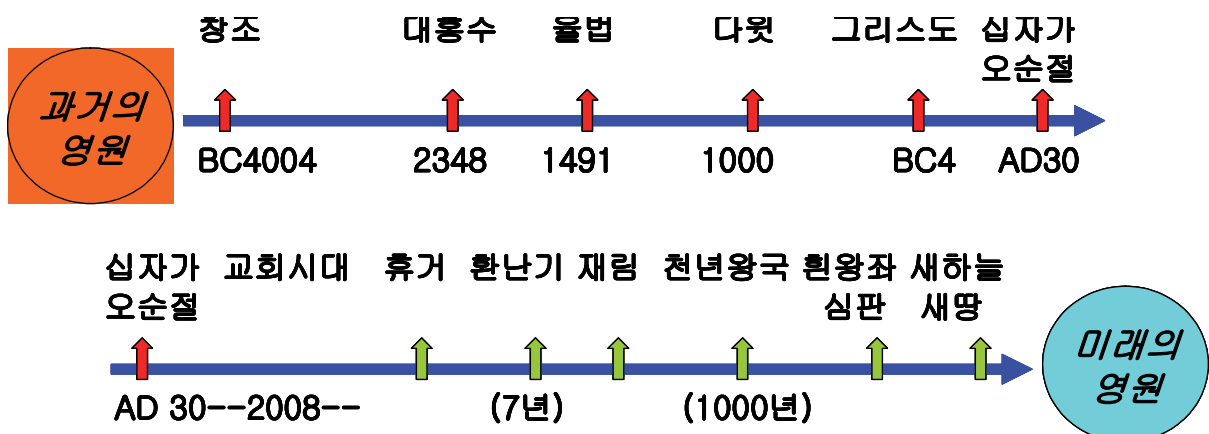
● 땅(Earth): 히브리말과 그리스말에서 이 말은 지구를 가리키거나 지구의 육지 부분을 가리킨다. 윤리적인 면에서 땅에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거룩한 것과 반대가 된다(요3:31; 고전 15:47; 골3:2; 약3:15). '땅의 낮은 부분'은 대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거하는 지옥 혹은 지하 세계를 가리킨다(시63:9; 사44:23; 엡4:9).

천지의 창조: 약 6000년 전에, 땅과 첫째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7. 창1:1: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것들의 종류대로

진화론(빅뱅 이론): 200억 년 전에 대폭발에 의해, 에너지 및 물질 보존의 법칙과 정면 대립

- a. 빅뱅: 100-200억년 전, b. 지구: 50억년 전, c.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 5천만년 전
 - d. 사람: 100만년 전, e. 무생명에서 생명으로, f. 저등 생명에서 고등 생명으로, g. 종의 변화
- 성경의 역사는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역사이다(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 천동설, 지동설: (지구 중심설, 태양 중심설), 지구와 태양 중 어느 것이 움직이는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이전에는 모두 천동설(Geocentricity)을 믿었으나 그 이후에 지동설(Heliocentricity)을 믿게 되었다. 성경은 천동설을 지지한다(전1:5; 수10:13)(루터, 칼빈, 힐즈 등).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상대적인 움직임을 이해하면 우주 공간의 일을 위한 계산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http://www.geocentricity.com>를 참조하기 바람).

예: 지구의 공전 속도 29.76km/sec(음속은 340m/sec, 음속의 86배, 비행기의 124배)

자전 속도: 463m/sec(음속 340m/sec, 비행기 240m/sec)보다 빠름(?). ★★★

총알의 속도 1km/sec, 우주 왕복선 로켓, 7km/sec

하늘은 하나님의 왕좌요, 땅은 그분의 발받침이다(사66:1).

무(nothing)

크기 = 0, 힘 = 0, 지성 = 0, 존재 = 무

무의 역은 무엇일까?

크기 = ∞, 힘 = ∞, 지성 = ∞, 존재 = ∞,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I AM THAT I AM).

창1:6-8, 궁창(firmament): 딱딱한 것

양자 역학의 아버지 막스 플랑크의 플랑크 물질: 밀도가 5×10^{93} gram/cm³

Plenum(물질이 꽉 찬 공간),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난다(10^{-78} sec). 세상은 이런 곳이 있음을 알 수 없다. 차원이 다르므로, 이런 곳의 중심에 지구가 있으면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 수 있다.

예루살렘: 위대한 왕의 도시, 이곳은 그분의 발받침(애2:1)

36,37절: 맹세하지 말라

머리를 두고도 하지 말라. 예면 예이고 아니면 아니오이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로이고 그분의 심판도 마찬가지이다.

38,39절: 눈에는 눈

이것은 법정에서의 심판이다.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롬13:1-6).

간디의 무저항 운동 등은 이런 구절을 잘못 이해한 데서 생긴 것이다.

40-42절: 겉옷과 덧옷

이것은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상관이 있다(신23:19; 출22:25).

이 정신은 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구절을 지금 이 시대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3-45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의 랍비들이 더한 것

시139:21, 잠25:21-22, 구약적인 개념

원수를 사랑하라: 새로운 가르침

이런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만 감당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싸워야 한다.

여기의 원수는 개인적인 문제로 적인 사람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 구원의 방도가 아니다. 인본주의자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비교: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롬4:11-16)

해도 주고 비도 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것을 구원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롬2:4-6).

마태복음 강해 제29과

43-45절: 진실된 사랑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이것을 악용하여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어 구원받는다.”가 되게 하면 문제다.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

1.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요일5:1; 2:15)
 2.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한다(롬13:10).
 3. 이런 이웃 사랑은 차 사주고 집 사주는 것이 아니다.
 4. 성경과 배치되거나 간증에 영향이 있을 때는 사랑을 자제해야 한다(고후6:14-18; 딤후1:10-13).
 5. 불신자들이 성경을 모독하지 않을 때 사랑한다(고전10:24-33; 9:16-23).
- ‘완전하라’는 죄 없는 상태를 가리키지 않는다(신18:13; 욥9:20; 요일1:8-10).

골1:28, 빌3:12, 3:15, 부족함이 없이 되는 상태

마태복음 6장

1-4절: 구제

구제물(alms): 어려운 형편이나 불행한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기 위한 돈 혹은 물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열어 관대히 은혜를 베풀 것을 명령받았다(신15:11). 그래서 포도원, 과수원, 밭에서 수확한 후에 남은 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었으며(레19:9-10; 룻2:2-8)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들에게는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잠14:21; 19:17).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구제물을 주면 죄가 용서된다는 잘못된 견해가 생겨났다. 예수님 때에는 의(義)라는 말이 구제물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물을 주는 것(마6:2-4), 기도(마6:5-15), 금식(마6:16-18) 등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마 6:1)고 말씀하셨다. 이로써 주님은 구제물을 주는 것이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한 외적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칭찬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셨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다비다(행9:36)와 고넬료(행10:2) 같은 성도들이 구제물을 준 것들을 잘 보여 준다. 크리스천 교회는 반드시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며 하나님은 이런 자선 행위를 기뻐하신다(사58:6-8; 요일3:17).

유대인들의 회당 구제, 성전 구제(행3:3; 10:2)

위선자들이 하는 일: 자기의 선행을 알리려고 나팔을 불고 다닌다.

위선자: 그 당시의 극장들, 극장의 배우,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개역 성경의 외식하는 자
나팔을 불면 이미 보상을 받았다.

은밀히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갚아 주신다.

한국 교회의 문제: 헌금 등에 이름을 적어서 밝힌다(십일조 도장).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성경의 기본적인 구제와 헌금의 원리에 위배가 된다.

나중에 보상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눅14:12-14).

5-6절: 기도의 원리: 골방 기도

유대인들의 공중 기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적어도 세 번 기도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아무 때에, 어떤 자세로도 기도할 수 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이미 보상을 받았다.

골방: 안에 있는 은밀한 곳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7-8절: 기도의 원리: 헛된 반복 금지

거짓 종교 추종자들이나 이교도들은 헛된 반복이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위선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하여 반복해서 헛된 말로 기도하였다.

이교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자들

헛된 반복: 마리아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주, 만트라, 방언, 록 음악

지방 교회: 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순절 은사집회: 100% 반복

이교도들: 말의 양에 달려 있다고 믿음.

거짓 종교 추종자들이나 이교도들은 헛된 반복이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위선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하여 반복해서 헛된 말로 기도하였다.

한국 교회의 병폐: 주기도문 남발, 주일에는 서너 번씩 주기도문 남발

의미를 모르고 헛되이 기도문 자체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은 이교도들의 행위와 같다.

9-10절: 주기도문, 하늘의 왕국

이것은 사실 제자들의 기도이다. 진짜 주기도문은 요17장이다.

우리 아버지여, 유대인들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거룩함이 망각되는 시대이다.

하나님의 기본 속성: 거룩함

거룩함은 종종 밖으로 나타난 깨끗함을 표현하고 어떤 때는 내적인 순수함과 성결함을 나타낸다.

참된 거룩함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 특징을 부여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무한대로 완전한 방법으로 거룩한 존재이시다(사1:4; 6:3). 메시아 역시 거룩한

분이었고(시16:10; 눅4:34; 행3:14) 물론 성령님 역시 거룩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무죄함과 성결함의 근원이시다. 사람은 첫 사람 아담의 타락 때에 이 모든 거룩함을 상실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신자들이 자신의 거룩함에 점진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그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성결한 존재가 될 것이다.

현대 교회는 거룩함을 잃고 있고 그것을 사랑과 혼동하고 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 611회 나오며 사랑은 488회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사랑보다 거룩함에 대해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본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거룩함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랑이 아니라 거룩함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거룩하게 경배하여야 한다(출15:11; 대하20:21; 사6:2-3; 계4:8).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시29:2).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

모든 사랑은 기준이 있어야 바른 사랑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거룩함이다. 사랑이라는 엔진이 아무데나 굴러가면 무절제의 도구가 되는데 그분의 거룩함이 사랑의 엔진을 조절하여 바른 곳으로 인도하므로 그것은 사랑보다 높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하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만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가진 사람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분과 같이 거룩해야 하며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요구한다(레20:26; 뻔전1:15-16).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아드님, 거룩한 영, 거룩한 성경을 믿으며 성도 즉 거룩한 무리라 불린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거룩함보다 사랑을 더 중요시 하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거룩함을 찾기 어렵고 각 사람이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하나님께 나오려 한다.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거룩함이라는 궤도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 각종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교회가 수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며 그런 식의 거룩하지 못한 경배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잠28:9). 그러므로 기준과 표준을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가 아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야곱과 같이 벧엘로 올라가야 거기에 부흥이 있다(창35:1-5). 따라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거룩함이 갈등을 일으킬 때 반드시 거룩함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 수 있는 또 존재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마태복음 강해 제3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

이 왕국은 새로운 출생과 관련이 없다(요3).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 임하옵소서.

구약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왕국(단2)

사람이 자기 힘으로 가져오는 왕국이 아니다.

마태복음을 이 왕국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11-13절: 주기도문,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1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해야 하는 기도이다.

12절이 문제가 된다.

그리스도인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는가?

13절에 원래는 for가 있다.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이유: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다(대상29:11).

성경의 기도

기도(Prayer)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혼의 소원과 감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리고 대화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혼의 생명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욥21:15; 시10:4).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셨다. 율법의 시작 이후로 유대인들은 성막이나 성전에서의 경배를 멈추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헌물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제사장들은 개개인을 위하여 희생물과 향과 헌물과 첫 열매를 드렸으며 처음 난 자를 구속하여 오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의식을 수행하였고 한 마디로 각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엄숙한 날 뿐만 아니라 일반 날에도 몰려와서 자기들의 서원을 실행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었다(대상23:30; 느11:17; 눅1:10). 왕상8:22와 성전 예배를 위한 다윗의 시편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세 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였고(시55:17; 단6:10) 성경의 모든 성도들은 공적으로 사적으로 가족 별로 기도하였으며 일반 업무를 하면서도 짧게 기도하였다(느2:4). 기도의 자세는 특별하게 규정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왕상8:22) 머리를 숙이거나(창24:26) 무릎을 꿇거나(눅22:41)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였다(마26:39).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열렬히,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또한 기도에는 죄의 고백과 감사와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가 포함된다. 우리는 바른 이성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마음으로 무신론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경배하기를 원하시므로(렐36:37; 마7:7-11; 빌4:6; 딤후2:1-3; 약1:5) 이런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죄이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목적을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분의 뛰어난 섭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포함하며 또한 우리가 받을 응답도 포함한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해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므로 소용이 없고 주시려고 한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그분께서 후하게 응답하신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없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소리를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사30:19). 다윗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이 가없는 자가 부르짖으매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시34:6).

엡6:18; 살전5:17; 딤후2:8에서 바울은 신자들이 모든 곳에서 언제든지 손을 하늘로 들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고 말하였다(고전10:31). 한 마디로 우리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신다(눅18:1; 21:36). 끝으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잠28:9).

공중 기도의 내용: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교회의 문제, 병자들, 아이들
필요하면 잘 적어서 헛된 반복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다.

14-15절: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주기도문의 내용과 비슷하다.

용서하는 정신은 본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 시대의 죄 용서 방법이 아니다.

16-18절: 금식

- 금식(Fasting)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금식했으며 이것은 본성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이다. 사실 이러한 때에는 몸이 영양분 섭취를 거부하면서 굶주림으로 인한 식욕을 유보시킨다. 성경을 보면 모세 이전에는 금식이라 할 수 있는 예가 없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처럼 40일 동안 금식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신9:9; 왕상19:8; 마4:2). 유대인들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자 할 때 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자 할 때 금식했다(삿20:26; 삼상7:6; 삼하12:16; 왕상19:8; 느9:1; 렘36:9). 또 공적인 재난이 임할 때 그들은 특별 금식을 정하고 젓 먹는 아이까지도 금식했다(욥2:16; 단10:2-3). 그들은 해가 질 때에 금식을 시작해서 다음 날 그 시간까지 금식했으며 또 매년 속죄일을 금식하는 날로 정하고 모두 금식했다.

-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어떤 금식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할 것을 암시한 적이 있다(눅5:34-35). 실로 그분의 사도들과 초기 신자들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감수하며 금식하는 삶이었다(고후6:5; 11:27). 우리 주님은 금식의 관습을 인정하셨고 사도들은 필요한 때에 그것을 실천했다(마6:16-18; 행13:3; 고전7:5).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금식을 제거한다.

사58장 설명

19-21절: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화는 땅의 보화를 버릴 때 쌓인다.

땅에서 빼면 하늘에서 더해진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았다(히11).

마태복음 강해 제3과

19-21절: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화는 땅에 보화를 버릴 때 쌓인다.

땅에서 빼면 하늘에서 더해진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았다(히11).

22-23절: 몸의 등불

19-21절에서 하늘의 보화를 이야기하면서 눈이 한 군데로 고정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단일한 눈, 일편단심, 골3:22-23과 비교, 한 개로 보여야 건강한 눈이다.

눈은 죄의 시작점이다(이브, 아간, 다윗). 욥31:1, 요일2:16, 롬10:17

마지막 때: 음욕이 가득한 눈(벧후2:14).

네 안에 있는 빛: 생각(혼적 요소)

눈이 흐릿하면 몸이 힘을 못 쓴다. 우리 안의 빛도 마찬가지이다.

24절: 주인

이것도 하늘의 보화, 땅의 것의 연장선의 이야기이다.

하나님과 맘몬

맘몬(시리아 말로 재물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맘몬을 얻는 것과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다른 일이다.

25-26절: 의식주 문제

탐욕과 염려의 문제

1.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다.

누가복음 12:13-21, 어리석은 부자

딤후6:6-11

2. 공중의 새보다 소중하다.

27절: 염려 문제

3. 인간의 미약함

누가복음 12:13-21, 어리석은 부자

28-30절: 백합을 보라

4. 들의 꽃들

고전9:9, 신14:22-29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사람, 왕

31-32절: 아버지가 아신다

이방인들이 이런 것을 구한다. 이교도 종교의 특징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히11:30-38

마태복음 강해 제3과

33-34절: 하나님의 의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의 특징 요약(19-20절)

내일이 자기 것을 염려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 하루를 산다. 데일 카네기의 인생론

예: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하1:11-12)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는 누구인가?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나온다. 의(righteousness)와 상관이 있다.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것이다(롬14:17). 의와 화평과 기쁨

하나님의 왕국(69회, 마태복음 5회)과 하늘의 왕국(마태복음 32회)은 거의 같다. 마13장에서 설명
하나님의 의(창15:6; 미6:5; 롬10:1-4)

문자 그대로 8회(롬1:17; 3:21,22; 고후5:21, 벵후1:1 등)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다. 빌3:1-9

마태복음 7장

1-2절: 판단하지 말라

대부분의 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비교: 고전2:15, 고전5:3, 고전6:1-5, 눅12:57(예수님의 말씀)

판단하고 구분하는 일이 안 되면 성화가 안 된다.

근본적 진리는 항상 판단하고 거르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판단을 가리킨다(눅18:9-14).

그리스도인의 판단

1. 자기 자신(고전5:3; 6:2,4; 11:13, 31)
2. 소소한 교리적 차이가 있는 형제를 불신자처럼 여기고 판단하지 않는다(롬14:1-10, 13).
3. 급히 판단하면 안 된다.
4. 판단해서 지목하고 피해야 한다(롬16:17-18; 엡5:1-14).
5. 특별히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한다(마7:15-20).

3-5절: 티와 들보

롬2:17-24

갈6:1-4

6절: 개와 돼지

듣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벵후2장의 거짓 대언자들과 교사들

특히 22절: 개와 돼지

어떤 때는 성경의 진리를 돼지처럼 짓밟는 자들을 본다.

가르쳐 주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조심해서 해야 한다.

거룩한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

성도들을 거짓 교사들에게 넘겨주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거짓 대언자들에게 넘겨주지 말라.

이들은 진리를 짓밟고 오히려 진리를 알려준 자들을 찢는다.

7-8절: 구하라

기도의 정석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14:13-14; 15:16; 16:23-24; 골3:17).

마태복음 강해 제33과

9-11절: 아버지가 하시는 일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 비교, 좋은 것: 빵과 돌, 나쁜 것: 생선과 뱀
너희가 악할지라도: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하다(시53:1-4; 롬3:10-24).

13-14절: 좁은 길과 문

잠14:12, 16:25

다수는 대개 옳지 않다.

요14:6

15절: 거짓 대언자

유다 패망의 원인(사56:9-12; 렘5:30-31; 겔22:25; 겔44:23), 거짓 대언자는 죽여야 한다(신18:20-22)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의 경고(벧후2:1-3; 딤후4:1-5; 유4-18 등)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계2:6): 긴 옷을 입는다(서기관, 막12:38), 아버지 호칭을 받는다(지도자, 마23:9)
정죄 받을 이단 교리: 피의 속죄를 부인한다(벧후2:1-2). 여호와의 증인, 물몬, 안식교, 신천지, 안상홍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길을 따른다(큰길).

대개 개로 표현된다(벧후2:22, 빌3:2; 계22:15). 그러면서 양의 탈을 쓴다.

16-20절: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지 모르거든 나무를 흔들라.”(루터)

1. 죄를 가볍게 여긴다.
2.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3. 사람을 신격화한다.
4. 스스로의 속죄를 주장한다(행위 구원)
5. 회개를 무시한다.
6. 지옥 선포를 주저한다.

21-23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왕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거짓 대언자들 요약문

진짜와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대다수가 속아 넘어간다(고후11:13-15; 벧후2:2).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요6:39-40).

그 날(that day)이 있다: 재림의 심판의 날(사2:11, 17; 3:7; 18; 4:1,2; 5:30 등)

이들은 하늘의 왕국(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다(행19:13-15).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안 적이 없다.

지식의 하나님(삼상2:3; 렘17:9-10)

이 구절을 오용하여 ‘구원을 받았다가 잃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또 never에 주의해야 한다.

마태복음 강해 제34과

24-27절: 두 종류의 사람

야고보서는 산상수훈의 주석, 행하는 자와 듣는 자(약1:22)

여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청중은 이스라엘이다.

집은 이스라엘의 집으로 보아야 한다(마12:43-47; 23:38).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롬11:25-26)

구원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은 대개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등 이스라엘과 혹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관련된 성경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진다.

영적인 적용: 두 무리

듣는다. 필요를 느낀다. 행한다. 시험을 견딜 줄로 확신한다. 시험을 받는다.

메시지에 다르게 반응한다. 기초가 다르다. 시험의 결과가 다르다.

28-29절: 확신 있게 말한다.

서기관들: 아무것도 확신 있게 말하지 않는다. 지금의 성경학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이것이다. 저것이다. 확신 있게 말씀하신다(요7:46; 고후3:12).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사람, 죄, 마귀, 백합, 까마귀, 지옥..., 산상수훈 종결

마태복음 8장

1절: 산에서 내려오셨다.

누가복음 6장 17-49절은 평야에서 주셨다(17절). 둘의 대상과 장소가 다르다.

주기도문: 마6:5-15, 눅11:1-4도 대상과 장소가 다르다. 다른 부분이 있다.

2-4절: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께 경배하였다(worship). 현대역본들은 절하였다(bowed down).

이제부터 병 고치는 일이 자주 나온다.

나병: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병, 피부병, 지금의 나병과는 조금 다르다.

그 당시 나병은 죄와 관련이 있었다(민12:12). 하나님만 고친다. 피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

손을 댄다는 것은 어렵없는 말이다. 제사장도 관찰만 했다. 피를 통해서만 만질 수 있었다(레14:14).

주여(Lord), 십자가의 강도, 주여(눅23:42), 현대역본들은 '예수여'

메시아임을 알리지 말라.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도(마16:20)

모세가 지정한 예물(레14:19-24), 그들(백성과 제사장)에게 증거로 삼으라.

5-8절: 가버나움의 백부장

가버나움은 예수님 자신의 도시이다(마9:1).

성경에는 여러 명의 백부장이 나온다.

마27:54, 행10장의 고넬료(1절), 행22:26의 백부장, 행27:1의 율리오 등

마비병은 꼭 중풍이 아니다. 또한 병은 반드시 부정한 영과 상관이 있지 않다.

9-13절: 권위 아래 있다.

군대의 질서를 언급하며 '당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함

주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신다. 유대인들의 불신과 대조를 이룸.

'이스라엘에서는'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창32:28-29), 야곱의 다른 이름, 통치자, 이스라엘 민족, 북왕국 이스라엘 동쪽과 서쪽에서 오는 많은 이방인들: 천년왕국(하늘의 왕국)에 참여할 자들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지 않는다. ★★★

왕국의 자손들이 있다. 교회는 왕국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한다(단12; 눅20:27-38).

왕국의 자손들이 쫓겨난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마13:11)

마태복음 강해 제35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13절).

오순절 은사운동의 믿음-신유와는 구분된다.

참 믿음의 특징: 1.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믿는 것(성경), 2. 그분께서 계시하신 방법대로 믿는 것(더 이상 꿈과 이상으로 말하지 않는다), 3. 계시의 조건 하에서 믿는 것(시대의 구분)

14-15절: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 그는 결혼하였다.

베드로는 제1대 교황으로 독신으로 살지 않았다(고전9:5).

여기는 모두 메시아의 표적: 나병 환자, 마비병 환자, 열병, 게르게스 지방의 마귀 들린 자
천년왕국의 표적들(사35:6-7; 33:24 등).

그녀에게 손을 대셨다. 은사주의자들은 이것을 이용하여(행19:12) 안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히13:8이다.

과연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가?

아니다. 히브리서의 문맥은 이런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사도들의 표적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마8:13, 백부장의 중).

안수하여 병 고치는 것은 주로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있다. ★★★

16-17절: 마귀 들린 자들

병든 모든 자를 고쳤다(healed all tta sick). '믿음 있는 자만 고치지 않았다.'(행5:16)

No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 막2:5

고치지 못하는 것은 healer의 책임이다(약5:14-16).

사53:4 인용,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도다.'

마태복음: '우리의 연약함을 당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원문과 다르다. 이것은 결코 70인역 등을 인용한 것이 아니다.

70인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자들이 만들어낸 상상물이다.

예수님은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하셨다.

성경의 저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다.

질문: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는 병 고침이 들어 있는가? 그렇다. ★★★

은사주의자들의 딜레마

속죄 사역에는 구원이 들어 있다. 병 고침이 들어 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 믿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병을 고칠 수 있다.

여기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 실수하게 된다.

속죄 사역에는 자연계의 저주(롬8:19), 짐승 세계의 저주(사11:7), 세상 자체의 저주, 병, 가난, 잔인함, 전쟁 등에서 해방되는 것이 다 포함된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 시대에 모두 요구하면 안 된다.

사자가 지푸라기를 먹는 것, 우리 몸이 찢지 않는 것, 해치는 일과 상하는 일이 없는 것 등은 모두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지금도 하나님은 병을 고치신다(요일5:14): 약을 쓰든지 안 쓰든지(행3:7) 혹은 그대로 아프게 두기도 하신다(딤후4:20; 딤후5:23; 고후12:5-8).

18-22절: 나를 따르라

큰 무리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나 믿지 않았다(요2:23-25).

홀로 떨어져 지냈다(마14:13; 막1:45; 눅6:12).

잘못된 동기(요6:16)

서기관, 성실한 사람, 대가를 따지지 않고 덤벼 듭.

그 당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밖에서 잠자는 것을 요구함(요6:66-68)

여우도, 새: 성경에서 마귀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마귀의 사역자들도 부족한 게 없다.

바울의 자세: 고후6:3-10

죽은 자를 장사지내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당시 그분에게는 복음 선포가 더 중요하였다.

죽은 자들: 살아 있으나 죽어 있다(엡2:1). 다시 태어나야 한다(엡5:14).

23-27절: 풍랑을 멈춤

자연계의 기적

어떤 분이냐? 풍랑도 멈춘다. 기적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정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강해 제36과

28-31절: 게르게스 지방의 마귀 들린 자들

막5:1, 가다라 지방, 갈릴리, 게네사렛, 긴네롯(수12:3), 디베랴(요6:1)

마태는 두 명, 마가는 한 명

바디매오, 마20:30(두 명), 막10:46(한 명), 마가는 한 사람에게 대해 곧바로 기술하는 형태, 마태는 자세하게 기술하는 형태, 둘 다 맞음, 마가복음에는 곧바로, 곧장, 즉시로나 많이 나온다.

마귀들의 특징:

0.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본다: 하나님의 아들, 영적 존재이므로, 이들이 영원히 괴로움을 당할 때가 온다(예수님의 재림 이후, 특히 1000년 왕국 이후 영원히 불 호수에서, 마25:41).

1. 젖은 테를 좋아한다(막5:13; 마17:15)

2. 높은 테를 좋아한다(막5:5; 사14:12-14)

3. 사람을 심하게 상처 낸다.

4. 죽은 시체를 좋아한다.

5. 과도하게 울거나 벌거벗고 다닌다.

6. 대단히 종교적이다(막5:7). 예수님을 알아본다.

7. 영적인 스킴조프레니아(마5:9), 2중 인격체

8. 괴력을 발휘한다(막5:4)

9. 사랑이나 설득에 넘어가지 않는다(막5:4)

32-34절: 마귀 들린 자들이 몸을 차지하려 한다.

돼지들에게 들어간다. 결국 돼지들을 모두 죽인다.

몸을 차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명상, 만트라, 입신 등을 통해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

성령 체험으로 내모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박영돈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단정하게 옷 입고 정신을 차리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다.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서도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

사람들은 돼지를 잃고서야 비로소 화를 낸다.

예수님과 고침 받은 사람의 대화(막5:1-20, 19-20, 눅8:26-39, 39절, 예수님=주=하나님)

8장: 메시아 표적, 나병, 마비병, 열병, 각종 병, 풍랑, 마귀 들린 자...

마태복음 9장

1-2절: 마비 병 환자(마2:1-12)

그분 자신의 도시: 가버나움

마비병 환자: 막2:4-5

여기서는 병이 죄와 상관이 있다(2절). 다 그런 것은 아니다(요9:2-3).

십자가 사건 전에도 신유 이전에는 반드시 죄들의 용서가 있었다.

죄들의 용서는 말씀 선포와 상관이 있다(마10:7-8; 눅9:6).

'아들아', 나이가 든 사람에게 이런 호칭을 쓴 것은 그분의 권위를 보여 준다.

천주교 신부(Father)가 사람들을 아들로 대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스라엘 전체를 아들이라 부른 것과 비슷하다(마2:14-15).

3-8절: 신성모독

죄들을 용서하는 권위

신성모독: 그분의 십자가 처형 죄목(마26:65; 요19:7).

예수님을 이런 죄로 고소하는 자들은 스스로 그런 죄에 걸린다(마12:31-32).

5절: 어느 것이 더 쉬우냐? 병(하나님의 권능), 죄(하나님의 권위),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둘 다 쉽다. 그리고는 병을 고쳐 주신다. 즉 하나님임을 입증하신다.

유대인들의 생각: 하나님만 이런 병을 고친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한다. 사람은 둘 다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까? ★★★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죽이고 만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죄를 용서하거나 그대로 두는 권능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다(요20:19-23; 행13:4-12;
고전5:3-5; 고후2:10 등).

마태복음 강해 제3과

9절: 마태를 부름

마태복음의 저자, 레위(막2:14), 세리(눅9:11)

예수님도 세금을 냈다(마17:27)

마태를 부르는 것: 은혜, 왕의 부르심, 개인적인 부르심,

마태의 반응: 믿음, 희생, 즉시의 반응

10-13절: 긍휼을 원한다.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생각: 가난한 자, 하류층, 병자는 죄인이다(요9:31-34)

롬3:22-23과 대조를 이룬다.

야고보서의 설명(약2:1-9)

일반적인 죄인: 음행을 일삼는 자, 주정뱅이, 간음하는 자, 마약하는 자, 도둑, 유괴범, 아내를 때리는

성경의 죄인: 시기, 질투, 자기 의, 교만, 속임수, 완고함 등

의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병든 자들에게 필요하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골4:14), 의사에 대해 좋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의사이시다(눅4:23).

긍휼을 원한다(호6:6): 에브라임과 유다의 죄 책망, 고멜까지도 사랑하신다.

마12:7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다.

희생물이 아니라 긍휼이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롬11:32).

마21:31-32

14-15절: 금식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논쟁이 지속된다. 종교인들의 지속적인 공격

금식: 금식 자체는 명백한 명령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사58:3-7; 눅7:5-6, 잘못된 금식 관행에 대한 책망

성경의 여러 사람이 금식을 했다(다윗, 다니엘, 아합, 모세, 엘리야, 에스라 등등).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 금식(눅18:12), 주님의 제자들은 안 함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음.

신부방 아이들: 신랑(신부)의 친구들, 여기서는 자기 제자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킴

16-17절: 새 옷감 조각, 새 포도즙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체(낡은 옷, 낡은 부대)는 예수님을 받을 수 없다.

wine: 동형이의어, 포도즙, 새 포도즙, winepress

마26:29; 딤후5:23 등

주님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 성령님의 내주 시대, 교회 시대

구약 시대와 다른 시대

새 부대가 있어야 새 포도즙(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

부대: 가죽 부대, 포도즙이 발효하여 팽창하면 터진다.

마11의 침례자 요한도 이것을 궁금히 여김.

요한: 율법과 대언자들의 끝, 신랑의 친구(눅16:16; 요3:29)

마태복음 강해 제38과

18-19절: 치리자가 나아옴

막5:21-43, 회당의 치리자, 많은 경우 마가복음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분을 주님으로 제대로 알아보았다.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는가?

예배 혹은 경배(worship)의 중요성

예배가 중요한 첫째 이유는 성경이 예배에 대해 매우 자주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번 거듭해서 예배라는 주제를 강조한다.

십계명 첫 번째 명령 강조(출20장)

하나님의 표준, 원리, 지침을 명령, 법규, 법령, 법률 및 신조의 형태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2-6절까지의 제1계명이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네 하나님이라.(구원의 하나님)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예배의 하나님)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순서 중요: 구원(1회) 다음에 예배(끝이 없음),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온다.

성도로 삼은 목적: 출19:5-6; 신7:6-11

예배의 오용과 남용

20-22절: 혈루병 여인

12년 동안,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고침

믿음으로 나아옴, 메시아의 사역 증명

이런 믿음은 우리의 복음의 믿음과 내용이 다르다. ★★★ 아직 교회,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23-26절: 소녀를 고침

minstrel: 직업으로 노래하며 우는 자들

이들의 직업에 타격이 간다.

달리다굼(막5:41), 아라메익 12년 동안,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고침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만 같이 들어갔다(변화산, 겹세마네). 셋 다 순교하였다.

죽은 자를 살리는 처음 기적(나사로(요11), 나인성 과부의 아들(눅7)): 말씀만으로

혈루병 여인(12년), 소녀(12살), 12라는 숫자, 이스라엘 열두 지파(신32:8), 이스라엘의 궁극적 회복

27-31절: 눈 먼 자들을 고침

다윗의 자손(Son of David): 메시아의 타이틀, 롬1:3

마22:41-46

32-35절: 말 못하는 자를 고침

이 경우는 마귀와 상관이 있음. 다 그렇지는 않다.

이스라엘에서는 본적이 없다(마11:5; 요5:33, 36).

메시아 표적 입증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심: 췌기를 박는다. ★★★

이것은 고전15:1-4와 아무 관련이 없다(갈1:8).

이것은 천년왕국 전에 있을 환난기의 메시지이다(마24:14).

마태복음에서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성경 읽기가 허사가 된다.

마태복음 강해 제39과

36-38절: 수확 밭의 주님께 기도하라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양과 목자: 겔34(34:1-5, 23)

추수가 아니라 수확이다. 이스라엘의 수확은 봄에 이루어진다.

추수는 영적인 추수일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세상 끝을 뜻한다(마13:30; 계14:15).

요4:35-38: 영혼 구원의 수확

마태복음 10장

1-4절: 열두 제자, 능력 부여

12제자, 12이라는 숫자, 12지파, 유대인 사역(히2:3-4),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한다(고전1:22).

열두 제자 이름(막3:16-19; 눅6:14-16)

사도: '파송된 자', 다대오는 눅6:16의 유다이다(가롯이 아닌 유다, 요14:22)

눅6:16의 셀롯 시몬은 마태복음의 가나안 사람 시몬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순

눅6:12, 막3:13은 예수님이 밤새 기도한 뒤 이들을 택했음을 보여 준다.

행1:13의 명단

야고보: 적어도 3명, 큰 야고보(요한의 형제; 행12:1-2), 작은 야고보(알패오의 아들, 사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행15:13; 갈1:19), 야고보서의 저자(?), 큰 야고보?)

5-7절: 하늘의 왕국 복음

이방인들 제외(비교 롬10:9-16)

이스라엘의 집(비교 행2:36-38), 행1:8과 비교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고전15:1-6)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이다.

왕국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갈1:6-12)과 다르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오해해서 가르친다. 여기에는 아직 교회가 없다.

8-10절: 병자들을 고침

병든 자, 나병 환자를 고친다. 죽은 자를 살린다. 마귀들을 내쫓는다 등

거저 주라. 현대 은사주의자들은 모두 돈을 받는다.

성경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메시아 사역임을 인정해야 한다.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다(고전9:14).

11-15절: 화평의 사역

문안 인사: 살림, 왕국 복음 수용 여부

먼지를 떨어버린다(행13:51).

더 건디기 쉽다. 지옥의 등급(마23:14; 계20:13-15 등)

16-17절: 조심하라

양, 이리, 뱀, 비둘기

공회(council)는 언제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모임(행4:15; 5:40 등)

비둘기처럼 무해한 자가 되라(빌2:15).

18-20절: 증언한다

여기의 '너희'는 유대인이다. 이것은 특별히 재림 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약속이다.

왕들과 총독들에게 증언할 것이다(10장 23절 참조).

너희 아버지의 영, 성령님

21-23절: 조심하라

이것은 특별히 재림 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약속이다.

끝까지 건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의 끝은 목숨의 끝이 아니다. 세상의 끝이다(마24:13-14).

마태복음 강해 제4과

21-23절: 조심하라

이것은 특별히 재림 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약속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의 끝은 목숨의 끝이 아니다. 세상의 끝이다(마24:13-14).

여기의 끝은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다.

23절 끝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때가 있다'.

이것은 행 2-7장에서 성취될 수 있었다.

사도행전 2-7장의 오해

사도행전: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바뀜

내용: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강림과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가 확고히 세워진 것(1-7장),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되어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진 것(8-28장)을 기록하며 동시에 이 일을 위해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인내와 용기 등을 보여 준다.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 그분의 생명이 제시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생명이 제시되어 있다.

부활 후에도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왕국의 건립임: 행1:6, 1:8

예루살렘, 유대(1-7장), 사마리아(8), 땅 끝(9-28), 1장이 대략 1년임

2-3장 베드로는 여전히 재림의 시각으로 말씀을 선포함(요엘서 2장)

행2:14, 16, 22, 29, 36, 46

행3:12, 13, 18-20, 행7: 스테반의 선포(52-53), 서 계신 예수님(55절)

8장(이디오피아, 사마리아), 9장(사울)

중요한 분기점: 10장 34-35,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음(교회 시작 후 10년이 지난 뒤)

행11:17-18, 13장 이후로는 베드로는 사라지고 바울과 바나바만 나옴, 16장 이후로는 바울만(2차 선교 여행부터)

마태복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변천기 기록(약 33년)

사도행전: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넘어가는 변천기 기록(약 40년)

24-25절: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파리의 신(왕하1:1-2)

바알세불: 마귀들의 통치자(마12:24), 사탄

26-28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의 두려움은 지혜의 시작이다.

두려움(Fear): 420회 이상

The fear of the Lord: 30회, 이 중 14회가 잠언에 나옴:

지식의 시작(1:7), 지혜의 시작(9:10), 생명 샘(14:27), 지혜의 훈계(15:33)

주님을 두려워하면 악을 미워한다(8:13).

장수한다(10:27).

확신을 준다(14:26).

죄를 멀리하게 된다(16:6).

생명에 이르게 한다(19:23).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얻게 한다(22:4).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면 순종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예: Feat not, his fear(출20:20)

주의 두려움 혹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영원하다(시19:9).

신6:5의 근거: 주의 두려움

Fear는 타락 이후에 생겼다(창3:10)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없으면 양심이 마비된다.

이것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된다(창20:11, 욥28:8, 아간의 사례).

Fear는 크리스천에게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다(성화의 필수 요소, 고후7:1).

요일4:18을 잘못 이용하면 안 된다. 문맥상 17절의 두려움이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 선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지옥에 들어간다.

어둠 속에서 말한 신비한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라.

지옥의 두려움(28절)

‘지옥에서 혼과 몸을 멸한다’: 혼과 몸은 다르다.

마태복음 강해 제41과

영과 혼과 육

2분설과 3분설

영혼과 육이냐? 영과 혼과 육이냐? 사2:22

살전5:23

창2:7과 고전15:45

개역: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living soul)이 된지라(창2:7)

●**흙정역**: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living soul)이 되니라.

●**개역**: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soul)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spirit)이 되었나니(고전 15:45)

●**흙정역**: 그러므로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soul)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spirit)이 되셨느니라.

영: 루아흐(프뉴마), 혼: 네페쉬(프쉬케)

성경에는 혼이라는 단어가 535회 나오는데 혼을 믿지 않는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4장 12절 같이 꼭 혼이 나와야만 말이 되는 구절에서만 혼을 혼으로 번역했다.

마리아의 찬양: 눅1:46-47

한나의 기도: 삼상1:10, 15

영, 혼, 몸의 기능

- **영**: 하나님과 소통, 믿음, 소망, 경외함, 기도
- **혼**: 인격을 갖추고 생각, 기억, 양심, 판단, 의지: 인격체인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한다.
- **몸**: 생명체로서의 기능 유지
-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혼은 자기를 의식하고, 몸은 세상을 의식한다.”¹
-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전12:7; 눅23:46)

혼은 낙원(구약)이나 천국(신약) 지옥(불신자)에 들어감(눅16:1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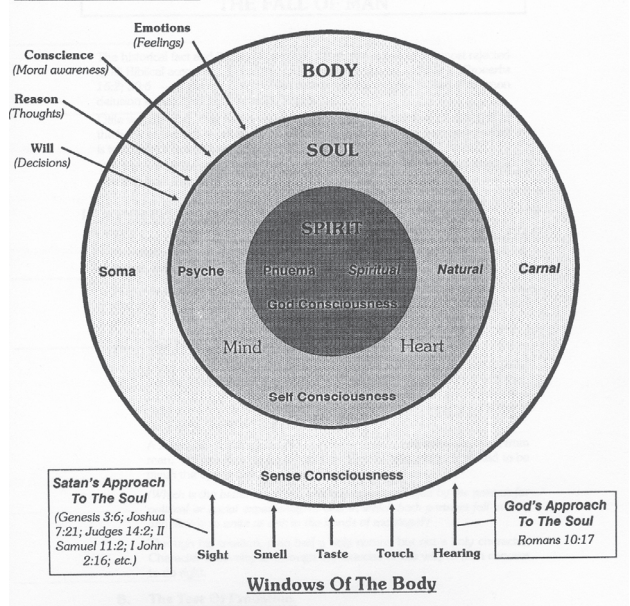
몸은 흙으로 돌아감(창3:19; 전12:7)

집승도 영이 있다(전3:21; 민22:22-33; 눅8:32-33).

사람의 죽음

- **죽음(Death)** 성경에서 죽음 혹은 사망은 일차적으로 분리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먼저 육체의 죽음은 몸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며(창35:18)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그분의 진노를 받는 것도 죽음으로 표현되어 있다(요일3:14). 특별히 영원한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을 떠나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계20:14-15; 유12). 사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부가된 형벌이며(창2:17; 3:19) 그의 모든 후손은 범죄자이고 따라서 그에게 부가된 저주를 공유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므로 그분을

Windows Of The Soul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생명을 공유한다. 부활 때에 마지막으로 정복되어 발밑에 깔릴 원수는 사망이다(롬5:12-21; 고전15:1-58).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숨을 내어 주다’(우리말 성경은 ‘숨을 거두다’로 되어 있음)로 표현되거나(시 104:29) ‘땅으로 돌아가는 것’(창3:19; 전12:7), ‘혼이 몸을 떠나는 것 혹은 입는 것’(고후5:3-4) 또는 ‘몸이 거하던 장막을 떠나는 것’(고후5:1; 벧후1:13-14) 등으로 표현되었다. 신자들의 죽음은 ‘떠나서 집으로 가는 것’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빌1:23; 마26:24; 요11:11; 살전4:13)으로 표현되었다.

● 혼의 불멸은 계시 종교의 근본 교리이며 고대의 족장들은 이 같은 진리를 확신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다가오는 영원한 삶을 고대하고 그 안에서 약속들을 받았다(삼상28:13-15; 삼하12:23; 욥 19:25-26; 히11:13-16 비교).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등이 죽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시고(마22:32) 또 생명과 혼의 불멸 그리고 혼의 소중함 등을 몸소 보여 주셨다(마16:26; 고전15:45-57; 딤후1:10).

● 죽지 아니함(Immortality: 롬2:9 등 총 5회)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으로 죽지 아니함이 있으며 창조물의 경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성경은 사람이 죽지 않는 일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딤후1:10).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복에는 몸의 부활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만 가능하다(요14:19). 한편 죄인들은 의인들이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원토록 불과 유향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산다(마25:46).

● 안식교 교리: 1850년경, 여호와의 증인들과 비슷하다. 극도의 율법주의(안식일),

혼의 수면(soul sleep) 및 멸절(annihilation)설

지옥의 불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진짜 불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뜨겁게 느끼는 그런 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불 곧 상징적인 불이며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자신의 창조물을 진짜 불 속에 영원토록 던져 넣는 잔인한 분이 아니기에 불신자의 혼은 죽어서 소멸된다는 가르침.

이런 주장을 펴기 위해 안식교인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eternal이다. 이 말은 원래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을 나타낼 때 혹은 천상의 것의 우수함이나 고매함 등을 지상의 것과 비교할 때 즉 질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다(마19:16).

반면에 영어에서 양을 강조하면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나타낼 때는 ‘영존하는’이란 뜻의 everlasting을 사용하며 마18:8은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해 지옥의 불이 영원토록 지속됨을 보여 준다.

이렇게 하나님은 치밀하게 everlast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혼멸절설’ 같은 이단 교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 사악한 자들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지옥 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므로 영혼은 멸절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은 질적으로 우수한 ‘영원한 생명’인 동시에 양적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영존하는 생명’이고 불신자에게 주시는 생명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다.

“죽었을 때의 인간 상태는 무의식 상태이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이 죽은 뒤 부활할 때까지는 무의식 속에서 즉 혼이 자는 가운데 무덤 속에서 머문다.”

“둘째 부활 시에 부활하는 악인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소멸된다”

반론 : 눅16:22-32, 계6:9-11, 마25:46, 계14:9-11, 계20:10

마10:28(destroy), 요3:16(perish): 살후1:9와 함께 생각해야 함.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떠나 생명이 제 구실을 못해 폐허 상태가 되는 것

마태복음 강해 제4과

29-33절: 참새

참새 두 마리 1 아사리온, 다섯 마리 2 아사리온(눅12:6)

참새가 떨어지고 머리털이 떨어지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All seeing God)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28과 31절 아이러니(출20:20)

시인과 부인: 구원과 관련된 것(롬10:9,10)도 있고 여기처럼 대적자 앞에서 하는 것도 있다.

부인도 구원과 관련된 것도 있고(여기처럼, 28절 참조), 상속 유업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딤후2:11-13; 고전6:9-11 등).

34-39절: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왔다(눅2:14).

화평하게 지내라(마5:9).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화평을 주시는가?(요9; 마23)

사실 적그리스도의 무기가 화평이다(단8:25)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는 일(눅2:35)

36절은 미7:5-6에서 나옴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한 싸움이 일어난다.

37절은 눅14:26에서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미워한다(창29:30-31).

마19:29, 그리스도의 유일하심, 기독교는 그분을 최우선으로 둘 것을 요구하신다(요14:6).

38절: 자기 십자가,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39절: 아이러니,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진다(사14:12-16).

내려가려고 하면 올라간다(약4:10).

40-42절: 보상

문맥은 11장 1절의 제자들을 내보내는 것과 상관이 있다.

이것은 상징적인(문자적이 아니다) 이야기다(마25:43).

대언자: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자

의로운 자: 의로운 성품

제자: 선생의 것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

작은 자: 제자들, 세상의 관점에서 별 것 없는 자들, 냉수 한 그릇

마태복음 11장

1절: 떠나신다

그들이 도시들: 제자들의 도시들

내용은 사61:1-3

셋째 여행: 1차(마4), 2차(마8-9), 3차(여기)

2-3절: 침례자 요한의 의심

눅7:19-23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리고 자기가 그의 전령이라면 도대체 지금 감옥에 갇힌 자기는 무엇인가?

침례자 요한은 재림을 바라보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도행전 2-7장의 유대인 제자들처럼

4-6절: 메시아의 일

메시아는 누구인가? 반드시 이적과 표적을 행해야 한다(신18:18).

마태복음 강해 제43과

7-9절: 침례자 요한의 정체

흔들리는 갈대(No),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No), 그는 대언자이다(선지자가 아니다).

10-13절: 사자

막1:2, 사40:3, 말3:1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말3:1).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할 것이요(마11:10)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요20:28).

11절: 여자가 낳은 사람들(구약 시대 사람들), 왕국 시대 혹은 교회 시대의 가장 작은 자도 그들보다 낫다. 특히 교회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알고 있다(요1:16-17, 히브리서의 더 나은, 7:19; 22; 8:6; 9:23 등).

12절: 한국 교회에서 크게 오해되고 있는 구절들 중 하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개역)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킹제임스 흠정역).

침노하다: 〈1.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가거나 쳐들어오다.〉, 〈2.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거나 해치다.〉 천국을 불법으로 쳐들어가는가?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고 해쳐야 하는가? 하늘에 있는 천국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왕국을 오해해서 이런 번역이 생긴다.

침례자 요한은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였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시대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구약의 율법과 대언자 시대(요한에서 끝이 남)
2. 요한부터 십자가
3. 미래(마8:11)

14절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폭력배들은 누구인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박사 등(마11:18-19; 23:13)

침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 신약 교회의 인물이 아니다. 침례교회의 창시자가 아니다.

14-15절: 엘리야

요1:21,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마17:101-13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자들: 모세와 엘리야(말4:1-5), 계11:3의 두 증인

요한은 엘리야의 표상(눅1:15-17)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진다.

그것을(it) 받아들이면, 그것은 왕국이다.

16-19절: 그 시대 사람들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 비교

요한: 금욕적인 모습, 예수님: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

요점; 이렇든 저렇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작정함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옳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의 열매로 말미암아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

20-22절: 도시들을 꾸짖음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고라진, 벳새다)

두로와 시돈: 바알 숭배, 이세벨(시돈 왕 옛바알의 딸)

요나의 선포(욥3-4), 굶은 베와 재

심판의 때(계20:13-15), 행17:30-31

23, 24절: 가버나움

예수님의 도시

소돔(창19), Sodomy

하늘과 지옥, 올라가고 내려간다.

25-27절: 예수님의 전지하신 능력

지옥의 언급 이후에 주님의 말씀이 나온다.

눅10:21, 그분께서 기뻐하셨다

복음서에서 그분이 기뻐하셨다는 여기가 유일하다.

기쁨의 이유: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는다(고전1).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할 자만 아버지를 안다(요14:6).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28-30절: 내게로 오라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수고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안식을 주리라(혼의 안식)

모든 사람이 죄 짐을 지고 있다.

예수님의 멍에(십자가와 비슷하다).

내 짐은 가볍다(요일5:): 교회에만 오면 짐이 무거워진다. 문제가 아닌가?

마태복음 강해 제44과

온유: meekness(14번), meek 17번 총 31번(갈5:22-23)

해를 받을 때 참는 것, 용기가 없거나 연약하거나 비겁함을 뜻하지 않는다.

갑자기 화내는 것, 악의를 꾀하는 것, 오랫동안 복수하려고 베푸는 것의 반대가 온유이다.

온유(meekness)의 뜻: 흐르는 액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 마귀의 시험, 사람의 공격이 와도 상처와 고통 자국이 남지 않는다(욥).

온유는 상처를 받을 때에만 드러난다. 문제없을 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언제 마음이 상하는가? 나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인정 안 할 때

갈5:26, 헛된 영광을 구하면 상처를 받는다.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 하면 상처받는다.

우리의 고민: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까? ★★★

온유는 해를 당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다(다윗과 사울).

예수님의 성품이다(마11:29). 온유는 화평을 만들어 낸다.

한 사람의 혼이 큰 것을 보여 주는 척도이다. 혼의 크기는 일의 크기가 아니다.

너무 마음이 커서 작은 해나 상처가 움직이지 못한다. 해를 끼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온유한 자의 특성

1. 골3:12, 13, 다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생긴다. 가정, 직장, 교회, 온유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한다.

2. 갈6:1,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져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반응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 자신도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예수님의 온유: 왕의 왕, 주의 주, 그런데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셨다.

3. 뱀전 3:14-16, 소망의 이유(전도)를 온유하게 전달한다.

나쁜 것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께 그것을 던져버리면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선하게 대할 수 있다. 그러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성령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16절).

4. 딤후2:24-26, 지도자의 특징

교리가 잘못된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

권면하거나 충고해도 듣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야 한다.

온유한 자의 자리매김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4장 9-13절

우리가 이 날까지 세상의 오물(汚物)같이 되고 모든 것의 찌꺼기가 되었노라.

온유한 자의 구체적인 예

1. 민12장의 모세,

회중이 모세를 대적함,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없이 많은 불평불만

그런데 드디어 형과 누나가 등장해서 모세의 아내에 대해 비방을 함(이디오피아 여인, 피부색).

모세는 3절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라고 함.

모세에 대한 비방이 너무 크니 주님이 대신 나신다(12:4-10).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린다.

모세의 온유함(13절): 하나님께 미리암을 고쳐주실 것을 기도함.

이게 가능할까? 일 년에 하루 이틀 정도, 성령님이 함께 해야 매일 가능하다. ★★★

2. 마11:28-29, 나는 온유하다

“너희가 이제껏 내게 행한 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할 일은 내게로 오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짊어지리니 나는 온유하다.”

마21:8-9,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온유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많은 군중이 호산나 소리, 종려나무를 흔든다.

교회 지도자의 성품

온유한 사람은 비방에 대해 쓴 뿌리를 내지 않으며 칭찬해도 우쭐대지 않는다.

온유한 사람은 항상 중의 마음과 섬기는 자세를 유지한다.

이런 성품이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 ★★★

불가능하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할 때 이런 일이 열매로 나오게 된다(갈5:22-23).

마태복음 12장

1-4절: 안식일 문제

지금까지 왕국을 선포했는데 백성이 그분을 배척한다.

11장 28-30절을 보면 개인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살짝 드러난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나일까?

읽어 본 적이 없냐?(마21:16 등), 도대체 무엇을 읽었느냐?

안식일 준수

- a.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표적(느9:14; 겔20:12, 20), 주전 1500년경에 안식일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짐, 아무도 그것을 명령으로 지키지 않음.
- b.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창세기 인물 중 아무도 지키지 않음.
- c.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창1:15-17)은 안식일을 포함하지 않음
- d. 아담은 창3:19-20 전에는 일을 하지 않음
- e.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죽어야 함(약2:10)
- f. 구약의 율법 명령들은 이제 폐기되었고(고후3) 크리스천들은 이제 율법 하에 있지 않음(롬6:14)
- g. 실제로 유대인들 외에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없음(거리 문제)
- h.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모였음(150년경에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거의 확정됨)
- i. 출12:16, 거룩한 집회가 첫째 날에 있었음
- j.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겼음(요5:18)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행한 일(삼상21:1-6)

1. 다윗이 안식일을 어겼다.
2. 제사장들이 어겼다(민28:9).

삼상: 제사장 아히멜렉, 막2:26 아비아달 대제사장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은 왕, 제사장, 대언자

예표로 다윗은 예수님처럼 왕, 제사장, 대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행2:30).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몰랐다.

마태복음 강해 제45과

5-9절: 긍휼을 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사66).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

긍휼을 원한다(호6:6). 두 번째 나온다(마9:13).

안식일은 이스라엘과의 언약 표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 준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다. 세리들과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그분은 자신을 가리킬 때 언제나 The Son of man으로 표현한다. A Son이 아니다. 처녀 탄생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창2:1-3). 즉 그분과 여호와와는 같다.

왕, 제사장, 대언자(호세아), 예수님의 3중 사역

보다 크다(greater), 제사장: 성전보다 크다(12:6), 대언자: 요나보다 크다(12:41), 솔로몬보다 크다(42)

10-13절: 안식일에 병을 고침

눅13:11-17, 안식일에 여인의 병을 고침

12절이 요약임, 악을 행하는 것이나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나 다 악하다.

14-16절: 바리새인들의 협의

바리새인들의 수입은 예식법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

요18:28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하셨다.

17-21절: 상한 갈대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역이 끝나고 이방인들을 다루시려는 곳이 모습을 드러낸다.

곧 이어서 용서받지 못할 죄와 왕국의 신비가 나온다.

사42:1-4, 개인이 이스라엘을 나타내는지(사41:8; 45:4) 혹은 메시아(49:6)가 여호와를 나타내는지(53
장) 구분하기가 어렵다(벤전1:10-11).

그분은 다투지 않는다. 소리치지 않는다(온유하다).

상한 갈대, 연기 나는 심지

영적인 적용, 문자적인 적용(공의를 베푸실 때까지), 공의는 판단의 공의

이방인들이 그분을 신뢰한다(마15:21-28).

22-24절: 마귀 들린 자

마귀 들린 자, 병어리, 눈 먼 자

이스라엘을 향한 기적과 표적에는 마귀를 내쫓고 병단 자를 고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마1:1; 눅3:)

왕좌에 앉을 분(눅1:30-34)

철저히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가리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롬1:2-4)

메시아라는 존재(요1:19-23), 그분의 출처(요7:42), 그분이 오기 전에 이루어질 일(마24:37), 출처(마
12:23)

바리새인들의 편견: 이 기적은 마귀에게서 났다. 이유: 그분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죄인들과 함께 먹으므로(마9:11)

바리새인들의 문제(마23:23)

마태복음 강해 제46과

25-28절: 사탄이 분열되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막8:17; 요1:).

분열하는 왕국, 도시, 집은 망한다.

사탄은 왕국이 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이요, 통치자이다(마4:8-9; 요12:31).

바알세불

너희 아들들은 마귀를 내쫓고는 하나님을 자랑한다(행19:13-16).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 어떠냐? 더 사랑해야 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에게 판단을 물어봐라(12:39-42 참조).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왕국(통치),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주님은 두 왕국의 왕이다.

눅11:20, 눅17:20-21

29-30절: 강한 자

강한 자: 사탄 마귀, 그의 집: 이스라엘, 몸, 민족, 그의 재산: 사람들

핵심 요약: 몸, 국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면 먼저 마귀를 제지해야 한다(요12:31; 16:11)

마지막으로 제지하는 일은 계11:15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묶는 일은 계20:1-3에 있다.

천년왕국은 사람의 힘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후천년주의).

예수님께서 이미 이 강한 자를 제압하고 그에게 속한 자들을 취하고 계신다.

31-32절: 신성모독 죄

잘못 이해하기 쉬운 구절

1. 천주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있다.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

성경에서 다가올 세상은 대부분 이스라엘과 관련된 천년왕국을 가리킨다(마19:20-28).

통치자가 있고 도시가 있고 자연 환경이 변한다(사11, 40, 롬8).

2. 여기의 죄는 '말하는 죄'이다: 간음, 자살, 거짓말 등의 죄가 아니다.

3. 이것은 성령님을 거부하는 죄가 아니다.

성령님이 마음 문을 노크할 때 거부하는 죄가 아니다. 말을 하지 않고도 거부할 수 있다.

막3:30이 핵심이다.

성령 훼방 죄는 예수님이 부정한 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이 죄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왕국을 선포하는 동안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이다.

우리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

지금 이 시대에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33-35절: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산상수훈: 마7:16-19

독사들의 세대; 세대(generation), 나온 자들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렘5:31).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선한 보고, 악한 보고(롬2:5), 하나님의 말씀

36-37절: 쓸데없는 말

심판 날에 회계 보고를 한다.

네 말들로 심판을 받는다(악한 보고).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약3:1-12, 골4:6

38-42절: 쓸데없는 말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표적은 주로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다(고전1:22).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보여 주셨다. 다 거부하였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이다(눅2:34).

요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고래, 케토스, 멍백한 고래

‘고래’에 해당되는 그리스어는 ‘ketos’이며 ‘물고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ichthus’이다.

마태복음 7장 10절, 17장 28절 같은 곳에서 ‘ichthus’라는 그리스어가 사용되었다.

물고기(fish): 물에서 움직이는 생명체(OED)

과학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물고기 즉 ‘fish’는 바늘 달린 어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fish’를 ‘어류’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채 200년도 되지 않았다.

아담은 단 하나의 생물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창2:19, 20).

창1:21에서 이미 고래에게 이름을 주셨다.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중심부 - 지옥 - 에 가신다.

예수님은 수요일에 죽어서 저녁 6시부터 정확하게 72시간 동안 무덤에 있다가 토요일 저녁 6시에 부활하셨다. 이때가 바로 첫째 날의 시작이다. 날의 시작은 저녁부터이다(창1:5, 8 등).

여인들은 주일 새벽 6시경에 무덤에 왔다. 천사들은 저녁 12시경에 왔다.

마태복음 강해 제47과

니느웨 사람들: 마지막 심판 때에 이교도들이 일어난다.

로마서 2:26-27

이교도들의 구원 문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는가?

창조 세상, 양심 롬2:12-16

그러면 이들에게 빛이 있는가?

요1:9, 롬1:18-20, 렘29:13

외판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을 진심으로 좇았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복음을 보내신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롬1:20)고 말씀하신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요나보다 더 크다: 동정심, 태도 등

남쪽의 여왕: 세바의 여왕, 아라비아 반도의 남단

이 여인이 이 세대를 심판한다(유대인 세대).

단순히 소문을 듣고 왔다. 이스라엘은 당사자를 직접 보았다.

멀리서 왔다. 눈앞에서 봤다.

많은 비용을 들였다. 무비용으로 그냥 보았다.

죽을 자에게 왔다. 죄를 용서하는 분에게 왔다.

43-45절: 부정한 영이 되돌아옴

부정한 영이 나온 사람은 개인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다.

부정한 영(마귀): 물과 불과 관련이 있다(마17:15).

사람의 몸을 집이라 부른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집이다. 그러므로 마귀가 들어올 수 없다.

축사 문제(막16:17)

마귀들을 내쫓을 수 없다면 어떻게 마귀들을 다루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축사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귀를 내쫓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엑소시스트’

사탄과 마귀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강력한 악의 세력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신약성경에는 마귀를 쫓아야 한다는 명령이 없다. 그 일이 우리의 본보기라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마귀들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마귀들의 공격을 경계하는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벧전5:8).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항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비그리스도인의 경우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의 소유권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마귀는 쫓겨난다.

사탄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들을 속인다.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았으면 마귀를 쫓을 필요가 없다. 그 안에 마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 해도 이 사람에게 축사를 행할 필요가 없다. 그는 제 정신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귀는 쫓겨나간다.

46-50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내 아버지의 뜻’(요6:29, 40)

내 형제는 누구인가? 문맥으로 볼 때 유대인 성도들이다(마25:40; 히2:11, 13; 요20:17).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the Virgin)가 아니다.

그분의 형제들(마13:55; 요2:12; 7:3, 5)

공생애에 들어가신 이후로 그분은 마리아를 한 번도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다(요2:4; 19:26).

사도행전 1:14 이후에도 마리아는 경배를 받지 않았다.

마태복음 강해 제4장과

마리아 숭배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출발함. 바빌론의 시작과 멸망(창11장, 계17:1-6)

바빌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만나는 곳, 메소포타미아

니므롯(창10:8-10)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히슬롭의 '두 개의 바빌론': 니므롯이 죽자 세미라미스는 그가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담무스라고 불렀다(겔8:14). 여자의 씨(창3:15)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바빌론 신비 종교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이집트(이시스와 호루스), 중국(상무, 성모), 인도(데바키), 로마(비너스와 주피터) 이스라엘의 아스다롯(삿2:13)

하늘의 여왕(Queen of Heaven): 렘44:17-19

에베소의 다이아나(행19:27)

기독교의 배교: 313년의 로마 국교

이교도들의 어미와 아기 숭배 요구,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둔갑함

천주교의 예수님은 아기 혹은 무서운 사자

주후 431년의 에베소 공회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인정하였다.

바울의 언교 여행,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함(19:10).

19:18-20

에베소의 소요 사태: 데메드리오, 은 세공업자(35절)

에베소 교회: 계2:1-7, 첫 사랑을 잃은 교회

드디어 마리아 숭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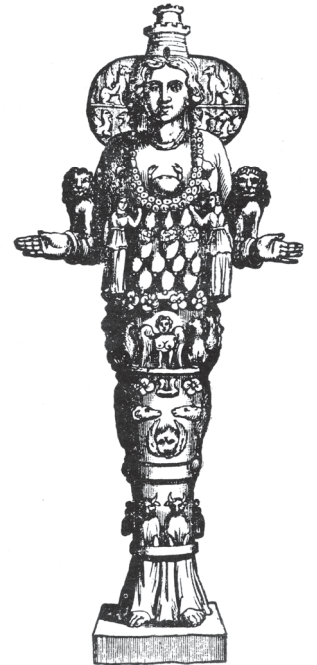
마리아 로사리오 기도

마리아 무염시태(1854년)

마리아 몽소승천(1951년), 마리아 채림(?)

성경의 마리아: 죄 있는 인간(눅1:46-47)

무서운 예수님, 자비로운 어머니: 갈릴리 가나 잔치



12장 요약

13장에는 왕국의 신비가 나온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12장을 바로 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다윗의 아들로

표적과 이적들을 보이셨으나 배척당하고 심지어 마귀라 불리셨다.

이러는 가운데 17-21절에 슬며시 이방인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온다(니느웨, 남쪽 여왕).

마태복음 제13장

1-3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18절)

왕국의 비유들(총 12가지, 이스라엘의 수자): 씨 뿌리는 자(13:1), 겨자씨(13:31), 누룩(13:33), 마가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옴. 어느 면에서 교회 시대에도 적용된다.

알곡과 가라지(13:36), 보물(13:44), 진주(13:45), 그물(13:47), 용서하지 않는 종(18:23), 포도원 품꾼들(20:1), 혼인 잔치(22:1), 열 처녀(25:1, 달란트(25:14): 이 9가지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된다.

씨 뿌리는 자: 그리스도, 씨: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왕국의 말씀이다(19절).

교회가 아니다(11절 참조). 다만 막4:11, 눅8:10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일정 부분은 교회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

4-9 네 종류의 씨

1. 부주의한 자들(4절): 길가에 떨어진 자, 해룻과 빌라도, 19절, 사악한 자(날짐승들) 비 구원자
2. 잠정적인 자들(5,6절): 돌밭, 마술사 시몬(행8장), 20-21절, 말씀으로 인한 꺾박을 못 견딤
3. 세상적인 자들(7절): 가시나무(딤후4:10의 테마), 22절, 구원받은 가능성이 있음
4. 진지한 자들(8절): 옥토(12제자 등)

비유: 숨겨진 형태로 교리를 완벽하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교회



하늘의 왕국: 이 왕국의 기간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이며 그 범위는 우리가 기독교계 (Christendom)라고 부르는 영역이다: 예수님 당시의 하늘의 왕국, 신비 속의 하늘의 왕국(왕국의 연기 기간), 실제의 하늘의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비 속의 하늘의 왕국에는 선과 악,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서로 섞여 있다.

세상 창조 때부터 예비되었다(마25:34).

하나님의 왕국: 시간과 영원 그리고 하늘과 땅을 포함한 그분의 모든 창조물에 대해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눅17:20-21). 이것은 새로운 출생(요3:5)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으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롬14:17).

교회: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선택되었다(엡1:4).

교회와 왕국은 같지 않다. 이 둘을 혼동하면 문제가 생긴다.

천주교회의 신학: 이 둘이 같다. 어거스틴, 교황의 왕국, 무천년주의

이로 인한 신학의 황폐화,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이런 신학을 따른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11절)

왕이 없는 동안 이 땅에 있을 일들을 묘사한다(마25:14-30; 눅19:11-27).

모두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받은 세상을 가리킴에 유의해야 한다.

10-13 비유의 목적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보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요9:40,41; 행28:25-28).

시119:130. 롬10:17

너희에게 주어졌다. 수를 세면 산수, 방정식, 미분 적분, 통계

빛에 반응하면 점점 더 큰 것을 주신다.

제자들: 침례자 요한의 회개 메시지와 침례 순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

마음이 딱딱하면 그대로 굳고 만다.

세발자전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14-17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

사6:9-10: 환난기의 이스라엘

마13:14-15, 그리스도의 배척, 왕국의 신비

요12:39-40, 그리스도의 배척

행28:26-27,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됨

마음이 waxed gross: 기름덩이로 심장이 굳어지는 것

귀가 둔하다 dull hearing: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여기서의 회심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회심이다(슥12-14장).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17절): 왕국의 도래를 보지 못했다.

24-30, 36-43 알곡과 가라지 비유

하늘의 왕국에 해당됨

마귀가 주님의 일을 망치려고 첩자들을 뿌림(고후11:13-15)

1. 밭은 세상이다: 교회가 아니다.

2. 왕국의 자손들: 1차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3. 수확은 세상 끝에 이루어진다: 환난기의 끝

4. 가라지: 잡초가 아니라 실제와 거의 유사한 식물이다. 수확 때에 갈라진다.

5. 가라지를 모으고 알곡을 넣는다(마3:12).

6.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 있다.

7. 천사들(계14장; 마24:30-31)

8. 지옥 불의 심판: 문자 그대로의 뜨거운 불

9. 세상 밭이 왕국이 된다(계11:15).

마태복음 강해 제5과

31-32, 겨자씨 비유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눅13:18-19, 정원), 채소가 나무가 되는 괴현상이 발생한다.

큰 나무, 날짐승들(13:14, 19)

나무: 단4:19-27, 통치가 확장되는 것

천주교회의 해석: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데 이 나무는 교회이다. 모두가 거한다.

겨자씨와 누룩은 교회의 확장을 뜻하지 않는다. ★★★

33, 누룩 비유

성경의 누룩: 부패시키는 물질(총 23회, 출12:15부터)

거짓 교리: 마16:6-12; 고전5:6-8; 갈5:9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리: 제사장을 아버지하고 부른다(마23:9). 형식적으로 길게 기도한다(마23:14). 사람의 전통을 말씀보다 우위에 둔다(마23:5). 몸의 부활을 부인한다(행23:8).

누룩은 복음이 될 수 없다. 성경의 말씀: 음식, 빵, 꿀, 젖, 사과

여자: 성경의 교회는 여자가 아니라 항상 신부요, 처녀이다(고후11:1-3)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 같은 여자(계2:20), 계17장의 음녀(17:3,4,7,18 등)

눅13:20,21에도 누룩이 나온다.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교회에도 거짓 교리가 있다.

주의 만찬에서도 누룩 없는 빵과 포도 주스를 사용한다.

34, 35, '비유가 없이는' 과 '비유가 아니면' 의 차이

시78:1-3, 구약성경 이야기 자체가 비유라고 말한다. 아삽의 시

비유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한다.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이단이 된다: 신천지 등

어리석은 자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진다(잠26:7-9).

36-43, 가라지 비유 설명

자신의 왕국(계11:15)

불타는 용광로: 지옥(마18:8; 막9:44-48 등)

왕국에서 해처럼 빛난다(단12:1-5).

듣는 것이 중요하다(43절).

44, 밭에 숨긴 보물

보물(보배): 이스라엘(출19:5), 밭: 세상, 사람: 그리스도

보배는 세상에 숨겨졌다.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세상)을 산 뒤에 그의 것이 된다.

세상 속에 참되게 믿는 이스라엘이 숨겨져 있다(롬11:25).

45, 46, 값비싼 진주

신비 속의 하늘의 왕국 기간에 예수님께서 비싼 값을 주고 산 사람들 즉 교회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진주 자체를 산다. 세상(밭)이 아니다.

47-50, 그물

신비 속의 하늘의 왕국

총 12개의 비유 중 7개가 13장에 나와 있다: 앞으로 올 교회에 대한 경고

나머지 5개: 환난기에 들어갈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세상의 끝, 천사들

51-52, 좋은 서기관

서기관: 성격 기록을 카피하는 사람

좋은 자가 있고(스7:6) 나쁜 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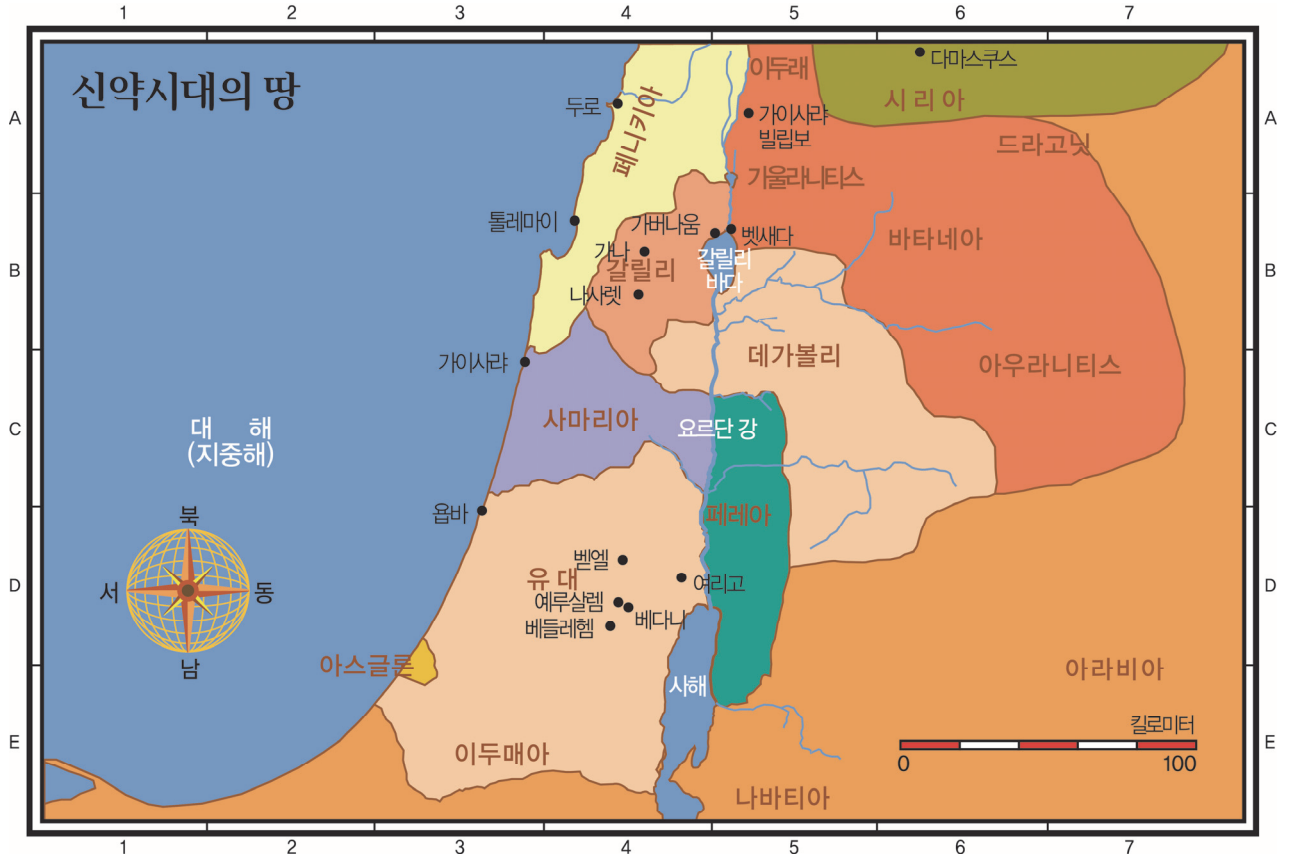
서기관은 집주인이다. 무언가를 맡은 청지기이다(눅16:1-12).

그의 보고는 말씀의 보고이다. 앞뒤 문맥상 친구약 성경으로 볼 수 있다.

53-58, 내 형제와 어머니
자기 고향: 나사렛
믿음과 기적의 상관관계(58절)

마태복음 강해 제5과

마태복음 14장



1-7, 헤롯 안디바

● 헤롯: 로마의 통치 밑에서 유대 전체나 일부를 다스린 네 명의 통치자의 이름. 혈통: 에돔 사람
 I. 헤롯 대왕(마2:1-23; 눅1:5). 바로 이 왕의 시대에 예수님께서서 유대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그가 죽은 뒤에 유대, 이두매아, 사마리아를 포함하는 그의 왕국의 절반은 그의 아들 아켈라오에게 돌아갔고(마2:22) 나머지는 둘로 쪼개져서 그의 다른 두 아들 즉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에게 돌아갔다. 안디바는 갈릴리와 페레아를 다스렸고 빌립은 바타네아와 드라고닛(드라고니티스)과 아우라니티스를 다스렸다.

II. 헤롯 빌립. 헤로디아의 전 남편, 가이사라 빌립보

III. 헤롯 안디바(눅3:1).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아켈라오의 형제였으며 갈릴리 사람인 우리 주님은 그의 사법 통치 영역 안에 있었다(눅23:6-12). 그는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었다.

침례자 요한, 죽은 자가 살아난다(엘리아의 부활), 강력한 일들(마12장)

안디바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빌립의 아내를 아내로 취하였다.

율법에 어긋난다(레18:16).

헤롯은 침례자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막6:20).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었다. 중동의 벨리 댄스, 헤롯은 여기에 걸려 넘어갔다.

8-12, 헤롯과 요한

헤롯: 전형적인 정치 지도자, 특징 모든 것을 무서워한다.

1. 자기 양심(14:2), 요한(14:4), 군중(5), 조롱받는 것(9), 자기 말을 지키지 않는 것(막6:26)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양심은 크게 흔들린다. 요한의 선포를 듣고 약하게 되었다(막6:20). 춤을 보고는 요동을 쳤다(막6:22).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는 죽었다(눅23:8-12).

빌라도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에는 동의한다.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었다. 요한은 앞으로 올 엘리야를 나타낸다(눅1:17, 마17:1-13, 요1:25 등). 엘리야는 계11:3-10에 나타난다. 그는 목이 베인 채 순교당할 것이다(계20:4 참조).

13-14, 오병이어의 기적

막6, 눅9, 요6,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불쌍히 여기셨다(moved with compassion; 9:36; 18:27; 막1:41; 6:34 등).

원래 말은 내장이 찢어지는 것을 뜻한다. 백성들로 인해 심장, 간, 폐, 위, 소장, 대장에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는 뜻이다.

말씀 선포자의 태도, 킁킁대고 코미디 하고 쓸데없는 예를 드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다: 링컨, 콜게이트, 록펠러, 제이씨 페니 등등

15-19, 오병이어의 기적 상세 내용

날이 많이 지났다. 저녁 7-8시경, 제자들의 불신

하늘로부터 빵을 주신다: 만나(요6)

예언적으로는 환난기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먹이는 것을 보여 준다(계12:1-15; 렘50:19,20).

광야에서 빵을 만든 것은 사탄의 시험의 첫째 내용

20-21, 오병이어의 기적, 열두 바구니

여자와 아이는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

빵들을 먼저 축복한 뒤 나누어 주셨다.

우리 자신이 먼저 축복을 받은 뒤 나누어져야 한다.

요한복음 6장의 상세 내용: 빌립과 안드레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함(15절)

생명의 빵(22-71)

하나님의 일(28-29)

만나 이야기, 모세가 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셨다(32절)

하나님의 뜻(39절)

나는 생명의 빵이다(51절)

카톨릭 교회에서는 52-56절을 사용해서 미사를 지지함.

미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제사이다.

그러나 63절에 명확한 답이 있다.

너희도 가려느냐?(66-67)

마태복음 강해 제5과

22-25,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

요6:17을 보면 건너편이 가버나움이다. 그러므로 5병2어의 기적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다(막1:35; 6:46; 눅9:18; 9:28 등). 혼자 있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한다.

26-29, 바다 위를 걸음

얼음 위를 걸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유령(ghost): 죽은 자가 나타난 것, 그러나 이들은 그분을 가리켜 영(spirit)이라고 했다.

유대인들의 영에 대한 또 다른 개념: 몸이 나타나는 것, 눅24:37-39

30-33, 베드로의 위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

그러나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그의 간구에 예수님이 즉시 응답하셨다.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 즉시로 구원을 주신다(히4:15-16).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행8:37)

34-36,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침

많은 병자를 고침(요3:2의 니고데모), 다 온전하게 됨

마태복음 15장

1-2, 장로들의 전통

큰 일 뒤에 반대가 온다. 예수님의 교리와 권위에 대한 질문

장로들의 전통(막7:1-11): 유대인들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골2:8): 철학 등

헛된 행실의 전통(벧전1:18): 행위 구원

예를 들어 먹기 전에 씻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씻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명령으로 주어졌다(요2:6)

3-6, 너희 전통

예수님은 아예 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대답도 하지 않는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든다(막7:13)

좋은 전통(살후2:15):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모이기에 힘쓰는 것,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아이들을 예절 있게 키우는 것, 단정하게 말하고 입는 것

로마 천주교회, 살후2:15 인용, 이것은 교부들, 교황들의 전통이 아니다.

나쁜 전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한다.

부모를 공경하라(출20:12; 21:17 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나...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고질적인 문제 우리는 어떤가?

고르반(잠28:24; 신14:22-26)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부모를 멸시하는 것(딤후5:8)

7-9, 사람들의 명령

위선자, 두 얼굴의 사나이, 극장 배우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행위

사29:13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것, 헛되이 내게 경배한다(롬10:1-3).

입교, 세례, 집사, 가운, 성전, 제사장 등

마태복음 강해 제53과

10-14,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지 않는다.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18-19).

바리새인들이 실족하였다: 자기들은 다 의롭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심지 않은 초목마다 뿌리째 뽑힌다(마23:15).

여기의 초목은 어느 면에서 바리새인들의 교리, 말, 전통 등을 가리킨다.

눈 먼 자들의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회심하지 않았다(요12:40), 지옥 행(마23:15), 회칠한 돌무덤(마23:27), 스스로 의로움(눅18:11)

더러움(마23:26), 뱀(마23:33)

이들의 개종자들도 이들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둘 다 도랑에 빠진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국가, 정치, 교회, 롬13:1-7; 딤후2:1-3).

15-20,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지 않는다.

비유를 가르쳐 주소서. 이것은 실제로 비유가 아니다. 실제 일이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육체는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요6:63).

먹은 것은 배설물로 빠져 나가면 끝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마음이 문제다(렘17:9-10, 잠4:23).

마태:7개, 막7:21-23, 13개

말세의 특징: 딤후3:1-5

21-24, 가나안 여인의 소원

수로보니게 여인(막7:26), 그리스 시민, 시돈 사람, 이방인

예수님을 알아본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아무 대답도 안 하신다(요8:6).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어졌다. 문자 그대로...

25-28, 가나안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짐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경우

1.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2. 정말로 우리가 무력함을 알고 있는가? 3. 기도에서 이기심을 배제하고 있는가? 4. 무응답이 영원하지는 않다. 5.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강화시킨다.

눅18:1-8, 약4:1-3

예수님께 경배하는데도 여전히 거절하시고 심히 수치스러운 말씀을 하신다. 개라니?

개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29-31, 병자들을 고침

시내사본: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삭제(31절)

32-31, 4000명을 먹이심

오병이어 기적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

빵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요6:9와 같은 말은 안 함

먹고 남은 것을 7 바구니에 거둠.

막달라: 갈릴리 서쪽,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15km, 막달라 마리아

마태복음 강해 제54과

마태복음 16장

1-3, 표적을 보여 주소서.

표적: 이스라엘(출4:8,30; 고전1:22)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모세와 엘리야 등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표적들로 속아 넘어간다(계16:13).

예수님의 답변: 하늘의 기상 현상,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자들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한다. 질문은 그분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4-5,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마12:39; 막8:38)

요나의 표적(마12:38-39)

유대인들은 표적들을 구했고 그것들을 얻었다(행10:38).

그런데 표적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요4:48).

심지어 엄청난 기적도 진리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요12:37-40).

요나의 표적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표적이다: 죽은 자의 부활

바로 이 표적은 죄 문제의 해결책이다(롬6:3-12).

그래서 이것은 논쟁과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눅2:34).

6,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 금식하고 구제하고 십일조하는 보수적인 종교인, 영과 부활을 믿는다(행23).

사두개인: 금식하고 구제하고 십일조하는 자유주의 종교인, 영과 부활을 안 믿는다(행23).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딤후2:).

7-10, 제자들의 오해

문자적으로 취할 것과 영적으로 취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

예수님은 여기서 영적인 누룩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진짜 빵을 이야기한다.

요6:52, 그들은 문자적으로 취하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취한다(63절 참조).

여기서 걸러 넘어진다.

11-12, 교리의 누룩

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56회, 주로 신약).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교리를 위험한 것으로 가르친다.

딤후3:16의 오역(개역성경)

딤후2:15; 딤후4:15-16, 롬16:17-18 등 참조

특히 말세에는 거짓 교리가 유행하게 되어 있다(딤후4:1-5; 계3:16-21; 마24:11, 24 등).

성경 변개는 특히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와 상관이 있다.

예수님의 신성, 구원, 속죄, 지옥, 천국, 마귀 등(요일5:7; 행8:37; 막9:44, 46; 뱀전2:2)

마태복음 강해 제55과

13-15, 가이사랴 빌립보

팔레스타인의 북쪽 도시, 지금은 파니야스, 구약에서는 '단'으로 불리던 곳

침례자 요한: 헤롯의 의견(14:1-2)

엘리아: 말4:5

예레미야: 특이한 대언자, 눈물의 대언자, 결혼하지 말 것을 명령 받은 대언자
가장 적게 변화시킨 사람, 자기 백성에 의해 배척받고 이집트로 끌려간 대언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18,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

이것을 계시해 준 것은 살과 피가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알게 된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갈1:1; 13)

다시 태어나는 것도 살과 피의 문제가 아니다(요1:13).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전15:50).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종교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다.

베드로가 세운 교회?

18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Petra)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rock)의 반석은 무엇 혹은 누구인가?

천주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 유일한 교회이다. 교황권 계승
베드로가 부인한다. 반석은 그리스도(벧전2:4,8). 천주교의 무천년주의: 교황=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 바울,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다(고전10:1-4).

예수님,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다(마21:42,44, 단2:44-45)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신32:31).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마귀의 교회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위배가 된다.

베드로는 결혼하였다(마8:14). 아내가 있었다(고전9:5).

1410-1415년의 교황 요한 23세는 결혼하고 자기 형제의 아내와 간음하고 동성애, 수녀들과의 음란
행위, 교황의 역사: 살인, 간음, 이혼 등의 무절제한 생활의 표본

베드로는 교리적으로 틀린 것을 가르쳤다(갈2:11).

베드로는 땅에서의 통치권이 왕에게 있다고 했다(벧전2:13).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했다(벧전2:5).

베드로는 자기에게 몸을 굽혀 경배하지 못하게 하였다(행10:26).

베드로는 어른들에게만 침례를 주었다(행2).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성령 침례를 받은 이후에 물 침례를 주었다(행10:44-47).

베드로는 긴 가운, 황금 관, 수레 등을 모른다.

베드로는 언제나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만을 선포하였다(행15:11).

실제로 베드로(Petros)는 야구공 크기의 돌

여기의 반석인 Petra는 거대한 산 같은 반석을 말한다.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개역: 음부의 권세, 그리스말은 정확하게 지옥의 문들이라고 말한다.

지옥은 장소이다. 그래서 반도 있고 문도 있고 빗장도 있다(욥2:6). 그래서 열쇠가 필요하다(계1:18;
3:7 등).

지옥의 문들이 아무리 가로막아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강해 제56과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church): 단수 총 77회

마16:18; 18:17: 미래 사건(will, shall), 행2:47~계3:14: 신약 교회

교회들(churches): 총 37회, 행9:31~계22:16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건물은 기도하지 않는다(행12:5).

건물은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다(행15:4).

건물은 기뻐하지 않는다(행15:22).

건물은 핍박 받지 않는다(고전15:9).

건물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계2:23).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회(Assembly)이다.

그들이 교회와 함께 모였다(행11:26, 중요 구절).

그들이 교회를 함께 모았다(행14:27).

모인 무리(Assembly, 행19:32).

교회에 함께 모인다(고전11:18).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인다(고전14:23)

초대 교회 성도들은 모였다(행2:42, 44, 46).

모이지 않는 교회는 성경의 용례상 교회가 아니다(히10:25).

교회: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신약에만 117회)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집회(행19:32; 39)

구약의 이스라엘(행7:38)도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즉 신약 교회는 아니다(마16:18).

신약 교회: 예수님의 내 교회, 그리스어 에클레시아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에서 나와(Out of) ~로 들어간 사람들(Into),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요일3:14)

야구단, 불교도 모임도 용어 측면에서는 다 교회이다(이단들도 모두 용례상 교회이다).

교회를 부르신 목적

행15:14

롬8:28-30

고전1:2

고전1:9

교회의 소유주

예수님(마16:18)

하나님(딤후3:15; 행20:28)

교회에 속하는 방법

성령 침례가 필수적이다(고전12:13).

성령 침례는 오순절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다(마3:11; 행1:5; 행11:15-16).

물 침례는 성령 침례에 대한 증언이다.

고전12:13은 물 침례가 아니다. 고전12:13은 신약 교회의 교리이다.

마태복음 강해 제57과

교회란 무엇인가?

지역교회와 보편적 교회

신약 교회의 의미로 쓰인 교회의 경우 대부분 한 지역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뜻한다(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인 교회' 즉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교회도 몇 군데 발견된다(히12:23; 엡1:22-23).

마16:18의 '내 교회'도 보편적인 교회이다.

보편적 교회를 많이 강조할 때의 문제: 지역 교회의 약화, 에큐메니즘 문제

지역 교회만을 강조할 때의 문제: 물 침례를 통한 지역 교회 회원권, 목사의 권위 증대, 교리의 왜곡

교회의 기능(엡4:11-12): 지도자들과 성도들

목사와(겸) 교사는 누구인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자, 섬기는 일(사역)을 하게 하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자
주님이 지역 교회에 준 선물(gift)로서 성도들을 준비하고 훈련시켜 할 일을 하게 하는 자이다.

교회에 모이는 목적

바르게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 완전하게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반드시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

교제 중심이 아니고 교육과 훈련 중심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와 목사가 필요하다. 목사와 양들(평등과 동등)

지역 교회

일차적으로 불신자를 위한 모임이 아니다. 신자를 위한 모임이다(엡4:12).

복음 선포 중심이 아니다. 말씀 선포 중심이다(딤후4:2).

구원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성화와 성도를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골1:28; 엡4:13-15)

지역 교회 요약

성도 양육 장소이다(고전14:26).

실제로 이단들이 성경적인 지역 교회 개념을 가장 바르게 이행하고 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다음을 보아야 한다: 건강한 유기체,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와 경외감, 구원의 메시지

교회: 그리스도의 몸(고전12)

엡1:22-23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고전12:27).

지체: member

그리스도의 몸(고전12)

한 몸, 여러 지체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고전12:12).

지체가 되는 방법: 성령 침례(고전12:13)

그리스도의 몸(고전12)

모든 지체가 살아 있다(요일5:12; 같은 성령(롬8:9)).

머리가 명령한다(골1:18).

모든 지체의 은사와 기능이 다르다(고전12:15-16).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전12:21).

한 지체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전12:26).

마태복음 강해 제58과

19-20,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준다

교황의 해석: 베드로는 초대 교황, 교황을 통해서(천주교만이 유일한 교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열쇠들은 문을 열고 닫는 데 쓰인다.

문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 기회를 뜻한다(고전16:9; 고후2:12; 계3:7-8). 즉 복음 선포의 기회를 뜻한다.
또한 하늘(천국)이 아니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다(마3:2; 4:17).

그러므로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기회를 받았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행2(유대인), 행10(고넬료 이방인), 행15장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는 권능: 마18:18을 보면 이것은 열두 제자(십지어 가룟 유다에게도)에게 주어진다. 베드로의 전유물이 아니다.

요20:23, 눅24:33을 보면 죄를 사면하고 그대로 두는 권능은 12명 이상에게 주어진다.

16:18의 묶고 푸는 것은 실제로 갈2:1-8, 행1:15-26 등에서 이루어진다.

18:18의 묶고 푸는 것은 실제로 고후2:10과 엡4:30-32 등에서 이루어진다.

죄를 용서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이다. 진 성도 제사장직(벧전2:9)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무리 미약해도 행13:38-39에 의거하여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또 요8:24에 의거하여 죄를 그대로 둘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요3:36; 3:18).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요5:24).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메시아), 예수(구원자)

드디어 때가 되었다.

21-23,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에 비로소 주님은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알려주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미래 예측

성경은 구체적인 예언을 담고 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1)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2)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3) 죽임을 당하며 (4)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

(5) 이 외에도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6)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는 것을 예언하신다.

제자들에게는 큰 쇼크, 왕으로 모셔온 분에게 있을 수 없는 일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문제: 고난 다음에 영광이 온다는 것(눅24:26; 46-47; 벧전 1:10-11)

오순절주의자들(기복 신앙)의 문제: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려는 것

예수님의 전체 사역은 타원과 같다. 초림과 재림, 고난과 영광(사61:)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속의 사탄(행5:3; 16: ; 삼상18:10).

베드로를 수장으로 두면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 예배, 육신을 죽이는 것(갈2:20; 6:14)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싫어한다.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 초보적인 사람들, 고전3:1-4

마귀의 주요 관심사: 초보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경배를 받고자 한다.

베드로를 통해 마귀가 언급된다. 에스겔 28:11-19, 두로의 왕, 14 덮는 그룹

24-26,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24-25는 10:38,39의 반복, 잃으면 얻고 얻으면 잃는다.

예수님께서 오려면 십자가를 진 무리에 속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생명(25), 혼(26), 생명이 혼이다.

성경의 혼은 사람 자체(창2:7), 사람을 구성하는 세 부분 중 하나

자기 혼: 사람의 혼,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요소, 서로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요소
영은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알렉산더, 카이사르, 칭기즈 칸, 나폴레옹,
이순신, 세종대왕, 스티브 잡스, 정주영, 이병철

혼을 잃으면 그 혼은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그 혼이 지옥 불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우리 발밑에 지옥 불이 있다(용암을 보라).

27-28, 영광 중에 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 중에 다시 온다. 천사들과 함께(마24:30; 롬8:18)

행위대로 갚아준다. 믿음의 행위이다(고전3:5-10; 마25: 30-41; 계22:12).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내가 오는 것을 본다(마17:1-16).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계시록(계1:17)

하나님의 최종 목표: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

마태복음 강해 제59과

마태복음 17장

1-3, 변화산에서 몸이 변화됨

옛새 뒤에, 눅9:28 여드레쯤 되어, 이래로 보면 된다.

높은 산에 가심. 출19:16의 시내 산 경험과 비슷함

몸이 변화됨: 계1:14-16; 뱀후1:16-17; 출19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산

시내 산일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

공통점: 1. 셋 다 산에 오름, 2. 40일 금식, 3. 이스라엘에 보내어짐, 4. 모두 물을 통과함

5.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요르단의 동쪽에서 생을 마감함. 예수님 요르단에서 침례 받음

6. 셋 다 자연계를 지배하는 능력을 보임 등

엘리야는 산 채로 들려 올라감, 다시 죽는다(왕하2:11, 계11:12).

모세는 죽은 뒤 들려 올라감, 다시 죽는다(신34:6, 계11:12)

계시록 11의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이다.

4-5,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모세와 엘리야와는 비교가 안 된다(히3:1-6).

그의 말을 들으라(요1:14-18).

6-7,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함

일어나라.

8-11, 이야기하지 말라

예수님만 보임, 환상이 끝나고 지상의 예수님만 보임

말하지 말라(마16:20)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것은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죄 없는 삶(히2:14-15),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 몸의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 준다. 이것은 절대 무오한 증거(행1:2-4)

성경의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산 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딤후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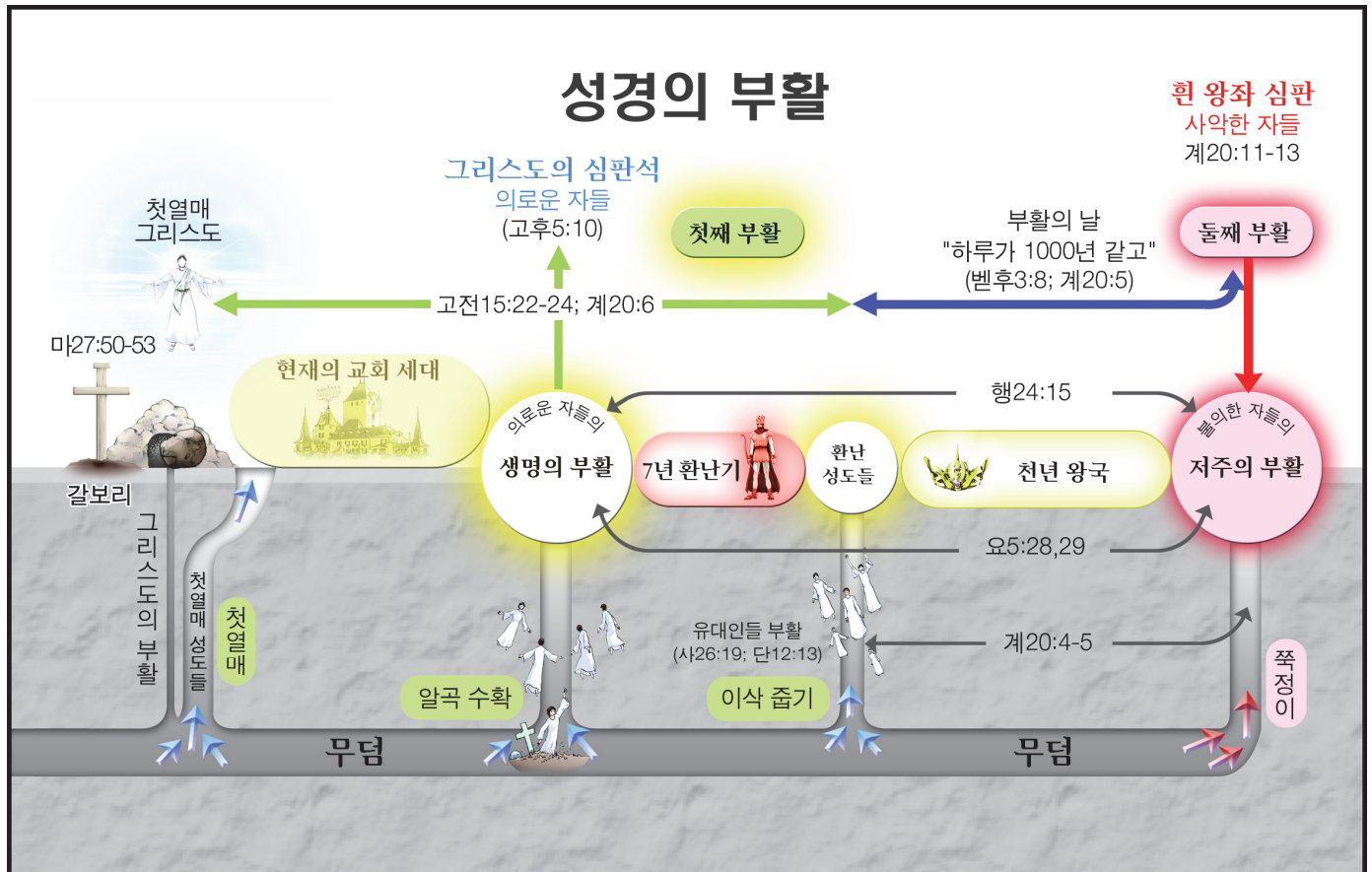
몸의 부활: 사람이 죽는다 해도 사람의 영은 죽지 않고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몸뿐이며 따라서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몸뿐이다. 예수님은 몸이 무덤에서 부활할 것에 대해 명쾌하고도 뚜렷한 가르침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요5:28-29).

여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의 부활을 가르치며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것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을 가르쳤다(행24:15). 이런 말씀이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대상은 사람의 몸이지 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두 부활은 같은 시기에 일어나지 않는다(요11:24-26).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동시에 부활할 것으로 믿지만 요한계시록은 의로운 자들이 사악한 자들보다 먼저 부활하며 이 두 부류의 부활 사이에 약 1000년의 기간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계20:4-5).

죽은 자들이 서로 다른 그룹으로 시간의 간격을 두고 부활하는 것은 고전15:23-24에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에 끝이 오리니”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부활의 순서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 부활에도 세 그룹(혹은 단계)이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시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이고 의로운 자들의 부활은 '수확'이며 7년 환난기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성도들의 부활은 '이삭줍기'이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 역시 7년 환난기의 한 부분에서 부활할 것이다(사26:19; 단12:13). 지금의 사람의 몸은 하늘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 변화는 부활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고전15:42-44).

부활한 몸의 특성: 그 몸은 닫힌 문을 통과할 수 있었고 의지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었다. 그분의 몸은 살과 뼈는 가졌지만 피는 없었다(눅24:39-4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한 몸은 가시적인 형태와 모양을 지니고 살과 뼈로 된 골격을 갖출 것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말라기 4장 말씀, 마11:13-14

12-13, 엘리야가 이미 왔다

침례자 요한에게 한 것처럼 할 것이다.

벧후1:16-21의 교훈

마태복음 강해 제6과

마태복음 17장

14-16, 마귀 들린 소년

미친 증세(lunatic), 달밤에 이상한 짓을 하는 것,

마귀가 하는 일: 사람을 불 속으로 쓰러뜨리고 물에 빠지게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 탈무드,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무능하였다. 우리는 어떤가?

17-21, 마귀를 내쫓음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제자들과 유대인들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라?

마귀를 내쫓는 일(막5:13; 16:9; 행19:13-16).

행19:13-16을 보면 마귀들이 바울과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다(마28:18; 엡1:20-22).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이런 권능이 특별한 경우에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마10:8).

그런데 사라졌다(마17:18-19).

그 이유: 이 소년은 특별한 경우이다. 기도와 금식이 더해져야 했다.

조심할 것: 일반화하면 안 된다.

21절은 개역성경을 비롯한 모든 현대역본에는 없다. 없음 처리, 신약에만 총 13구절

성경은 두 종류가 있다. '없음'이 있는 성경과 '없음'이 없는 성경

이 산에게의 이 산: 아무도 모른다. 헤르몬 산이라는 전승이 있다.

마21:21에도 비슷한 말씀: 그 산은 올리브 산이다.

교훈: 어떤 경우에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

적은 믿음이 큰일을 한다. 불신이 기도의 방해물이다.

22-23, 죽음과 부활 다시 언급

마16:21, 20:17-18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24-27, 공세

공세 받는 자들: 세리들

공세를 안 내느냐?(롬13:1-4)

마22:15-22의 카이사르에게 세금 내는 것과 비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시원시원하다. 마21:25, 요한의 침례 질문과 비교
아이들(자녀들)은 면제가 된다.

나는 왕이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낼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전6:12; 10:23).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롬6:14-15).

그러나 사랑의 법 때문에(롬13:8-10)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전10:32-33).

낚시로 그 많은 고기 중에서 동전을 물고 있는 고기를 끌어올린다.

자연계를 다스리는 능력

마태복음 강해 제51과

마태복음 18장

1-6, 누가 가장 큰가? 겸손의 문제

하늘의 왕국, 여전히 메시아 왕국이다.

13장의 미스터리 왕국을 빼고는 모두 문자 그대로의 왕국이다.

여기서 배우는 두 가지 교훈: 1. 회심이 필요하다. 2. 아이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회심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3절). 아이들은 회심할 필요가 없다.

아이들의 특성: 자기를 낮춘다(시131편, 눅10:21; 롬12:16; 벰전2:1-3).

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성경을 배운다.

아이들도 성경 기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딤후3:14-16).

5절은 막10:14, 눅9:48과 같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전1:19-21).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목에 연자 맷돌을 묶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기 전에는 다 작은 자들이다(벰전2:1-3; 고전3:1-4; 히5:12-14).

바울의 경고(롬14:21-23; 고전8:11-13)

아이들의 구원

어른들의 구원: 다시 태어나야 한다(요3:3)

아이들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Understand)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Obey)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서 ‘받아들이는’(Receive) 사람은 누구든지 그 순간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아이들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들에게 지옥 정죄가 떨어질까?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원죄는 아담의 죄,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까?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 원죄는 몸의 사망을 가져온다.

지옥에 가는 것은 모두 자기의 죄 때문이다.

아이들은 롬10:8-10, 13-14처럼 할 수 없다.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세리, 창녀, 강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예수님은 아이들의 구원에도 큰 관심이 있다(마18:14).

아이들은 언제부터 하나님께 회개 보고할 책임을 질까?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accountability

신1:34-39

삼하12:23

정신박약아도 모두 구원 받는다. 낙태된 아이들도 모두 구원받는다.

마18:3

마19:13-14

7-9, 실족하게 하는 일

1-6절을 근거로 특히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

자기 점검, 자기 부인

진짜로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10-14, 잃어버린 양

1-6절의 연장, 어린아이를 작은 자로 표현하고 있다.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어리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된다(3-4), 받아들인다(5), 실족하게 한다(6),
업신여긴다(6).

영적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천사, 히1:14

11절 현대역본들 삭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다.

길 잃은 양: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가? 99명은 버려두고 1명을 찾으러 가는가?

구원받은 뒤에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이것을 구원의 문제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실족하게 하는 문제이다.

약한 자들에 대한 것이다. 1명은 약한 자, 99명은 강한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5-20, 범법하는 형제 처리

둘이서 해결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해결

교회에게 말함: 여기의 교회는 아직 신약 교회가 아니다.

디도서의 이단 처리(딤후3:10-11)

두 종류의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 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차원에서(엡4:31-32)

조건적인 용서: 교회 차원의 용서, 두 번의 기회를 갖는다.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문제
교회는 묶고 푸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베드로의 전유물이 아니다(마16:19).

17절의 이교도나 세리를 보면 이 구절 역시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19절은 기도를 뜻한다.

20절: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그들의 한 가운데 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여기의 교회는 무엇을 뜻할까?

1.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 '이교도나 세리같이'라는 것을 보면(17절)

2. 미래의 교회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 당시에 신약 교회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생긴다. 17절 등에서 미래를 뜻하는 shall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마태복음 강해 제6과

고린도전서 6장(1-11): 교회의 형제들이 법정(믿지 않는 자들)에서 고소하는 문제
가능하면 교회에서 해결한다. 이것은 특히 같은 지역 교회를 섬기는 형제들 간의 분쟁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법정에 가서는 안 되는가? No!

자동차 사고, 둘 다 그리스도인, 보험 때문에 법정에 가야 한다.

법정 맹세해야 할 때가 있다. 양자 삼는 문제

성경이나 책의 저작권, 재산권 문제, 이단 재산, 담임 목사의 횡포

교회의 권징(마18:15-20): 현대교회에서 게을리 한다.

고전5; 살후3:6-16; 딤후2:23-26; 딤후3:10 등

집에서 아이들 징계하듯 하나님의 아이들도 교회에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

교회가 권징을 할 때는 먼저 자기를 살펴보고 기도해야 한다(19절 의미 심장).

21-35, 용서하라

70*7=490번

하늘의 왕국, 여전히 메시아 왕국이다.

용서의 원리는 지금도 적용된다.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18:15-20에 따른 용서이다.

엡4:32; 골3:13

마태복음 19장

1-9, 이혼 문제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가심

무슨 이유로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신24:1-4)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한 번의 결혼을 허락한다(4-6).

명백한 예외는 사망이다(롬7:1-4).

구약시대 유대인의 경우 정혼과 결혼이 있다.

정혼한 경우 여인이 처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9절, 음행) 그 정혼한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
사람의 타락 이전에 아담과 이브가 결혼하였다. 결혼의 모델,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예표(엡5:31-32)
그런데 정상이 참작되는 이혼의 경우가 성경에 있다.

1. 배우자의 사망(롬7:1-4; 고전7:39)

2. 배우자의 음행(마19:9; 고전6:16),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마1:18-19)

3. 배우자가 버리고 떠나는 경우(고전7:15), 불신자가 신자를 버리고 떠날 때, '그러나'의 의미
남편과 아내라고 말할 때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됨을 뜻한다(5절).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한다. No 마마보이

최초의 결혼(막10:6), 개역성경 창조 시에, 흠정역 창조의 시작부터 결혼이 있었다. 재창조가 아니다.

결혼은 창조의 시작 때에 있었다. 성경에는 두 번 창조는 없었다.

10-12, 고자 문제

제자들의 대답: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것이 유대인 남성들의 생각이었다.

모두가 이 말 -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 - 을 받을 수는 없다.

Eunuch: 고자(鼓子), 다른 데서는 내시, 생식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남자

1. 태어나면서 고자, 2. 인위적으로 생식 기능을 못하게 한 자(거세 수술), 3. 왕국을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고전9:1-5)

천주교회에서는 셋째 이유를 들어 신부와 수녀를 정당화시킴, 오리젠(스스로 거세함)

그러나 결혼은 가장 처음 만들어진 규례: 교회 이전에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 특히 목사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딤후3:2; 4-5).

베드로도 결혼하였다.

결혼을 금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이다(딤후4:1-6). 특히 3절

마태복음 강해 제63과

마태복음 19장

13-15, 아이들

아이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

하늘의 왕국은 어린아이들의 것

16-19,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공관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

부자, 청년, 치리자, 공개적으로 주님께 나아옴, 순순한 동기, 듣고 배우려 함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는가?’(행16:30) 대단한 종교인,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현대 역본들: 선한 일을 묻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명령들을 지켜라.

율법의 명령들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다(롬3:20).

명령들을 언급하신 이유: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 주기 위해

무슨 명령들? 약2:10 이 청년은 외적 준수는 있었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

율법은 거울과 같다(약1:23).

20-22, 다 지켰나이다

회심 전의 바울(빌3:4-7)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갈3:24)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막10:21).

무엇이 부족합니까? 돈, 열정, 학식, 관심, 건강

한 가지가 부족하다(막10:21).

가서 팔아서 주고 다시 오라.

팔아서 줌으로써 구원 받을 사람은 없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스스로 탐심을 보기 원하신다.

탐내지 말라(출20:17). 소유가 그의 우상이었다.

슬퍼하며 돌아갔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마6:24).

23-26, 부자의 문제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막10:24 설명

재물은 믿음을 멀게 한다.

제자들이 심히 놀란다. 재물이 많은 것을 복으로 생각함. 신26-28, 제물: 순종의 복

어릴 때는 보상과 형벌로 잘하도록 유도한다. 크면 사랑으로 유도한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외적 소유는 사람의 구원의 척도가 아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아브라함은 부유했으나 믿음의 사람이었다.

바늘구멍, 진짜 구멍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신다. 그들의 상태를 살피신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지 않다(사55:5-8).

부자도 구원받는다: 삭개오, 니고데모, 마태

딤후6:10 돈을 사랑함이 문제의 근원

27-30, 부자의 문제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다시 나게 하는 때(regeneration), 예수님이 치리할 때, 천년왕국 때

땅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남, 사40

왕좌에 앉을 때, 땅에서 이루어지는 다윗의 왕좌(눅1:30-35; 사9:)

재판한다. 사사기의 재판관들처럼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된다. 20장 1-16의 비유
베드로의 잘못된 동기, 얻으려고 섬기면 문제가 생긴다.

마태복음 20장

1-7, 하늘의 왕국의 비유

집주인

포도원: 유대 민족(마21:33; 사5:1-7)

아침 6시부터 시간이 시작됨.

아침 일찍 고용된 자들: 사도 베드로 등과 같이 일찍 사도가 된 자들

3, 6, 9, 11시(오후 5시)에 고용된 자들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받는다.

이 비유는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이 비유는 보상을 말하지 않는다(고전3:8).

이 비유는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다.

8-11, 불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계약을 원했다(2절).

당자의 비유의 만아들(눅15)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주인에게 처분을 맡겼다.

12-16,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된다

처음 마지막, 마지막 처음

교훈: 내가 했으니 이만큼을 받아야 한다는 태도로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구하라.

마태복음 강해 제64과

마태복음 20장

17-19, 죽는다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 언급(마16:21; 17:22)

이번에는 십자가와 부활까지 언급함

20-23, 높은 자리를 주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 살로메(막15:40)

실질적인 왕국과 권세

이들은 무지하였다. 왕관(Crown) 이전에 십자가(Cross)가 있어야 함을 몰랐다.

잔과 침례(18-19절)

여기의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요한은 밧모 섬에 유배가 된다.

이들은 자기 뜻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

이들은 세상의 방법은 아는데 하늘의 방법은 모른다.

이들은 마귀의 방법대로 구하였다. 마귀는 왕좌를 구하다가 추방당하였다(사14, 겔28).

침례의 1차적 의미: 동일시 되는 것, 내가 잠긴 침례로……

이들은 열두 왕좌에 앉는다.

오른쪽과 왼쪽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앉는다.

24-28, 섬기러 왔다

나머지 열 제자가 분개함, 크리스천 리더십: 섬기는 자=종=집사

크게 되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보상은 말로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얻는다.

바르게 섬기면 바르게 기도한다. 교훈을 배운 살로메는 십자가까지 간다(요19:25).

29-34, 눈 먼 사람을 고침(막10:46-52, 눅18:35-43)

29절: 예루살렘으로 들어감. 아마도 십자가 처형 전의 마지막 일요일일 것이다.

마태와 마가의 진술이 다르다. 성경이 틀렸을까?

마태: 두 사람, 여리고를 떠날 때에, 마가: 한 사람 바디매오, 여리고로 들어갈 때

성경에는 두 개의 여리고가 있다.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왕상16:34), 여기서 1.5km 떨어진 곳에 로마 시대의 여리고가 있다.

마태는 유대인들의 여리고, 마가는 로마 시대의 여리고

30절: 다윗의 자손이여, 왕국을 기다리고 있다.

많은 반대: 사람이 구원받으려 하면 많은 반대가 있다.

그런데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막10:50 바디매오는 옷을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 조각이다(사64:6).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우리 눈을 열어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청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히 여기셨다.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즉시 그들의 눈이 열렸다.

구원도 이와 동일하다.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즉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랐다. 구원받으면 동일한 일이 생긴다.

마태복음 21장

1-5, 예루살렘 입성

유월절 기간, 약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사역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여기서는 공적으로 보이신다.

이유: 슥9:9 성취, 지도자들의 반대로 인한 십자가의 길 성취

이것은 문자 그대로 왕국을 열기 위한 것이다. 구약 성경을 따라 이대로 성취가 될 수도 있었다.

슥9:9 인용, 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의 딸아,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슥9:10-11 참조).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눅19:41).

마태복음 강해 제65과

마태복음 21장

6-11,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눅1:31-33; 삼하7:1-17, 사9:6-7; 11:1, 10 등)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메시아 시편 시118:26; 마23:39)

예수님의 칭찬(눅19:39-40)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왕국의 주인이 되려 했다.

이분이 누구시냐?(10절)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다(막6:3), 불신 유대인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요1:45), 빌립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 바울의 표현: 주 예수 그리스도

1. 대언자(신18:15-18), 2. 대제사장(히3:1; 4:15-16), 3. 왕(계19:16)

12-22: 이스라엘의 위선 문제

12-16, 성전 청소, 예배의 중심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

이방인들의 뜰을 물물교환장소로 바꿈. 좋은 의도가 퇴색되어 장사가 되고 많.

사고파는 자들: 희생 제물 짐승(레1)

돈 바꾸는 자들: 이방인들의 돈을 유대인들의 돈으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말3:1). '내 집'은 그분이 하나님임을 보인다.

첫째 성전 청소(요2:16)에서는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사56:7), 재림의 문맥,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다.

강도들의 소굴(렘7:11)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젓먹이들(시8:2)

종교, 정치 놀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비가 주어지지 않는다(눅10:21).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벧전2:1-4)이 더 많은 계시를 갖는다.

전체적인 교훈 요약: 어린아이들같이 순진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진리가 주어진다.

17-22,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다

있을 있는데 열매는 없다.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여름 무화과는 7월에 가야 익는다. 겨울 무화과가 발견될 수도 있다.

있이 3-4월에 발견되면 이전 가을에 익지 않은 무화과가 겨울을 거치면서 익은 채 있게 된다.

초점: 있이 있는데 열매는 없다. 고백은 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위는 없다(약2:26).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는 행위: 죽은 행위(히9:14, 마7:21-23), 배설물(빌3:8), 누더기(사64:)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부에서 밖으로 하는 일 혹은 행위만 수용된다.

누가복음 13:6-9,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3년을 더 기다림, 예수님의 공생애 3년과 비슷함

마가복음을 보면 '무화과나무가 죽은 일'이 다음 날 나온다(막11:13-14; 20).

21, 22: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23-27, 예수님의 권위 의심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맡겨졌으므로 이들은 물을 자격이 있다: 무슨 권위

그런데 이들은 매우 무지하였다. 충분한 기간: 3년간의 공생애, 그래도 안 믿는다.

그래서 주님은 3년 전의 요한의 침례를 거론한다. 이들은 요한을 믿지 않고 그를 죽게 만들었다.

요한을 믿지 않으면 나도 못 믿는다. 둘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28-32, 큰아들, 작은 아들

포도원: 이스라엘(사5), 두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민초들(세리, 창녀 등)

침례자 요한이 오자 다른 반응이 나타남

종교지도자들은 관심은 보이는데 회개하지 않음, 민초들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눅7:29-30).
이들의 두 가지 죄: 회개하지 않음, 죄인들의 변화를 보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음
요한을 거부한 것은 곧 아버지를 거부한 것이다.

이유: 종교 지도자들(요12:43)

현대역분들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뒤바꿈

33-46, 포도원의 일꾼들 비유

여전히 포도원 비유(사5:1-7)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함

영적 물질적 복을 줌

종들인 대언자들을 보냄, 그들을 학대함

군대를 보내는 대신 아들을 보내기로 함(히1:1-2)

그런데 그들이 아들을 포도원에서 내쫓고 죽임, 그분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음(요1:11-1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물음(40), 그들이 스스로를 정죄함

마태복음 강해 제66과

마태복음 21장

33-46, 포도원의 일꾼들 비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었다(사8:14-15; 롬9:32-33; 고전1:23). 그들은 그분을 죽였으나 그분은 부활해서 교회에게 기초석이 되었다(엡2:20-22; 벰전2:4-5) 그리고 그분은 재림 때에 내려치는 돌로 오셔서 민족들을 부수고 왕국을 세우신다(단2:34). 이스라엘은 그분을 배척한 건축자들이다(행4:11).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는다. '너희'는 이스라엘 다른 민족, 교회(벰전2:9),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은 산산조각 부서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아직 교회가 없다.

마태복음 22장

1-14, 잔치로 초대받은 자들의 비유

아들과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

일반적인 해석: 2-7,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멸망

8-10, 여기저기에서 온 손님들이 결혼식에 가득하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왕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신부이다.

초대받은 자들(guests 복수)은 신부가 아니다. 신부는 하나밖에 없고 신부는 초대받지 않는다.

또한 11-13절의 문제: 결혼식에 왔는데 옷이 없어서 추방당하는 사람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구원을 잃은 자'라고 말한다.

Landmark Baptist들은 자기들만이 신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으나 신부는 아니자라고 말한다. 이것도 틀린다. 이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13절).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이 부분이 21:22-46의 연장선상에 있는 비유 즉 이스라엘과 상관있는 비유로 보는 것이다. 하늘의 왕국 이야기지 교회 이야기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 대언자들을 보냈으나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들이 죽었으나(21:39) 지금은 살아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재림 전의 어린양의 혼인 만찬과 연결해서 볼 사건이며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다.

3-7절: 이스라엘의 불순종,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8-15절은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이 환난기의 끝부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린양의 혼인 만찬이 하늘에서 있고 어느 면에서 1000년 왕국은 결혼 잔치의 기간

여기의 손님들은 환난기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다.

그러면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누구인가?

그 당시 결혼에서 동방의 관례; 누구나 혼주가 주는 예복을 입어야만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다. 예복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였다는 뜻이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바람직하다(마24:13).

다시 말해 9-10절은 환난기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이고

11-14절은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받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영적인 적용: 복음은 하늘 잔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잔치에 사람들을 부르신다.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5).

메시지를 들고 가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죽이는 자들이 있다(6).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7).

복음의 메시지: 누구든지 혼인 잔치에 오라.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들어간다. 그런데 자기 의복을 입은 사람은 안 된다.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한 의의 옷을 입는다.

15-22,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십자가 처형 바로 전이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그분의 말로 그분을 함정에 넣으려 한다(15).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함정에 빠진다.

아침하는 말로 시작한다(16).

총독의 권세와 권위에 그분을 넘겨주려고(눅20:20) 세금 문제를 다룬다.

세금 문제는 폭탄과 같다.

세금을 내도 된다고 하면 신17:14-20을 범하게 된다.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나온 왕을 섬겨야 한다.

당연히 카이사르는 유대인이 아니다.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가 성립된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악함을 인지하셨다(막12:15 위선, 눅20:23 간교함)

그리고는 오히려 그들을 혼동 속에 넣으신다.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교회와 국가(정치)의 분리

이 둘을 혼합하면 문제가 된다. 중세의 국가 교회

마태복음 강해 제6과

마태복음 22장

23-33,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행23:7-9), 이들은 모세오경만 믿었다.

현대인들은 대개 부활을 부인한다.

부활: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중 하나(단12:2; 13; 마27:52; 고전15:52; 계20:5-6)

기독교 믿음의 핵심, 행1:3 절대확실한 증거

구약 시대의 율법, 형이 아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 형의 이름을 위해 아들을 낳게 함(신25:5-10), 일곱 형제, 모두 한 여인을 취함

이들이 부활하면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너희가 성경기록들을 알지 못한다(29): 문제의 핵심, 그래서 크게 잘못하고 있다(막12:27).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할 것에 대해 가정하고 문제를 일으켜 사람을 괴롭게 함

부활 때에는 그들이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으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천사는 두 종류가 있다. (1)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2)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유6), 창6의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였다. 거인을 출산하였다.

마22:30은 천사가 결혼하지 않음을 나타내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결혼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천사는 성이 없다는 말은 틀리다. 천사는 항상 남성이다(창6; 창18:1, 눅24:4, 23).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이 반드시 부활한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약 1000년의 분리 기간이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 있다(눅20:37-38).

바울의 고백: 벨릴스 앞에서 행24:14-15, 아그립바 앞에서 행26:6-8

그들은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다: 무지하였다.

34-40, 율법사의 시험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으로 기록되어 있음(막12:28).

예수님께서서는 헤롯 당원들은 공세 문제로, 사두개인들을 부활 문제로, 바리새인들은 침례 문제로(21:45) 잠잠하게 하시고 드디어 서기관 율법사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그는 동경심과 더불어 시험하려는 이중 의도로 나온다.

율법사: 총 613개의 명령(긍정 248개, 부정 365개), 중요한 것, 사소한 것을 분류, 중요한 것만 지키려 함. 그러다 보니 어느 것이 가장 큰 명령이냐를 두고 늘 논쟁함

율법의 의미를 모르(약2:10)

첫째 명령(신6:5): 하나님을 향한 것, 둘째 명령(레19:18): 사람을 향한 것

이 두 명령은 둘 판에 쓰인 십계명의 율법과 마음 판에 쓰인(롬2:14-15) 도덕적인 법을 망라한다.

이 두 개에 달려 있다(40절): 모세5경의 요약이다.

바울은 롬13:8-10에서 이 두 명령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용됨을 보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보다 먼저이다.

막12:32-34 추가

41-46,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아들)이냐? 대단히 중요한 질문

목수 요셉의 아들: 희망이 없다. 죽고 만다.

다윗의 자손(아들):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윗의 질문이 있다. 어떻게 자기 아들(자손)을 주라고 할

수 있느냐?(시110:1).

주(여호와)께서 내 주(아도나이)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옆에 앉는 사람은 메시아(내 주)이다. 그러면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문제: 고난 받는 메시아, 통치하는 메시아, 어떻게 해결할까?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한 메시아, 초림과 재림의 메시아를 인지하지 못했다.

여호와는 **주**(큐리오스)로 번역해야 한다: 예수님의 실제 번역 예

시110편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있다.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마태복음 강해 제6과

마태복음 23장

1-7,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 책망

모세의 자리: 회당에 있는 판단하는 자리

그들이 하라고 하는 것을 지켜라: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그들은 말만 하고 하지는 않는다: 위선자들이다.

성구함: 율법의 말씀들을 담은 작은 양피지 두루마리.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마와 왼팔에 착용하였는데 이것은 “그것을 네 손 위의 표적과 네 눈 사이의 기념물로 삼으라.”(출13:9, 16)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결과이다. 팔에 매는 것은 양피지 두루마리였으며 그들은 이것을 둘둘 말아 검은색 소가죽 통에 넣고 이런 가죽 성구함을 왼손의 팔이 접히는 부분에 묶어서 착용하였다.

유대인들은 네 개의 양피지 조각을 취하고 각각의 조각에 특별 잉크로 네 구절을 적었다: 출13:2-10; 13:11-16; 신6:4-9; 6:13-21. 이 네 구절

을 적은 뒤 네 조각을 모아 그 위에 히브리 알파벳 ‘썬’을 쓰고 두 개의 줄이 달린 딱딱한 소가죽을 그 위에 놓았다. 그 뒤에 그들은 이 네모난 가죽 성구함을 이마에 두고 끈으로 머리에 묶었는데 이것은 머리에 두는 ‘테필라’라 불렸다.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의 기도 시간에 이것을 머리에 두었다.

종교적인 행위(5-7):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고 하는 것

종교인들의 특징은 유대교, 천주교, 불교 할 것 없이 비슷하다.

지금 식으로는 가운을 걸치고 로만 쥘러를 입는 것, 노회, 총회 등에서 회장을 하려고 애쓰는 것

8-12, 한 선생, 한 아버지, 한 지도자

사람을 랍비(유대교), 지도자(master, 프리메이슨), 아버지(천주교)라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시111:9, 요17:11, No Reverend

12절을 대개 잊고 산다.

13-15,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저주

이제부터 “화가 있을지어다!”가 8회나 나온다(13, 14, 15, 16, 23, 25, 27, 29).

13절: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이들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한다.

이들은 먼저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대적하였고 이로써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였다.

지도자들을 잘 만나야 한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

지도자들을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마7:22와 같이 되지 않도록).

14절: 과부 착취, 겉치레로 기도, 우리는 어떤가? ★★★

15절: 선교하려고 애를 쓰는데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우리의 선교 형편은 어떤가?

주님께서 무섭게 이들을 저주하신다.

16-22, 눈먼 안내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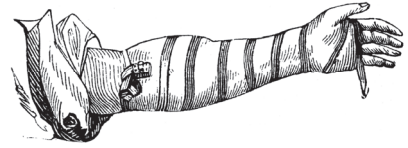
성전과 금, 이들은 돈을 탐낸다(눅16:14). 우리의 예배당 문화, 과도한 성전 건축 현금

제단과 예물, 예물을 탐낸다(빌3:19).

23-28, 십일조, 모기와 낙타

채소의 십일조(레27:30-32; 말3:10; 느10:38). 돈이 아니라 채소와 짐승을 가져오는 것이다. storehouse(창고)

바리새인들은 채소와 같이 작은 것에서도 십일조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데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는 소홀히 여겼다: 판단의 공의, 긍휼, 믿음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

24절: 큰 것은 무시하고 적은 것에는 바짝 긴장함

25-26절: 이들의 문제, 중요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덜 중요한 것은 소중히 여김

27절: 회칠한 돌무덤,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함

29-33, 대언자들의 자손

이 같은 종교 행위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들의 전통

하나님이 보내는 대언자들의 피를 흘림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적인 문제

32절: 저주의 말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문제(33절): 종교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판결

34,35, 이들의 핍박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등

눅11:50-51, 모든 대언자들의 피, 아벨(창4)부터 사가랴(대하24:20-22): 요아스, 여호야다, 스가랴
예수님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쓰셨다. 이 성경의 배열은 지금 성경과 다르다.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하이다.

예수님이 70인역을 쓰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마태복음 강해 제69과

마태복음 23장

36-39,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

거의 우실 상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요5:40). 우리는 어떤가? ★★★

너희 집의 '집': 이스라엘의 집 혹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존중히 여기는 이 성전도 내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황폐함 그 자체이다. 그리고는 성전을 떠나신다(24:1).

3년 반의 공생애 마감, 재림하실 것 예고

유대인들은 야곱의 고난의 때(단12:1; 렘30:7)를 당할 때에야 비로소 민족적으로 회심하고(사26:12-21; 스12:10-13:1)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롬11:26-27; 히8:8-12).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시118:26)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유대인들의 고난의 때를 이야기한다.

그분의 재림 때에는 그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다.

AD 70년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성전(집)은 지어지지 못한다.

지금도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1-5, 세상 끝의 표적

24장은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장 중의 하나이다.

많은 이들이 이 구절들을 현 시대나 AD 70년 이전의 상황으로 이해한다.

1절: 성전에서 나가신다. 집이 버림받아 황폐하게 된다(23:38 비교).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 외적인 모양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 있었다.

막13:1과 3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물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은밀히 여쭙었다.

2절: AD 70년경의 성전의 몰락, 금을 찾으려고 돌을 모두 뒤집어 놓음

3절은 3가지 질문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표준 해석 방법

(1)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4-14절)

(2)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15-22)

(3) 세상 끝의 표적(23-25)

그런데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13절: 끝까지 건디는 자, 여기의 끝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끝이 아니다.

여기의 대부분은 AD70년에 일어났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성취될 것이다.

4절: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재림의 첫째 표적(벨후2:1-4; 딤후4:1-5).

5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벨후2:1-2).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아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속아 넘어간다.

6-11,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은 AD70년경의 상황이 아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여기의 끝은 환난기의 끝이다.

“민족이 민족을” 등도 말세의 상황이다.

9-12절에는 ‘많은’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온다.

9절은 사도행전 초반부에 적용될 수 있지만 역시 궁극적으로는 말세에 적용된다.

여기의 너희는 유대인들이다. 마10:23과 비교

12-20, 대언자 다니엘

13절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어떤 때의 끝이지 개인 삶의 끝이 아니다(24:14).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다(24:3).

여기는 팔레스타인 땅이다(24:16).

청중은 유대인이다(24:1-3).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24:15-20).

이들은 성전 예배를 드린다(24:15, 살후2:4)

여기에는 영적인 유대인이 하나도 없다.

여기의 끝이 나온 다음에 재림이 임하지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마24:14; 21; 29).

14절은 분명하게 13절의 끝이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는 세상의 끝임을 보여 준다.

여기는 분명하게 왕국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다(3:2; 4:17; 4:23; 8:12; 9:35; 10:7 등).

14절 왕국의 복음이 민족들에게 증거로 선포된다. 이것은 현재 선교사들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다르다.

15절: 단9:27, 11:31 최종적인 가증한 것, 실제 성전이 선다(계11:1-4; 살후2:1-6)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살후2:4)

그는 경배의 대상이다(계13).

그는 희생물을 원할 것이다(단8, 11 등)

이 희생물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계20:4)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 말세의 유대인들(24:29)

산들로 도망한다(계12:1-15). 유대의 산들

지붕에 있는 자, 들에 있는 자, 아이 밴 자, 젖먹이는 자: 문자 그대로

20절: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 유대의 추운 겨울,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

마태복음 강해 제7과

21-25, 큰 환난

21절: 큰 환난(계7:14)과 일반 환난은 다르다(행14:22; 살후1:5).

야곱의 고난의 때(렘30:7), 단12:1의 고난의 때, 세상의 창건 이래로 없었던 때, 습13:8-9

이것은 AD 70년경의 파멸이 아니다: 이후에도 없으리라.(21절)

22절: 선택받은 자들, 유대인들을 말한다(31절 참조).

날들이 짧아진다: 마땅한 해석이 없다(계8:12, 넷째 천사의 나팔소리).

23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의 표적, 말세에는 은사주의의 표적 운동이 성행한다.

25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

26-31, 예수님의 재림

26절: 나가지 말고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

27절: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오신다.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러므로 재림은 사망이 아니고 오순절도 아니며, 휴거도 아니고, AD70년경의 예루살렘 멸망도 아니다.

재림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때의 끝이지 개인 삶의 끝이 아니다(24:14).

28절: 눅17:34-37, AD70년경의 멸망이 아니다.

아마겟돈 전쟁(계16:14; 19:15-20)

29절: 대단히 중요하다.

1-28절이 AD70년에 이루어졌으면 예수님은 1940년 전에 재림했어야 한다.

이것은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이며 세상 끝의 표적이다(24:3).

해가 어두워지고, 일월성신의 변화(계6:12-13; 8:12; 욥2:10, 행2:20)

사람의 아들의 표적,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본다(행1:9-11).

31절의 큰 나팔소리는 계시록 11:15의 일곱째 나팔소리로 볼 수 있다.

32절: 그의 선택받은 자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마13:36-43의 가라지 비유에서는 천사들이 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여기서는 천사들이 선택받은 자들을 모은다.

32-35, 무화과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로 보는 경향이 있다(눅21:29).

성경에서는 왕국이 나무로 표현된 곳이 많이 있다.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낸다: 이스라엘의 부활(1948년)로 보는 견해가 있다.

33절: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때 즉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34절: 이 세대를 1948년부터 시작하는 세대로 보면 문제가 생긴다.

이 세대는 14-28절의 모든 일을 보는 세대이다(33절 참조).

35절: 말씀 보존의 약속

36-41, 노아의 날과 무화과나무의 비유

재림의 날과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24:22).

재림의 때는 노아의 시대와 비슷하다. 창세기 6장의 상황(5, 11-13)

두 사람, 두 여자(눅17:34-37). 휴거가 아니다. 유대인들의 학살(계19:17-18), 남은 자들은 왕국으로

42-44,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눅12:36,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온다.

이것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지만 우리도 휴거의 때를 모르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45-51,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

지혜로운 종, 끝까지 견디는 자(24:13)

마태복음 강해 제71과

마태복음 25장

1-13, 열 처녀 비유, 지혜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

24-25장은 세상 끝의 일들, 주님이 오실 때의 일들을 다룬다.

하늘의 왕국에 대한 11번째 비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것을 사용하여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25장은 여전히 올리브 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24장이 끝이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유대인)는 구원을 받는다(13절). 깨어 있으라(25:13).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1. 이들은 처녀들이다. 한 처녀가 아니다.
2. 이들은 결혼하려고 가지 않는다. 누구를 만나려고 나간다.
3. 이들은 이미 결혼한 사람을 맞으러 나간다(눅12:36).
4. 모두 기름이 있었으나 몇몇 사람들은 기름을 다 썼다.
5. 이것은 여전히 유대인 배경이다.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으로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여기의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소멸될 수 있는가? 또 돈으로 성령님을 살 수 있는가(9절)

1. 처녀들은 환난기에 등장한다(계14:1-6, 4절).
2. 신부인 교회는 언제나 단수의 처녀로 나타난다(고후11:1-3).
3. 환난기의 처녀들은 신부를 따라다닌다(시45:13-14). 여기서는 환난기 끝에 따라다닌다.

교훈: 깨어 있으라(44절). 끝까지 견디라(24:13).

14-30, 달란트 비유, 무익한 종과 유익한 종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하늘의 왕국의 비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13절).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5 달란트 받은 자와 2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칭찬이 동일하다(21, 23절).

31-46, 양과 염소 비유

많은 교회들의 해석 방법

왕은 최종 심판대의 예수님

양: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

염소: 악한 행위로 지옥에 갈 자들

이 내 형제들: 선한 행위를 받는 어떤 사람

그러므로 옆의 이웃을 어떻게 대우했는가가 구원의 기초가 된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

1. 여기의 심판은 최종 심판 즉 크고 흰 왕좌 심판(계20:11-12)이 아니다.
2. 여기의 양들은 이 시대의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고전3:6-14)
3. 염소들의 죄는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이다(42-45절).
4. 염소들은 연옥이 아니라 곧바로 지옥으로 간다(41절). 그곳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한 곳이다.
5. 염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섬기지 않음으로 지옥 불에 들어간다.
6. 그리스도 앞에는 실제로 양과 염소와 이 내 형제들의 세 부류가 있다.
7. 여기의 형제들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 형제들이다(마28:10; 마23:8).
8. 그러므로 양들은 유대인 형제들을 잘 대우한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염소들은 그 반대이다.
9. 31절의 영광의 왕좌는 다윗의 왕좌이다(마19:28; 눅1:32).
10. 이것은 요엘서 3장의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과 동일하다(욥3:1-2, 12)



11.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과 양들로 분류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34절).

24, 25장의 결론

1.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다. 이스라엘은 결국 메시아를 맞아들인다.
2. 구약의 왕국이 성취된다. 3.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4. 우리는 표적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의 정조는 보고 산다. 5.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마태복음 강해 제7과

마태복음 26장

1-5,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주범: 제사장들(14절 등 참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수요일 오전 9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수요일 저녁 6시

1월 14일이 유월절 어린양을 잡는 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양(요1:29)

마12:40에 의거하여 세 낮과 세 밤이 필요하다. 토요일 저녁 6시경에 부활하신다.

6-13, 베다니 나병환 자 시몬의 집, 마리아의 향유 사건

막14:3-9, 요12:1-8에 같은 것에 대한 기록이 있다.

요12:1-8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이루어진 일(유월절 엿새 전에)

이 셋을 정리하면 마태와 마가는 시간 순서대로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고 중요하므로 괄호처럼 넣었다.

이 향유 사건은 누가복음 7:36-50에 나오는 향유 사건과 비슷하다. 초대 한 사람의 이름도 시몬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적어도 2년 전 쯤에 일어난 사건이다.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기록함, 두 군데 모두 부었을 것으로 생각됨.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의 불평(26:8), 요한은 가롯 유다의 불평(12:4)

마태는 비싸게 팔아, 마가와 요한은 300 데나리온에 팔아, 데나리온: 하루 임금

유다의 관심사는 돈이었다.

그러나 여인(마리아)은 왕이신 예수님께 최대의 예의를 갖추어 드리기 원했다.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나를 장사지내기 위해 이 일을 하였다.”

1.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심지어 가난한 형제들을 찾아보고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2. 예수님은 경배 받으실 분이다.
3.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는 희생이 필요하다.
4.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탄생보다 훨씬 중요하다. 죽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다.
5.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냄새가 집안에 퍼짐).
6.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참된 봉사와 헌신을 비난한다.

26:13은 말씀의 보존을 뜻한다. 성경이 번역됨을 뜻한다.

14-16, 가롯 유다의 배신

막14:10-11

가롯 유다: Judas Iscariot, ‘Keriot’(케리옷) 지방에서 온 유다라는 뜻이다.

케리옷은 요르단 동쪽 시리아 지방, 유다는 그 지방 출신의 반(半)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마귀라고 하셨다(요6:70-71).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15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딤후6:10).

유다: 돈, 바리새인들: 시기(27:18), 빌라도: 백성의 두려움(27:24)

유다는 은 서른 개를 받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대언을 성취함(슥11:13).

은 삼십 세겔은 남종이나 여종의 몸 값이다(출21:32).

17-20, 무교절의 첫날

막14:1, 눅22:1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구분이 없어짐.

무교절의 첫날, 저녁이 되매(20절), 화요일이 다 지나고 이제 수요일이 시작됨(저녁 6시가 넘음).

수요일에 반드시 어린양을 죽여야 함(눅22:7; 막14:12).

21-25, 유월절 식사

그들이 먹을 때에(21, 26절)라는 것을 보면 가롯 유다도 식사와 주의 만찬에 참여하였다(요13:2).

모두가 “그게 나입니까?”라고 물었는데(22절) 요한은 “그게 누구니까?”라고 묻는다(요13:25).

가롯 유다는 또한 “선생님이여(Master)”라고 덧붙인다(마26:49; 막13:1 등). 그는 주님이라는 말 대신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전12:3).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진실을 말하였다.’(25절)

26-30, 주의 만찬 제정

로마 카톨릭 교회의 화체설: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복할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우리의 믿음: 빵과 포도즙은 예수님의 찢긴 살과 흘린 피를 상징한다. 피는 곧 생명이다(창9:4; 레17:14).
그분의 생명을 나눈다.

천주교회에서는 특히 요한복음 6장 56, 58 등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 63절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여기서도 잔을 집으시고 마시라고 하신다. 그러면 잔이 그분의 피인가? No.

예수님의 몸이 12제자의 수대로 12개로 쪼개졌는가? No.

포도주인가 포도 주스인가? 포도주는 누룩으로 발효시킨 것

그러나 여기서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는 것, 사65:8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을 찾음.

신32:14, 새 포도즙은 곧 순수한 피이다.

여기서 제자들은 빵과 잔에 다 참여하였다. 천주교회는 빵만 준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이심을 보이는 것이다(고전11:26).

새 상속 언약(New Testament), 히9:16-17, 신약은 엄밀히 말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이다.

개역성경 마26:28, 막14:24도 같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강해 제3과

마태복음 26장

주의 만찬, 성만찬, 미사

카톨릭의 일곱 성사: 네이버 지식 사전

카톨릭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는 종교의식.

(1) 미신자에게 베푸는 성세성사(聖洗聖事), (2) 신자에게 성령을 내려주고 세속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견진성사(堅振聖事), (3) 사람에게 영적 양식으로 빵과 포도주 형태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성체성사(聖體聖事), (4) 죄인의 잃은 생명과 약해진 은총을 회복하게 하는 고백성사(告白聖事), (5) 중병으로 신음하는 신자와 죽음에 임한 신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병자성사(病者聖事), (6) 교회의 사제로 성사와 미사를 집전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직능을 수여하는 신품성사(神品聖事), (7) 혼인생활로 성스러운 가정을 꾸미고 자녀의 교회적 양육의 은총을 주는 혼인성사(婚姻聖事)를 말한다.

카톨릭의 미사는 피 없는 제사를 끊임 없이 드리는 것이다. 단번 속죄 부인(히10:11-14)

천주교인들의 특징:

1. 성경을 최종권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교회를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다.
3. 그래서 로마의 수장이 성경을 해석한다.
4. 로마의 교황은 성경과 반대로 해석한다.
5. 천주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6. 이렇게 되면 그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7.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요일5:13; 딤후1:12; 요5:24, 살전5:23-24).
8. 결국 오랜 교회 생활 끝에 멸망으로 들어간다.

open communion, closed communion, 참가자들의 연령 제한, 주의 만찬

그들이 노래를 한 곡 부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시편 113-114편을 노래하고 끝난 뒤에 115-118편을 노래하였다.

31-35, 제자들의 부인

31절: 기록된바(슌13:7), 이 경고는 귀먹은 자들에게 떨어졌다.

성경 기록은 그것에 대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발람, 파라오, 가롯 유다

33-35절, 제자들은 결국 슌13:7은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12제자가 모두 베드로처럼 대답하였다(35절). 다만 요한만 용감하게 나아갔다.

32절: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요21:1-8; 막16:7). 이들은 여전히 이해를 못한다.

베드로의 항변(33절), 34절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성경 말씀의 예언
베드로는 어부로서 고기 잡으러 갈 것을 미리 아시고(요21:1-5)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심.

36-46, 겻세마네

겻세마네: 뜻 올리브기름 짜는 기계, 예수님의 생명이 기도를 통해 짜지는 곳(눅22:43-44).

진정한 기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39절) ★★★

고독한 기도, 순종하는 기도, 성경적인 기도: 아버지께

여기의 잔은 무엇인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No.

1. 예수님은 어디서 죽는가에 대해 염려하실 필요가 없으셨다.
2.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걱정하지 않으셨다(히12:2; 골2:15).
3. 그분은 육체적 죽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잔을 마시는 것을 피하려 하셨다(39절).
4.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십자가에서 죄로 변한 예수님에게 부여된 진노(고후5:21)
5. 이 기도는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였다(요18:11).

38절: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계20장의 둘째 사망은 곧 혼의 사망이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그것의 맛을 보셨다.
영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도다: 두 본성(롬8:3,13; 7:24, 25 등).

41절: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마6:13의 기도와 비슷함).

깨어 있으라(watch): 행동, 생각, 친구, 마음

이제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셨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갈보리 다음으로 중요한 곳이 겟세마네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이기시고 그만두려는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승리하셨다.

47-52, 예수님의 체포

48-50절 바로 전에 요18:4-9절이 있다.

무기를 가진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내가 그다.” I am he(요18:5). 이텔릭

이들이 쓰러진 뒤에 예수님이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심(요18:7).

가롯 유다는 자기가 하는 일과 결과를 다 알면서도 그것이 죄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한다.

마태복음 강해 제74과

마태복음 26장

47-52, 예수님의 체포

48-50절 바로 전에 요18:4-9절이 있다.

무기를 가진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내가 그다.” I am he(요18:5). 이텔릭

이들이 쓰러진 뒤에 예수님이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심(요18:7).

가롯 유다는 자기가 하는 일과 결과를 다 알면서도 그것이 죄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한다.

베드로가 마르코의 귀를 내려친다(51절). 귀를 붙이시는 기적을 이루심.

이것도 참으라(눅22:51),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라(눅22:52-53)

지금은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다(53절).

그들이 그분을 취하자 모두 도망가 버렸다.

마가: 막14:51-52, 알몸 청년

53-58: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순순히 응하셨다(비교, 마16:22).

12군단의 천사들, 12,000여 명

왕하19:35 천사 하나가 185000명을 죽임

55절, 강도를 치듯 나옴: 그리고는 결국 두 명의 강도 사이에서 처형시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붙잡지 않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58절, 베드로는 몰래 멀리서 그분의 뒤를 쫓음

59-68, 대제사장의 심문

거짓 증인을 구하나 증언이 일치하지 않음(막14:56).

막14:57, 58의 두 증인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음.

막14:58절,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요2:18-22)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하심(사53:7).

그들은 무죄한 분을 잡아들임

왜 대답하지 않느냐고 다그치자 주님이 주신 말씀: 그분의 가르침: 요18:20, 21(이 말씀이 모두 사실임).

그들이 내 가르침을 잘 안다.

직무 수행자가 그분을 내려침(요18:22-23).

대제사장이 직접 맹세하게 함(마26:63)

막14:61: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대답: 그렇다(막14:62). I am.

I AM(출3:14).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곧 눈치 챘다(요10:30).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며 세상의 구원자이시다(딤후3:16; 요3:16).

마26:64, 내가 말하였느니라.

64절: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채림(마24:30,31)

65, 66절: 신성모독

67-68: 예수님을 때림,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막14:65), 결과 사52:14, 53:7, 뱀전2:21-23

요14:30: 마귀의 진노, 아무것도 취하지 못함, 사50:7-8, 골2:15

69-75,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베드로는 대제사장 관저의 바깥뜰에서 불을 쬐(막14:54).

베드로의 행적: 도망감, 예수님을 끌고 갈 때까지 기다림, 안나스, 가야바(요18:13),

요한은 제사장의 관저 안으로 들어감(요18:15), 고소당하는 것을 목격함, 십자가에까지 감(요19:26),

무덤에도 감(요20:2-10).

베드로는 원래 겁쟁이가 아님.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쫓아옴.

요18:15,16을 보면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감

69절: 그때에 한 소녀가 물음, 베드로의 1차 부인, 베드로는 마26:31, 34을 잊었다.
 71절: 현관에서 다른 하녀가 물음, 이번에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함(72절).
 73절: 네 말투는 갈릴리 말투(막14:70). 내가 너를 동산에서 보았다(요18:26), 말고의 친족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함. 수탉이 울. 눅22:61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를 바라봄.
 75절: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
 구원받은 성도의 제자의 길 실패 ★★★

마태복음 27장

1-10: 가롯 유다의 죽음

예수님의 처형 바로 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7절)와 유다(8절)의 이야기를 기술함.

1, 2절: 아침이 될 때까지의 자세한 일들은 눅23, 요18, 19장에 기록되어 있다.

3-8절: 유다의 자살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정죄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은 듯하다(3, 4절).

유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오래 전에 알았다(마12:14; 21:39, 45; 26:15 등).

어쩌면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받기 전에 기적을 행하고 왕국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른다.

어쨌든 그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고 무죄한 피를 손에 묻혔다.

그는 뜻을 돌이켰다(영어 repented himself).

고후7:9-11, 베드로의 회개와 유다의 회개

베드로: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 겸손함(요21:15),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함.

내가 죄를 지었노라: 파라오, 발람, 다윗, 탕자

두 종류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한 것(유다, 종교 행위), 다른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것(베드로): 주님께로 이끈다.

무죄한 피: 유다 자신의 말, 이 피는 하나님의 피(행20:28)

유다가 은 서른 개를 선전에 던짐(눅11:13).

유다의 자살(행1:15-20).

9-10절: 대언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다. 눅11:13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과 그가 외친 말씀이 있다. 여기는 후자이다(눅7:7).

마태복음 강해 제75과

마태복음 27장

11-18: 빌라도와 바라바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셨다.

그때에 비난의 소리가 들렸다(눅23:1-5).

민족을 그릇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고쳐 주었다(마8-11).

공세 내는 것을 금하고, No(마17:24-27; 롬13:1-7)

백성을 선동하고, No, 바리새인들이 함

빌라도의 말과 백성의 대답과 빌라도의 대답(요18:29-32)

32절: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행2:23)

33-38절: 3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은'(now)이다. 이것은 나중에 있음을 의미함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는 왕국의 왕임을 시인함.

진리가 무엇이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요17:17). 예수님 자신이다(요14:6)

빌라도는 세 번이나 그분에게 죄가 없음을 선언함(요18:38; 19:4, 6)

이때에 누가복음이 등장한다(눅23:5-7). 헤롯의 관할

눅23:9-12 헤롯의 질문, 다시 돌려보냄

이제야 비로소 마27:15로 돌아온다(요18:39, 40).

바라바는 강도이며 폭동을 일으킨 자였다(눅23:19).

빌라도는 어찌 하든지 이 곤경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드디어 마지막 제안을 한다(눅23:14-16).

19-23: 빌라도의 아내, 예수님과 바라바

빌라도는 엄청난 곤경에 빠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피를 보이면 그들이 예수님을 놓아 달라고 요구할 줄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수제사장들이 백성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막15:11, 마27:20).

이에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잘못을 찾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고백한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나오신다(요19:5).

26-30: 바라바를 좋아주고 예수님을 처형시킴

헤롯이 빌라도에게 돌려보낼 때 자주색 옷을 입혔다(눅23:11).

로마 군인들이 그 옷을 벗겼다.

그리고 가시관을 씌웠다. 여기의 관은 diadem(왕의 관)이 아니라 stephanos(승리의 관)이다.

마귀와 예수님의 대결

로마 병정들: 세상의 권세 잡은 통치자의 하수인들(엡2:1-3; 6:10-12).

이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대결을 벌인다(사50:5-9; 시2).

빌라도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피를 보이면 그들이 예수님을 놓아 달라고 요구할 줄로 생각하였다.

빌라도는 마27:22의 말만 하고 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영원의 문제.

가시관의 가시는 2-3cm 길이, 갈대로 쳐서 가시로 이마를 눌러야 고정된다.

29절의 조롱: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예행 연습함(눅1:30-33; 마2:2).

채찍: 뼈와 부싯돌이 달려 있어서 살을 때어 낸다. 39회(고후11:24; 갈6:17).

등에서 살 조각이 떨어지고 파랗게 멍이 들며 피가 흐른다.

그런데 그분은 입을 열지 않는다(사53:5,7).

마태복음 강해 제76과

마태복음 27장

26-30: 바라바를 좋아주고 예수님을 처형시킴

그리고는 마귀를 이기신다(골2:15).

채찍에 맞음으로, 사53:5, 뱀전2:24

하나님의 어린양(요1:29).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백성과 빌라도는 말을 잃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등에서 살점이 떨어지고 온 몸이 축 처진 채 말 없이 예수님이 서 계신다.

사52:14, 사53:4

빌라도의 말: 이 사람을 보라(요19:5). 이제 끝이다. 빌라도는 이분이 범상치 않음을 보았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반대함(요19:6). “너희가 처형시켜라”: 빌라도의 말

백성의 말이 이김(눅23:23).

요19:7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요5:17-18, 아들은 곧 아버지와 동등한 것을 뜻한다.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함(19:8).

그런데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함(마27:19; 요18:8).

그는 스스로 세 번이나 그분이 무죄라고 했다. 아내까지 관여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는다.

1. 그는 초자연적인 인물이다. 2. 아내가 꿈을 꾸었다.

빌라도는 말 그대로 정신이 없었다.

요19:9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미 갈릴리 사람임을 알고 있다.

빌라도는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빛을 묵살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더 죽을 지경이다.

빌라도의 자기 과시 요19:10

예수님의 대답 요19:11

죄가 있고 또 더 큰 죄(Sin)가 있다. 지옥에서의 형벌도 등급이 있다(마11:20-23). 천국에서의 보상도 등급이 있다(계22:12).

죄가 가장 큰 문제이다. 어떤 사상가나 철학자도 죄를 다루지 않는다. 기독교만 죄를 다룬다.

죄(Sin): 요3:16-20

모든 불의가 죄다(요일5:17).

모든 치리자는 하나님이 임명하신다(롬13:1-5).

이것을 깨닫고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주려고 애를 쓴다(요19:12).

그런데 백성이 반대한다(요19:12).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빌라도의 딜레마: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행4:19).

요일2:14-17의 문제

요19:13-15: 주사위는 던져졌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내가 너희 왕을 처형하라?”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 다른 왕이 없습니다.”

신17:14-15 부인, 출19:5-6의 언약 부인

돈이 문제다(딤후6:10). 로마가 돈 둘을 쥐고 있다.

27:24, 25절: 짧은 말 안에 많은 것을 담고 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바뀌는 구절

소요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예수님을 넘겨줌.

인류는 그 4000년 동안 의(righteousness) 대신 평화(peace)를 선택하여 문제를 일으켰다.

참된 평화는 의에 기초한다. 천년왕국의 평화

무죄함을 보이기 위해 빌라도는 손을 씻음. 유대인들의 정결레 비슷함.

죄들은 피로 씻겨진다(히9:11-14).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 자기 아내의 딸(27:19)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그들의 운명이 결정됨(출12:6의 성취)

행5:28과 대조적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 주는 확고한 증거: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님을 보여 준다.

이 피는 하나님의 피이다(행20:28).

그의 피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AD70-AD 1948, 말3:6, 출3:3 불타는 떨기나무

십자가에서 주님은 눅23:34의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는 행1-7장까지의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서지 않는다.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58만 명의 유대인 학살

1006년 유럽에서 천주교의 세례에 응하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이 시작됨

1020년, 영국에서 유대인들 추방됨

1272년 에드워드 1세 영국에 유대인들 재산 몰수, 16500명 추방

1492년 천주교의 도미니칸 파 종교재판을 통해 스페인에서 유대인들 추방

1560-1600년, 프라하와 콘스탄티노플에서 추방당함

제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에서 약 600만 명이 학살당함

그 피는 보통 사람의 피가 아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이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 대신 속죄, 몸의 부활의 증거이다.

대환난기가 그들을 기다림: 슥13:8-9, 마24:21

31-37절, 장면이 바뀌면서 골고다로 이르는 과정이 나온다

처음에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심(요19:17).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막15:21; 롬16:13)

약 15-20분 정도의 여정, 비아돌로로사(십자가의 길)

예루살렘 북쪽, 성문 밖의 갈보리(히13:12).

지금 그 길을 가면 상인들이 즐비하고 천주교의 신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마태복음 강해 제7과

마태복음 27장

이들이 해골의 장소에 이르기 전에 누가는 23:27-31절 말씀을 전해 준다.

기독교에서는 여인들이 큰일을 해낸다.

예루살렘의 딸들: 이스라엘에서 믿음을 가진 채 남은 자들(애2:13; 미4:8; 습3:14 등)

눅23:27-31은 AD 70년경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고 또 동시에 환난기의 멸망을 가리킨다.

29절: 마24:19

28절은 마27:25의 죄를 상속받은 자녀들이다.

산들과 작은 산들은 계6:16, 17

31절: 푸른 나무, 마른 나무, 초림 때(70년경의)의 이스라엘과 재림 때의 이스라엘

눅23:32는 다른 범죄자 둘이 함께 있었음을 보여 준다. 두 사람 중의 하나는 회개하였다.

39-43절: 현대 역본 예수여, 킹제임스 주여(Lord)

한 범죄자: 네가 그리스도라면, if의 문제(눅4:3)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군중들과 같은 소리

회개하는 범죄자: 우리는 정당한 보음을 받는다(히2:2).

1. 입 다물고 올바른 분을 비난하지 말라. 2. 우리는 정당한 벌을 받는다. 3.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눅18:13의 죄인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바로 그 시간에 즉각 이루어진다.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과정이 아니다.

엡2:8-10,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 주기 위한 실증 사례

No 주일성수, 침례, 십일조, 헌금, 죄 안 짓는 것, 좋은 부모, 교육, 친구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며 구원을 늦추다간 큰 코 다친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죽어서 천국에 간 줄로 생각한다.

요20:17, 예수님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음

예수님은 성경대로 지옥에 가심(행23:31), 엡4:8-10

원래 낙원은 지하세계(지옥)의 한 부분인 아브라함의 품(눅16:19-31),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은 죽어서 지옥으로 갔음. 지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됨: 아브라함의 품과 뿔뿔 불타는 고통의 장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낙원이 천국으로 옮겨짐(고후12:4).

골고다는 또한 갈보리이다(눅23:33). 현대역본들은 갈보리를 해골로 바꾸어버렸다.

마27:34절: 쓸개 섞은 식초, 막15:23(몰약을 섞은 포도즙), 이것은 정죄 받은 자의 음료, 그러나 주님은 드시지 않았다(잠31:4).

주님은 이 고통의 시간에도 결코 알코올이 든 포도주 음료를 드시지 않았다.

시69:21의 예언, 69:8-9 예수님의 형제들, 주의 집에 대한 열심(요2:17)

십자가에 달린 죄수에게는 못을 박았다(골2:14).

십자가에 먼저 명패를 달았다: 히브리어(종교적, 바리새인), 그리스어(지적, 사두개인), 라틴어(정치적, 해롯 당원), 명패에 기록된 말

마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누가23:38: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요한19:19: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종합: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십자가를 땅에 놓고 범죄자를 그 위에 누인 뒤 못을 박고 몇 사람이 들어서 구덩이에 세웠다.

이쯤 되면 범죄자는 피를 많이 쏟고 못을 의지하고 있으므로 엄청난 아픔, 갈증, 뼈들이 관절에서 나옴.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께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다.

요19:23-24, 옷을 나눔, 눅23:34-35, 예수님의 기도, 백성들의 조롱

마태복음 강해 제7장과

마태복음 27장

45-49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6시에서 9시: 정오 12시에서 오후 3시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막15:33; 눅23:45). 이것은 일식이 아니다(현대 역본들은 일식이라고 함). 어둠이 땅을 덮기 전에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신다(요19:25-27). 요2:4와 같이 ‘여자여!’라고 말할. 그리고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22:1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자신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은 아버지께 버림을 받지 않는다. 삼위일체도 여전히 유효하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딤후2:5) 안에서 영원한 사망이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이 순간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를 대신하는 죄가 되신다(고후5:21; 갈3:13).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하고 외치신다.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출12), 대신 속죄 희생물(히9:28; 뱀전2:24)

그러자 어떤 이들은 그분이 엘리야를 찾는 것으로 생각함.

“내가 목마르다”(요19:28-30).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옥의 뜨거운 맛을 다 보셨다.

예수님은 두 번 물을 달라고 하심: 한 번은 요4:1-20, 한 번은 여기

이번에는 식초를 받으심. 포도주는 거절하심

50절, 숨을 거두시다

눅23:46, 내 영을 맡기나이다.

요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구원을 다 이루셨다. 구약의 희생예물 제도가 영원히 한 번에 다 끝났다.

이것을 반복하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카톨릭의 미사, 히10:10-14

51-53절,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 무덤이 열림

성전의 휘장: 예수님의 육체(히10:20).

휘장이 찢어지고 문이 열려 은혜의 왕좌에 직접 들어갈 수 있음.

구약 시대의 막이 내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많은 자들이 부활하여 예루살렘에 나타남.

부활: 첫 열매(지금 이 사람들), 수확(살전4), 이삭줍기(환난기 이후)

구약 시대 성도들의 부활은 환난기 이후에 이루어진다(사26:18-21; 겔37:1-17; 마24:29-31).

54절, 백부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막15:39), 의로운 사람(눅23:47)

55-61, 아리마대 요셉, 여인들

그 당시 여인들, 사람 수에도 들지 못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마리아 수가 성의 여인,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막달라 마리아, 나인 성의 과부 등, 또 많은 여인들이 그분의 십자가 앞에 자리를 지키고 있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요 동시에 억압받는 사람들의 구원자(눅4:18-19). 여인, 어린아이, 세리, 창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기간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한 적은 없음.

여러 명의 마리아: 1. 예수님의 어머니, 2. 막달라 마리아, 3. 요한과 야보고의 어머니, 그분의 이모 마리아(요19:25), 1-4는 그곳에 있음. 그 외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 요7:47-53, 요12:42의 권세자 혹은 치리자 중의 하나

확신을 갖게 됨(눅23:51, 막15:43).

그에게 있던 확신이 결국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게 함
빌라도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림(막15:44).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이 아니다. 참조 계1:18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막15:45-47, 눅23:52-54; 요19:40 등에 있다.
부자의 무덤, (사53:9)의 성취
요19:39를 보면 또 다른 치리자가 나타난다: 요3의 니고데모
수요일 저녁 밤(유대인들에게는 목요일이 시작되는 때)에 그분의 몸이 무덤에 들어감.
이로부터 몸은 세 밤과 세 낮을 무덤에 있었고 그분의 혼은 지옥(낙원)으로 감.

마태복음 강해 제79과

마태복음 27장

62-66, 그분의 무덤을 지키

예비일 다음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목요일의 시작인 수요일(예비일) 밤 6시 이후이다.

막15:42 처형된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 날

여기의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안식일이 아니다. 요19:31 큰 날이라고 함

62절: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크게 노심초사하는 자들: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기득권자들)

빌라도의 대답: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굳게 지켜라.

봉인과 파수꾼: 다니엘서 6:17-18의 다니엘과 비슷하다.

28장을 읽기 전에 알아야 할 것: 무덤은 소유주가 돌로 막았고 정부가 봉인을 했고 군사들이 보초를 섰다.

마태복음 28장

1-4절, 막달라 마리아 등이 일요일 새벽에 무덤에 옴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 사두개인들이 많고 이들이 종교통합의 주체이다.

이들의 주장: 4복음서 부활 기사가 뒤죽박죽이다. 그러므로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는 타원의 두 센터이다.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고전15:12-19).

1. 마28:1,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막16:1))가 무덤에 감.

이름이 나오지 않은 다른 여인들도 같이 감(눅24:1).

그중에 요안나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다(눅24:10).

2.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고 다른 여인들은 아직 남아 있다(눅23:55-24:10; 요20:1-2).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요안나(마28:5, 여인들)는 무덤 안에 들어가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나와서 다른 여인들에게 알린다.

3.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들어가 살펴보고 옷을 발견한다(요20:1-10).

4. 사도들과 다른 여인들이 떠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는 되돌아와서 온다. 이때에 주님이 나타나신다(요20:11-18).

5.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요안나는 자기들이 연락한 여인들과 함께 다시 와서 이번에는 천사들을 본다(눅24:4,5; 막16:5). 두 번째 가면서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이후에 역시 예수님을 본다(마28:1-10).

5-9절, 천사들과의 만남

예수님의 부활: 사도행전에 절대 확실한 증거들과 함께 제시되었다(행1:2-3)

1. 몸이 없어졌다.

2. 몸을 찾기에 혈안이 된 병사들이 찾지 못함(마28:15).

3. 500여 명이 그분을 봄(고전15:5-8).

4. 그분의 몸을 흠쳐가려면 로마 군인들을 다 잠재워야 한다(마28:4).

5. 그분의 몸을 흠쳐가려면 적어도 2-30분 동안 수의를 풀어야 한다(요20:5,7).

6. 그분의 몸을 흠쳐갔다면 로마 정부와 산헤드린 공회는 큰 망신을 겪는다.

7. 영체로 일어났다면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을까?(눅24:42)

8. 그분은 살과 뼈가 있었다(눅24:39).

9. 그분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증언하셨다.

개역은 여기서 '확실한'이라고 하여 '절대 확실'(infallible)을 드러내지 못함.

예수님의 부활은 다음의 것들을 약속한다.

1.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이와 같다(롬6:5, 8:11; 고전15:20-50; 빌3:20, 21).

2. 우리의 부활한 몸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이다(눅24:39).
3.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인다(막달라 마리아, 손대지 말라.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데 채 2시간도 안 걸린다. 요20:17; 마28:9).
4. 육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육을 감출 수도 있다(요20:19; 눅24:31).

예수님의 부활은 다음의 사실들을 확증한다.

1. 최후 심판 이전에 부활이 있다.
2.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부활이다.
3. 이 부활은 사람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4. 이 부활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계보고 할 것을 확증한다.
5. 어린아이와 같이 정결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그분의 일을 믿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토록 찾던 귀한 것들(고전2:9)을 얻을 수 있음을 확증한다.

6절: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셨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부처, 공자, 모하메드, 조로아스터, 니체, 버트런드 러셀, 볼테르, 다윈: 썩은 무덤을 자랑한다.

눅24:5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요10:10)

이 여인들이 와서 그분의 발에 손을 댄, 이미 하늘로 가셨다가 돌아오심

9절: 그분에게 경배하였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부활하신 주님

10-15절, 거짓말

막16:7 천사는 베드로에게 먼저 갈릴리에 가라고 함.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부터 그가 어떻게 변할지 말고 계셨다.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야고보만 부활의 주님을 믿음(고전15:7, 갈1:19; 행15:13)

종교 지도자들이 군사들의 입을 막으려고 많은 돈을 줌.

16-17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

의심하는 자들도 있음(요20:21-28).

요한복음 20, 21장에 그분의 부활 이후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됨

1. 예수님은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옴(요20:19).
2. 의심하는 도마,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 함
3. 물리 과학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함(요20:27).
4.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임을 확증한다(딤후3:16).
5. 예수님은 주님과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으신다.
6.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으므로 세 번 시인하여 회복됨(요21:15-17).
7.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세 번 부르신다. 조그만 돌맹이, 모래,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한 것을 확증함
8. 21:14의 나타남은 셋째 것이다.(요20:19, 20).

18-20절, 민족들을 가르쳐라

18절: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된다.

1. 모든 권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롬13:1-6).
2. 이 권능이 그분의 아들에게 주어졌다(요5:22, 23, 26, 27).
3. 아들은 이 권능을 위임한다. 가장 먼저 마귀에게(눅4:6; 히2:14)
4. 그 다음은 사탄의 수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엡6:12; 계13:1-7).
5. 인간 통치자들(롬13:1-6)
6. 영적인 권능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다(엡1:19; 요1:12; 고후6:7 등)
7. 이 영적 권능은 예언적인 형태로 먼저 베드로에게 주어졌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시려고(행2;

행10). 사면하고 그대로 두는 권능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마16:19; 18:18).
징계하는 권능이 지역 교회에 주어짐(고후 5, 6장), 딤펢전 3의 목사와 집사, 가르치는 장로(벧전 5, 딤펢전 5),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19절 그러므로,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므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삼위일체, 이름: 권위를 뜻함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의 끝